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CTIVE AND EFFECTIVE COMMUNITY SERVI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CHURCH AND COMMUNITY

written by

SOO H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ung Suck Rhee

Yea Sun Eum Kim

Seyoon Kim

April 16, 2003

**ACTIVE AND EFFECTIVE COMMUNITY SERVICE
THROUGH COOPERATION OF CHURCH AND
COMMUN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OO HUN KIM

APRIL 2003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 지역사회
봉사방안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이 정 석 교수

김 수 훈

2003년 4월

Abstract

Active and Effective Community Service
through Cooperation of the Church and Community

Soo Hun Kim

Doctor of Ministry

200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nce the 1980s, many Korean churches have been greatly concerned about the practice of community service, the mission of a church.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large churches, average-sized churches face many difficult problems while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without the aid of other churches, and are burdened by this task due to their limited resources. So this Ministry Focus Paper proposes a method of overcoming issues that these churches face while practicing community service by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practicing God's command of brotherly lov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This paper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main part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practicing God's love and brotherly love. In order for today's Korean churches to be effective in practicing community service, they must create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of justness to use as their guideline.

In second part of this paper, community servic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should be identified as one of God's commands relative to today's society. This cooperative effort can be found by study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while observing the ever-growing desire for both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to work together. By using the statistics from research based on Korean churches, this paper will show that today's churches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diverse groups of its community in order to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perform community service.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presents specific cases of Korean and American churches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with the cooperation of its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not many examples,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churches incorporating the community in performing these services.

The last part of this paper presents which programs are effective for different groups in the community. Research was conducted on various groups, and these results will show how churches can become an active member of its community, not an isolated being, according to its situ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possibilities of churches practicing brotherly love by cooperating with all the members of its community in activities improving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 This cooperative union will produce a well-rounded church that is equally balanced between both Gods love and brotherly love.

Theological Mentors: Jung Suck Rhee, Ph. D.

Yea Sun Eun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멀리 미국에까지 와서 귀한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와 성경신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주신 김세운 교수님과 Fuller 신학교의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이정석 교수님과 엄예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항상 후원해 주신 어머니님과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 곁에서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자와 격려자로, 상담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의 논문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으면서 논문을 위해 늘 기도로 도와준 이래와 이현, 미국 생활에 몰심 양면으로, 기도로 도와준 사랑하는 나의 형님과 큰 누님, 작은 누님 가정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교회 사회봉사의 경험을 통해 교회 사회봉사의 눈을 뜨게 하신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박영철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 멀리 한국에서 기쁨으로 도와준 안재경 집사님, 그리고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한국과 미국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목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1월 김수훈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2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6
제 4 절 연구의 범위	7
제 2 장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 실천의 근거	8
제 1 절 성서적 근거	9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	9
가. 구약성서에서 봉사의 어원적 의미	10
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사	10
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봉사	12
2.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	14
가. 신약성서에 나타난 봉사의 어원적 의미	15
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봉사	16
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17
제 2 절 교회론적 근거	18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19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22
3. 세상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23
제 3 절 신학적 근거	27
1. 하나님의 형상	27

2	삼위일체의 신학	29
3	이웃 사랑의 신학	31
제 4 절	교회사 속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34
1.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34
2.	중세교회의 사회봉사	36
3.	종교개혁 시대의 사회봉사	38
4.	경건주의 속에 나타난 사회봉사	39
5.	현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사회봉사	41
제 5 절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43
1.	교회와 국가의 상호관계	44
2.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46
3.	교회와 국가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	47
제 3 장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의 시대적 요청	49
제 1 절	지역사회에 대한 고찰	51
1.	지역사회의 정의	51
2.	지역사회 속의 교회	54
제 2 절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56
1.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	57
2.	민영화의 출현	59
3.	민영화의 분류	60
4.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 역할의 필요성	62
5.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민영화의 문제점	65
제 3 절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시대적 요청	66
1.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형태	68
2.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시대적 요청	69
	가.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	72
	나.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율	73

다. 교회 사회봉사 실천 시 가장 어려운 점	74
라.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76
제 4 장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사례	79
제 1 절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사례	80
1. 도림교회	81
2. 덕수교회	87
3. 도원동교회	101
4. 일산동천교회	108
5. 한남제일교회	110
6. 잠실교회	113
제 2 절 미국교회의 사례	118
1. 개교회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	118
가. 월넛 스트리트 침례교회	118
나. 몽고메리 제일침례교회	119
다. 던우디 침례교회	121
2. 미국 남침례교 국내선교부의 지역사회 사업	122
3. 지역사회 사역	123
제 3 절 종합과 결론	126
제 5 장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 방안	129
제 1 절 지역사회봉사의 협력 대상	130
1. 교단과의 협력	130
2. 정부와의 협력	131
3. 공공기관과의 협력	133
4.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134
5. 민간기관과의 협력	136
6.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138

제 2 절 협력을 통한 교회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소개	139
1. 교단과의 협력 프로그램	139
2. 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	142
3. 공공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143
4. 지역교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145
5. 민간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146
6. 지역 주민과의 협력 프로그램	147
제 3 절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문제들	149
제 4 절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교회 사회봉사 실천 방안	153
제 6 장 결론	163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63
제 2 절 제언	167
참고문헌	169
Vita	175

표 목 차

<표 1> 민영화의 분류	62
<표 2> 교회의 사회봉사 사명에 대한 인식	72
<표 3> 우리나라 교회의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견해	73
<표 4> 소속교회의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대한 견해	74
<표 5> 사회복지활동 수행의 어려운 점 종합점수	75
<표 6> 공공기관과의 관계	77

제 1 장

서론

한국 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세계 선교사 속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선교 1세기만에 국민의 2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고, 교회당을 이렇게 많이 세운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개교회 중심의 수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변화된 국민들의 욕구와 생활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개신교회는 성장이 거의 멈추어 버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최근 교회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교회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한국 교회 초기부터 교회의 사역은 사회봉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6.25 동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의 현장에서 병원을 세우고,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학교, 육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으며, 교회 안에서 중심적 사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봉사가 교회의 중심적 사명이 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초기부터 한국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 사상에서 신앙의 실천이나 봉사의 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주로 사회봉어나 사회사업에 대한 부분은 선교사들이 주도했지 교회가 주도하지 못했으며, 교회는 주로 전도나 심방 등 교회 성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다.¹⁾ 그리고 오늘날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환경 가운데 교회도 변화를 요청 받고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수(數)'라는 양의 개념을 뛰어넘어 '질(質)'의 개념으로 목회적

1)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송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서울: 한울, 1992), 10.

패러다임을 변형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수용이기도 하다.

제 1 절 연구의 동기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주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는 두 가지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나는 교회의 영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세상적 과제이다.²⁾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교회의 영적인 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영적 기능과 세상적 과제가 함께 수행되어져 갈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³⁾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26)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완수하라는(마 22:37-40, 롬 13:9) 성서적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약 85.9%가 사회봉사 실천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회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면 57.2%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⁴⁾ 이것은 교회가 사회복지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미진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

2) 김명용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능을 여섯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계시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둘째, 전도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셋째, 영적 일꾼 양성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넷째,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다섯째, 성도의 사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 여섯째,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이다. 그리고 교회의 세상적 과제는 첫째,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 둘째, 정의의 수립, 셋째, 평화의 수립, 넷째,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다섯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한 이웃과의 협력, 여섯째, 교회의 정치적 책임과 공동의 선 창출이라고 한다. 김명용, “교회와 하나님 나라,” 장신논단 제7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1), 156-178.

3) Ibid., 163-178.

4) 김미숙 외, 교회 사회복지활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68.

다. 첫째, 개별 교회의 교세 확장, 시설 확충, 물량적 교회 성장을 우선함으로 이웃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등한시하고 있다. 둘째, 개별 교회 안의 자체 신자들을 위한 봉사는 행하지만, 교회 밖의 이웃들을 향한 대외적 사회봉사에는 형식적이거나 미약하다. 셋째, 사회복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 행사의 일환일 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실생활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 활동이 너무 개별 교회 단위로 이루어져 교회간 사회복지 활동의 불균형과 불평등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교회 자체가 소외계층과 거리를 두기도 한다. 즉, 교회가 중산층 화하고 귀족화하면서 사회복지 활동을 기피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한다. 여섯째,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예산은 교회 총 예산의 평균 6-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곱째, 주민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은 열심이지만, 교회 재정과 교회 시설,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력을 사회복지 활동에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최근에는 한국 교회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일면서 교회들이 사회봉사 실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인의 목회지인 도원동교회도 초기부터 지역 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실천해 왔다. 도원동교회 지역은 과거 한국의 전형적인 도시지역의 '달동네(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였다. 1946년에 이복 출신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진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교회로, 초기에는 장년 150명 정도가 출석하여, 현재 장년 8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곳(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사회봉사를 실천해야 함은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 교회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교회내의 영적인 훈련과 성숙은 교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적인 실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봉사자원의 한계, 재정의 한계, 시설의

5) 조흥식, "지역사회복지와 교회건물 개방,"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92-93.

한계, 프로그램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⁶⁾ 본인의 목회지인 도원동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교회들이 해오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기도 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부분적이지만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해오면서, 사회봉사는 교회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지침, 그리고 효과적인 실천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특히 오늘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문화와 연대성이라고 했다.⁷⁾ 이러한 점에서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실천에 관한 연구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시대적 요청으로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지역의 교회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 실천 방안을 연구함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봉사에 대한 교회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의 사회봉사의 정당성과 그에 따르는 지침을 설정하는 이론적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특히 시대적인 요청으로서 효과적인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을 위해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이론적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임을 제시하고자 한

6) 대부분의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에 관한 자료 조사에 의하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동배 외,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편,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김미숙 외,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등을 참고할 것.

7) 성규탁 등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의 저해요인으로서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부재가 재정상의 어려움 다음으로 지적되었다. 성규탁 외,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 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36.

다. 교회는 사회사업을 낳은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를 구령의 대상으로만 알고 이를 위해 매진해 왔다. 이로 인해 이웃 사랑의 실천의 주체가 국가나 일반 단체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국가나 일반 단체들에게도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롬 8:28)를 원하신다. 현대 사회봉사는 어느 한 곳만의 사명이 아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 4:12)고 했다.

셋째,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의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실태를 조사한 통계자료들은 우리 교회들의 이웃 사랑에 대한 현실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21세기를 위해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넷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리 이론이 좋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론일 뿐이다.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실천에 있다. 따라서 협력을 통한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 사례 수집을 통해서 그 실천의 가능성을 알고자 한다.

다섯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를 위해서 협력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좀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를 위해서 협력의 대상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대상별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알고자 한다. 사회봉사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봉사 실천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협력의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실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천함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회봉사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1장은 서론으로 시대적 요청으로서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2장에서는 교회 사회봉사의 이론과 그 실천적 근거를 먼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그 어원적 의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회봉사 실천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교회론적인 근거를 위해 교회의 사회봉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세상을 위한 사도의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또한 신학적 근거를 창조와 삼위일체,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신학에서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봉사의 모습을 찾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근거를 위해 교회 사회봉사 실천의 장인 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 나타난 민영화와 민영화의 한계를 논하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통해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의 실태를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의 시대적 요청의 근거를 정리할 것이다.

4장에서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의 사례 관하여 논할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 지역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들의 사회봉사 실천의 사례들과 미국에서 지역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교회 사회봉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협력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할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논의한 사례들과 자료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의 대상별로 분류해보고, 협력의 대상별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실천에 있어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의 결과물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6장은 결론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 실천에

대하여 요약 정리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 신학 문헌과 자료들, 그리고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관한 문헌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장과 4장 연구에 있어서 자료는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의 문헌들과 특히 지난 10여 년 간의 일반 및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의 조사자료들과 본인의 소속 교단인 장로교(통합) 교단의 조사 통계 자료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4장의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본인의 소속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의 한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모았고, 미국의 교회는 교단에 상관없이 수집되었다. 본 논문은 단일 문화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는 사례연구에 포함되었지만 특성상 미국에 있는 한국의 이민교회의 사회복지는 사례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장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 실천의 근거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6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계에서 날카롭게 진행되어왔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대립된 신앙적 시각에서 보수신앙과 진보신앙이라는 스스로의 울타리를 치고 상대방을 비난하였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개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에게 사회봉사의 실천은 성서적 요구이며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당위성이다.⁸⁾ 이것은 개인을 사랑하는 봉사가 사회정의 실현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사회변혁의 행위가 개인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는 보완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는 개인의 사랑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결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행동이나 폭력적 수단을 쓰는 혁명 운동이 기독교적인 봉사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⁹⁾ 이 논쟁의 실마리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행인 것은 점차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회봉사’, 또는 ‘사회참여’란 말이 종래의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드높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화의 사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고 실천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서적, 신학적, 교회론적, 그리고 교회사적 자료들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8) 이창희,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교회적 과제,”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63-64.

9)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21.

사회봉사의 근거들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실천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성서적 근거

성서에서 말하는 섬김의 활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이웃 간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이다(마22:37-39; 막12:31-33; 눅10:27; 요일 4:20-21).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율법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한마디로 섬김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

이스라엘은 그 처음 출발이 혈연적이거나 지연적인 면에서라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식면에서 한데 묶여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신앙공동체의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도 포함하는 사회를 섬기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할 때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알려주는 그대로 오늘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도 한 왕정 국가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사회생활 분야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이 그 구성원의 모든 면을 결정하던 그 전과 달리 종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한 사회가 되었다.¹⁰⁾ 또한 혼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외에 이방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으며, 이방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마을 장로들의 역할 속에서 협력을 통한 봉사의 근거를 찾아 볼 것이다.

가. 구약성서에서 봉사의 어원적 의미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발’(אָבַל)이 있는데 여기에서 ‘섬

10) 박동현,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116.

기는 사람= 종'이라는 '에뵤'(עֶבֶד)이 나오고, 구약에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271번 나오는데 반해 '종'이라는 명사 '에뵤'(עֶבֶד)은 800번 나온다. 이 단어는 세 번에 한번 꼴로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이란 표현에 쓰이고 있다. 또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사야 39장-66장에 나타난다. 자유인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샤랄'(שָׂרָל)이 있으며, 내용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시기 위해 그 윗사람 앞에 서서 명령을 받아 하는 몸가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아말 렫네'(신 1:38; 왕하 4:12; 왕하 5:15; 겔44:11; 왕상 10:8; 렘 40:10; 단 1:5)가¹¹⁾ 있다.

또한 이 '아발'(אָבַ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한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나 또는 한 평생을 일하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구약에서 사람의 사람됨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서 '일하다'를 뜻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간다'는 동사가 바로 이 '아발'(אָבַל)인데 여기에서 '섬김'은 곧 '사람이 사회 관계 가운데 사는 한 삶든 좋든 간에 하게 되는 활동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²⁾ 결국 히브리어에서 섬김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사람됨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 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사

구약성서의 사회봉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세상을 이룸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¹³⁾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고 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 함께 사는 섬김과 나눔의 삶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율법의 핵심은 약자보호법과 이웃 환대법이다. 이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창 23:4; 출 2:22; 13:3; 22:21; 23:9; 레 19:34; 신 10:19; 레25:23),¹⁴⁾ 이스라엘은 '고향을 떠나 아무

11) Ibid., 118.

12) Ibid., 119.

13) Ibid., 127.

14)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53.

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사람들¹⁵⁾에 대하여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신도 애굽에서 빈자(貧者), 이방인,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출 22:21),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듯이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섬김, 즉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창 12:3),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을 볼 때 (창 30:27; 41:37-38; 47:13-26; 참고 26:26-33), 우리는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 있다. 나아가 특히 이사야 42장 앞부분에 보면 '야훼의 종'을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세상에 공의를 세울' 사람으로 소개하고 마침내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 하여 '야훼의 종'은 이방세계도 섬기는 종이라고 할 수 있다.(렘 48:31-39)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의 일치'라는 것이다.(암 5:21-24; 사 1:10-17; 렘 7:1-15) 아무리 예배를 성대하게 드린다고 하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요.(사 1:17; 렘 7:5; 암 5:24)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삶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섬김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난다. 종들의 문제(출 21:2-11), 가난한 사람, 나그네의 권리를 말하고(출 23:10-12), 떠돌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출 22:20-26). 특히 출애굽기 22장 23절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가 두드러졌던 제도들이 구체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 년마다 거두어들이는 십일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신 14:28-29; 26:12-15).

15)이것은 히브리어로 '겔'(גֵּל)인데 개역 성경은 이 '겔'을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레19:34),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레16:29)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봉사의 실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구약에는 민간복지와 공공복지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과 관이 합리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삼 년 끝에 그 해의 십일조를 개인들이(민) 성의 창고에 모아서(관) 이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신14:28-29)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한 모세 율법에 명령된 복지제도는 국가 조정의 수입 재분배를 포함한 공공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사회를 허약하게 하는 빈곤에 직면하여 모세 율법은 개인이나 가정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적인 공공 복지제도를 나타내고 있다.¹⁶⁾

모세 율법이 명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고대 이스라엘 장로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세 오경에는 고대 헬라적 의미로나 현대적 이론에 따르는 것과 같은 국가에 대한 개념은 없다. 또한 삶의 시민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약 백성을 가리켰고, 전승 속에서 족장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족장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인이 살았던 사회 구조를 잘 표현하는 용어이다. 족장은 가장일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영적인 책임자였다.¹⁷⁾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족장은 가족에 대한 생사까지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창 22:31:32). 고대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삼대로 이루어지는 대가족제도의 생활이었다. 이러한 대가족을 히브리어로 '벤압'(בֵּית אָב)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다. '벤압'(בֵּית אָב)의 족장은 촌락을 다스리는 장로회의 일원이 되었다.¹⁸⁾

그 시대에 대가족의 족장인 장로들의 역할은 백성을 지도하고(출 3:16: 4:29: 17:5: 18:12: 19:17: 24:1: 민 11:16), 지방행정에 참여하였으며(삿 8:14: 수 20:4: 룻 4:2), 재판의 기능을 담당했다(신 22:15: 25:7).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시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도 했다(출 3:14: 4:29: 19:7).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마을 어귀에 모여' 공동체에 대하여 정치적인 감독을 시행했고, 마을들 간의 분쟁을 조정했다.¹⁹⁾ 특히 율기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적

16) 박영호, 85.

17) Ibid., 86.

18) N. Gottwald, *The Tribes of Israel of Yahweh*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20.

절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군주 정치 이전의 참된 이스라엘 장로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 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욥 29:7-17)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고 불구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나그네들을 도움으로써 성내의 의와 정의를 복돋우었다.(욥 29:14; 사 59:17) 아울러 7년째의 이자나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경우나 조상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중재함으로 장로들은 하나의 행정조직체가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한 판정과 아울러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출 23:6; 신 24:17; 27:19; 욥 36:6; 시 140:12; 잠 29:7; 31:9; 사 10:2; 렘 5:28). 이 시대에 마을 장로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적인 민간의 노력이 부족할 때, 장로들은 가능하면 집중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국가 조정의 수입 재분배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⁹⁾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삼상 8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위의 열방들과 같이 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여 군주정치를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확하게 마을의 장로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의 언약 사항들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신 17:14) 사회의 보다 연약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시 72:1-4, 12-14) 공의와 의

19) H. Huffman,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59-75.

20) 박영호, 97-98.

를 확립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각 가족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아래 앉을 수 있게 소유권을 보호해야 했다(미 4:4).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주도했다.²¹⁾ 이런 의미에서 현대 교회 사회봉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모세 율법 시대에 있어서 장로들은 마을 어귀에 모였다(신 21:2). 모여서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약한 자들의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 협력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내의 자원들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역의 모든 봉사 자원들과 협력하고, 국가 주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관과 협력하여 약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이 바로 협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회봉사 실천의 모습은 공적 권력에 의한 공공복지와 사적인 민간 복지의 책임을 비슷한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복지제도라고 할 것이다.²²⁾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난한 자들과 사회구조 혹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간에서 사회봉사 실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늘의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

신약성서의 핵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건(요 1:14)에 있으며,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 당하는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 눈 먼 자들, 주린 자들, 우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음'(좋은 소식)이었다(눅 4:18; 6:20-22; 마 5:3-11).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사 61:2)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역사 속에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섬김을 보여주신 최초의 봉사자

21) Ibid., 91.

22) 성경은 모세율법에 구현된 윤리적 주장들에 따르는 민족들에게 이 세상의(살림으로 언급되는) 개인적, 사회적 조화 상태를 약속한다. 이 약속된 조화의 상태는 이사야 11장 6절-9절, 에스겔 34장 23절-31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4절-23절을 참고하라. Mendenhall은 이 상태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왕상 4:24, 미 4:4) '자신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삿 17:6, 21:25, 신 12:8, 잠 12:15) 평안한 상태"라고 묘사한다. Georg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3), 26-27.

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다양하게 구체화하여 말했다(산상설교와 평지설교). 그리고 자기부정(self-denial)과 종 됨(servanthood)을 그의 제자도의 근본 원리로 삼으셨고 모범이 되셨다(막 8:34-35; 10:42-54).²³⁾ 신약성서는 사회봉사 실천의 살아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신약성서에 나타난 봉사의 어원적 의미

봉사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에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여성명사로 동사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에서 나온 말로 신약성서에 총 35회 나타나고 있다.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종들기, 육신의 양식 조달하기, 식사를 관장함'(눅 10:40; 행 6:1), '사랑에 찬 섬김의 수행'(고전 16:15; 엡 4:11-12; 롬 12:7), '전도'(행 6:4), '어떤 의무들의 수행'(롬 11:13; 고후 4:1; 골 4:17), '모금'(롬 15:31; 고후 8:4)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섬김, 봉사'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든 실천을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일반화하였다.²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모든 일, 즉 사랑의 모든 구체적인 행위가 섬기는 일이요, 봉사라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봉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교회봉사)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사회봉사)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서 봉사는 사회봉사를 의미한다.²⁵⁾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식사 시종이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부양과 생계를 돌보는 것 뿐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에 있다는 것이다. (막 9:35; 10:43-45; 마 20:26-28). 처음부터 온전히 자기의 인격을 다 바쳐 타인을 지향하는 봉사를 의미한다.²⁶⁾ 신약성서에서 '섬김' 혹은 '봉사'라는 의미의 디아코니아의 핵심은 철저한 남을 위한 존재로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3) 김세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고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276.

24)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12.

25) 이원규,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 사회봉사총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33.

26) H. Kung, Theology for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Doubleday, 1988), 223-224.

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봉사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봉사 정신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막 12:30-31)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승화된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루셨다. 따라서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고아와 과부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마 9:10-11; 11:19; 막 2:15-16; 눅 5:29-30; 7:34; 19:5).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공계하는 것이 교회의 공적의무라고 하셨다(요 13:29). 예수님은 가난한자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고(눅 7:22), 그들은 환대를 받아야 하며(눅 18:22),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열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눅 16:25).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다(약 1:27).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일에 헌금을 거두라’고 했으며(고전 6), 사도와 전도자의 의무의 일부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라 하였다(갈 2:9-10). 또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엡 4:28)고 명령하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비유를 통하여 섬겨야 할 대상 즉 봉사해야 할 대상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며 그들이 곧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하셨다.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의 구별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참 이웃이 될 것을 명령하신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처지라면 그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도움을 주거나 섬겨야 할 것이다(눅 10:25-37).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이 바로 기독교 사회봉사의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하는 목적은 봉사와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행 6:1-6).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해 일반 성도들 가운데 택하여 ‘집사’(διάκονος)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즉 봉사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넘치도록 헌신한 것(고후 8:1-4, 롬 15:25)을 격려하며, 자신을 열심히 돕는

이들을 보고 그들의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빌 1:3-7; 4:10-18).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칭찬 받는 교회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사실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나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다. 시대적으로 교회 핍박의 시기였으며 신앙의 고백조차 어려운 순교자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은 구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간의 협력을 통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 속에서, 협력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봉사를 하게 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과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섬기러 오신 자로서(마 20:28; 막 10:45)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요 13:4-17). 이러한 점에서 신약성서에는 많은 섬김의 내용들이 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시대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들 간에 섬김의 사역이 있다.

사실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이웃 사랑의 순종이 이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봉사가 협력의 모습으로 이어질 때 더욱 귀하다. 오병이어의 기적(마 14:15-21; 막 6:34-44; 눅 9:12-17; 요 6:5-13)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장년만도 오천 여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시려 하셨다. 그곳에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제자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다. 비록 작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통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작은 도구(오병이어와 그것을 드린 사람)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주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중개자를 구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그는 일을 할 수 없다. 주를 위해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²⁷⁾ 예수님

은 돌로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 온 지면에 먹을 것을 내리게 하여서 제자들의 수고를 피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협력하고, 나누어주는(마 14:19) 하나님과 이웃의 중개자로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마 14:13-21; 막 6:34-43; 눅 9:12-17; 요 6:5-13).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다(행 2:44-45; 4:32-37).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모은 것'을 가지고 갔다(롬 15:25-27). 특히 이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충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칭찬한다(고후 8:1-2).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말씀한다(고전 12:12-27).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에게 '협력한 교회'라고 칭찬하였다(빌 4:15).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롬 8:28, 표준새번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이라고 하셨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듯이 교회들도 협력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업의 중개자로서, 주님의 섬김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교회론적 근거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존

27) William Barclay, 성서주석시리즈 마태복음 (하), 황장욱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9), 160-161.

재하는가? 성서의 정신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옛 교회론에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전도를 통한 구령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론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²⁸⁾ 이것은 교회가 자체의 존속과 성장을 최종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교회 제도의 성장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수립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해야 한다.²⁹⁾ 이를 위해 교회의 중요한 과제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대로 영적인 기능과, 세상적 과제이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 IV/3에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존재, 세상을 위한 교회 존재의 본질을 '봉사'를 위한 교회공동체로 보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존재의 봉사와 제자직 안에서 세상과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한다.³⁰⁾ 이런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봉사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흠어진 교회로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론에 나타나는 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적 근거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오늘날 다수의 개신교 신학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고 있다.³¹⁾ 이

28)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109.

29) 김명용, "교회와 하나님 나라," 160.

30)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3, (Edinburgh: T.S.T. Clark, 1962), 762.

31) op. cit., 110. 카톨릭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했다. 물론 여전히 카톨릭 교회의 제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편), 제2차 바티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와 직접적으로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회가 과거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세 가지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다.³²⁾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그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영적인 활동과 책임이고, 둘째는 세상을 향한 과제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마 22:37-40)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육, 전도, 감사 등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사명은 인권,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등 세상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다.³³⁾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원리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은 개인적인 온전함, 사회적 살롬, 생태계의 건강 등과 같은 형태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두 개의 바퀴와 같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루어 가는 수레답게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칼 바르트는 이를 위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임무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교회가 세상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야 하며, 둘째로 교회가 세상과 연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성령을 함께 나누어야

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6), 63-74.

32) Alvin J. Lindgren,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36.

33) 1982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 12차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총회는 정의, 평화, 환경(JPIC)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1989년 8월 서울 총회에서 재 천명되었다. 김철영, "창조질서 보존에 관한 윤리 신학적 분석," 장신논단 제 6집, (1990): 참고.

한다. 이는 곧 전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것이다. 셋째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달려가 그들의 필요에 응해주는 것이다.³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것은 결코 특권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렀다고 하셨다(출5:1; 8:1; 8:20; 9:1; 9:13; 10:3).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인 사명이 있다. 본 회퍼는 교회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 받은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얻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실존한다. 즉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자를 위한 실존에 유비하여 오직 세상을 위해 실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실존할 때만 참다운 교회가 존재가 된다. 교회는 새로운 출발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 교회는 무슨 직업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타자를 위해서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³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 인간으로서 살면서 타자를 위한 실존(Being for Others)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천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마 25:21-23)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34)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3*, 762-795.

35)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and Etrebung*, 옥중서신,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42.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교회의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롬 12:5; 엡 1:23). 이는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교회 구성원이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서로에 대한 인정, 고통의 나눔, 그리고 지체들을 연합하는 사랑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롬 12:5; 엡 4:16; 빌 3:10-21; 골 1:24).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입이요 목소리라는 주장³⁶⁾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조직된 기구적 구조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조직이 없이는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구적인 구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혹자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직 기구적인 변영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의 조직과 기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방편 이상의 것이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몸(도구)이어야 하고, 이는 교회가 현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정신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말과 상통한다.³⁷⁾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선포만 해선 안되고,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봉사 공동체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야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에릭슨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육신해 계시는 동안 나타내 보이셨던 속성들에 의해 특징 지워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곧 '자발적인 섬김'라고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³⁸⁾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였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발적인 섬김의 자세를 본질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금에 볼 수 있듯이 비록 교회가 대형화되고 부와 명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적

36) Alvin J. Lindgren, 46

37) Ibid., 49.

38)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89.

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지에 근거하면서 교회가 행할 활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은 대부분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못 되는 무능한 사람들에게로 먼저 다가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은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다.³⁹⁾ 이는 곧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선교와 봉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오순절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교회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를 늘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생명의 질적 수준은 외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⁴⁰⁾ 결국 교회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종의 모습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내는 관심은, 즉 이웃을 섬기는 모습은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의 상징이 된다.

3. 세상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의 사회봉사

주후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도적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날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견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마 16:16-17),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한다. 이를 일컬어 베드로 수위권, 교황 수위권이라 칭한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한 교회의 다스리심은 베드로라는 한 명의 사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요한 등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란 사도들의 정신이 통치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즉 사도들이

39) 손인웅, “교회 사회복지 참여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5.

40) Donald G. Mi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51.

남긴 예수님의 복음, 교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 것이다. 교회의 터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이기 때문이다(엡 2:20). 그러므로 이 사도성은 교회의 표시다.⁴¹⁾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으며,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고 하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마 28:18-20; 행 1:8). 따라서 사도들의 정신에 순종하는 사도적 교회란 사도들의 정신과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받고 순종하는 교회를 말한다. 예수님의 사도적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회봉사는 세상을 위한 사도적 증인의 삶이다. 이 사도적 사명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고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4-45)고 하신 기독교 황금률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신 사명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온 율법을 실천하는 사도적 교회의 표시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교회의 가난함에 있으며,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고난받음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으로 가야한다. 그리스도는 사도적 과 성례전, 신앙공동체의 형제적 사귄 가운데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31-46의 약속에 따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가서 현존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41)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68-71.

42)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외 4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교회는 예수의 제자, 즉 사도로서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 봉사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의미에서 집사였고(롬 15:8),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집사였고(고전 3:5; 엡 3:7), 천사들도 집사들이다.(히 1:14) 또한 유다 대신 제자를 보충할 사람을 택할 때 성경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행 1:25)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의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면서 돕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나 방언의 은사보다 앞서 나온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도의 삶은 봉사의 삶을 동반하고 있다. 결국 신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집사의 직분을 초월하여 사람의 종교적인 표현의 전 범위에 연장되는 것이며 이것이 사도로서의 교회의 의무이다. H. C. Cushing은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종의 모습을 지닌 교회'(The Servant Church)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말(설교와 전도)로써만이 아니라 화해, 치유, 봉사의 구체적인 실천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타자를 위한 존재처럼 교회 역시 이웃을 위한 공동체(the community for others)가 되어야 한다.⁴³⁾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설교와 가르침, 친교 그리고 봉사의 기능이다. 물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말씀 전파의 현실화의 기능이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봉사 즉 디아코니아를 강조한다. 봉사는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친교로 힘을 모아 나타내는 과정이다.⁴⁴⁾ 미래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용길 교수는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신도 중심의 요구, 둘째 이론보다 실천의 요구, 셋째 믿음을 삶으로 표현의 요구, 넷째 현장적 요구, 다섯째 테크놀로지의 활용의 요구, 여섯째 우주를 향한 활동의 요구, 일곱

1990), 146.

43) Richard C. Cushing, The Servant Church (Boston Daughters of St. Paul, 1966), 6-8. "교회의 사회봉사와 기독교 교육적 이해,"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53-154 재인용.

44) 명용길, 미래신학 미래목회 I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9), 296-304.

째 공동체적 요구라고 하였다.⁴⁵⁾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보는 모임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중심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살면서 본보기로서만 아니라 대안적 사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봉사의 교회론적 근거들 속에서 우리는 협력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함께 모인 무리라는 점에서 공동체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원적 의미 속에는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협력의 의미를 보여준다.⁴⁶⁾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롬 12:5)이라는 관점에서 건강한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과 같이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좋은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을 사역하도록 보내실 때 둘 씩 보내심(막 6:7, 눅 10:1)과 사도 바울이 바나바, 디도, 실라,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라는 동역자들과 그 외에도 많은 부녀들의 동역이 있었던 것처럼(행 15:35-39; 몬 1:24; 고후 8:23; 빌 2:25; 빌 4:3)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동역자(fellow worker)의 사역을 발견한다. 사도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다투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고전 3:5-9)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work together)를 원한다고 했다(요삼 1:8). 교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랑의 이증계명의 실천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협력의 사회봉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45) 맹용길, 미래신학 미래목회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0), 29-41.

46)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자신을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으로 의식하지 않았다. 개인은 전체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고 이 전체는- 그것이 씨족이든, 민족이든- '큰 나', 또는 '공동체적인 인격(cooperate personality)'으로서 늘 행동하는 주체였다. 이는 한 민족을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로 나타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박동현,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127.

제 3 절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봉사는 실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사명으로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이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봉사 신학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의 신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의 신학적 근거를 세 가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창조신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사명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온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인 사랑의 이중계명 신학의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형상

사회봉사 실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지으셨다는 창조의 사건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7-28)고 하셨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적 위임을⁴⁷⁾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특수한 지위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지위는 책임성과 불가분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거울이어야 한다.⁴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서술적인 표현이다. 자질에 있어서 창조주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크게 다른 인간이지만 인간이 가진 온갖

47) 문화적 위임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라는 위턱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만물의 온전한 조화(the total harmony of creation)를 이루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창1:31)상태고 살롬이 편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43.

48) J. Moltmann, 창조안에 계신 하느님(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38.

자질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듯(요 3:16) 우리도 피조물 수준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책임을 지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뜻에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자기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to have)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to be)인 것이다.⁴⁹⁾ 그러므로 인간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책임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사명이다.

에릭슨(Millard J. Eickson)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네 가지를 첫째, 이웃을 동료 인간으로 간주하고, 둘째, 서로 서로 말하고 들으며, 셋째, 서로서로 도움을 주며, 넷째,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⁰⁾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다른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며(골 1:15; 고후 4:4), 인류 가운데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인간’(the God-man)이다(히 4:15).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간 됨을, 즉 이웃을 향한 섬김의 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길이시며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분을 닮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이웃의 짐을 대신하여 지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이웃을 순결하고 의롭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봉사의 실천이며,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웃 사람을 받아들이며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됨의 본래적 모습이다.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딤후 1:5)의 실천

49)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77.

50) Millard J. Eickson, 인죄론,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00.

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온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원칙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다. 결국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선행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며 구원의 전인격적인 표현이다.

2. 삼위일체의 신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삼위일체적이다. 삼위 하나님 간에는 사귀어 있고 협의하여 약속하거나 자원하는 '평화의 의논'(슥 6:13)이 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교제 안에 있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서로 간에 질서 있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델이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 자존하시는 분이시면서 차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권위와 질서를 따라 순복하신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를 주는 아가페를 실천하는 행위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르는 행위이며, 성령의 감동과 교제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서 교회는 협력하여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⁵¹⁾

예수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같이 있으리라"(마 18:20)고 약속하셨다. 두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함께 존재하고 함께 행위 하는 그 사회봉사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영역이며, 그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다. 이웃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과 불가분리적이다. 말씀의 사건과 성만찬은 이러한 언어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한다.⁵²⁾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속한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며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51)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43.

52) 김영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근거, (서울: 기독교연합신문 제545호 1999년 6월6일), 5.

현대 삼위일체론자들은 어거스틴과 갑바도키아 교부들의 전승을 따라서 삼위 위격의 개념을 관계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동일성과 이 안에서 삼위일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의 관계를 상호 교제적 관계로 이해하며 이러한 분리될 수 없는 위격들 간의 상호 교제는 곧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며, 협력하시고, 또한 계시의 역사 속에서도 서로 도우시며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⁵³⁾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존재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연합하며 상호 교통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된다. 한 본질이시며 세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역동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상호 교제적 관계로서 위격의 개념을 의미한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도 자신의 공동체적인 본질을 계시하신다. 즉 자신의 공동체적 삼위일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창 1:26)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교회 공동체(행 2장)와 창조의 섭리 속에서 발견한 사회공동체적 존재(창 1:28; 렘 5:28; 행 4:34-35; 엡 6:5-9; 골 3:22-4:1)로 창조하신 것이다. 토마스 토랜스(Thomas F. Torrance)는 “인간의 모든 공동체적 요소는 이미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⁵⁴⁾

하나님의 삶은 단 하나의 주체, 하나의 지배적 존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고 상대방 속에 살고 있는 세 인격들의 사귄 속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특색이 있다. 그는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새로운 일자(一者)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이웃과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의 영광은 황제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가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고 그의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협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⁵⁵⁾

53) 신문철, “교의신학적 관점,” 기독교 영성운동, (서울: 영성, 1997), 111.

54) T. F. Torrance, “The Goodness and Dignity of Man in the Christian Tradition,” Modern Theology 1988(4:4): 320.

55) 김군진, 기독교 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260.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협력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구약성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창 2:18)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적 인격체, 서로 돕는 인격체, 협력하는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참된 공동체의 모형이며 협력을 통한 섬김의 모델이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협력을 통한 교회의 사회봉사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웃 사랑의 신학- 사랑의 이증계명

예수는 자신의 부름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원리 혹은 그 나라의 윤리로서 사랑의 이증계명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막 12:31). 이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롬 13:9-10). 예수는 이 계명을 실천할 때(마 7:24)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마 5:17).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회복지 신학의 기초이다. 이웃 사랑의 신학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론에 근거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0-11).

하나님은 모든 죄로 인해 떨어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요 3:16; 요일 2:2)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했다.(요일 2:3-5) 따라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안에 사랑을 입은 사람의 표시는 마땅히 그의 행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요일 2:6) 봉사의 실천이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회적인 행동의 규레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공공연한 의무이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게 하셨다(마 10:5-15, 눅 9:1-9). 그러므로 모세는 사랑의 율법에 대한 형체를 주었고(레 19:18; 신 6:5) 예수는 율법의 실질을 보

여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동등한 존재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외모와 빈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공평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질이다. 결국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회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중심의 봉사여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껍과리와 같이 될 뿐이고(고전 13:3)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본중심의 봉사일 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봉사,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 행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봉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세상에 실재화하라는 것이다.⁵⁶⁾

이웃 사랑의 신학은 도움을 주는 선행 조건으로 ‘가치 있다’는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개심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동류이거나, 받을만하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웃 사랑의 신학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료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인성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무한하고 비계산적인 사랑을 말씀한다(눅 10:30-37).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갈 5:6). 믿음이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롬 3:24; 엡 1:6; 2:8).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마 10:8). 사

56) 김세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고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282.

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롬 15:2)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 그는 이방인이며 혼자였다. 그곳의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거처 또한 근처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같은 현장을 가장 먼저 지나갔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라고 했다. 그들의 거처는 사마리아인보다는 가까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더욱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들은 조금만 수고하면 강도 만난 자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에는 인색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다. 비유 속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지역의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지역의 문제에 무관심한 채, 자체 교회의 성장에만 노력한 결과 지역 사회에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교회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귀결(Corollary)이다.⁵⁷⁾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귀결에 이르지 못한 가장 부자연스러운 귀결을 초래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함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6-37)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고 했다.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도 중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57) Ibid., 276.

세상에서 소외된 교회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며 대형화에 몰두하는 지역의 유아독존(有我獨存)식의 고립화되어 가는 모습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협력하여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될 때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 4절 교회사 속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라인하르트 투레(Reinhard Turre)는 교회사의 전통에서 본 사회봉사에 관한 글 가운데 교회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는 주로 교회의 교리들이 발전해 온 역사와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공간 속에서 어떠한 권력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교회사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신앙과 사랑이 결합되고, 남을 위해 봉사를 실천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서술하는 일일 것이다. 한마디로 봉사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교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⁸⁾

투레(Turre)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구원의 섬김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그곳에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흔적들이 넘쳐야 한다. 이러한 흔적들을 다 찾아내서 기록할 수 없다. 간단하게나마 4개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교회의 사회봉사의 역사들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 협력의 아름다운 사회봉사들의 모습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이후, 혹은 그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사상과 인간 형제애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단지 귀족적인 소수에게만 적용이 되었고 노예와 농부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즉 보편화되지 않은 제한된 복지국가관이었다.⁵⁹⁾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의 양면성의

58) Reinhard Turre, "교회사의 전통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91.

균형을 잃지 않았다. 예배(leiturgia)와 봉사(diakonia)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함에 있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연결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의 방법이었다. 안디옥교회가 팔레스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교회에 구제품을 보낸 것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공동 식사인 애찬(love feast)은 성만찬의 일부이기도 했다. 물론 기독교 신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간의 상호 책임감이 교회들 사이의 상호 책임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대에 성도들간에 상부 상조의 봉사는 주로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며,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신앙심을 격려하는 일과 고아를 돌보고 기아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과 갤리선(galley,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함. 특히 노예나 죄수들이 노를 젓는 배), 채석장, 광산 등에 보내져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신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상호부조를 했다.⁶⁰⁾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의 봉사는 상당 부분 상호 협력의 체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봉사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그 대상이 성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시 교부들의 설교 중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선을 베푼다면 이교도와 로마의 세리보다 무엇이 낫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⁶¹⁾ 즉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가르쳤다.

초대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250년경의 데시우스(Decius) 박해 때에 로마 교회들은 1,500명 이상의 과부들과 빈곤한 자들을 구제한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의 은혜와 친절에 의해 먹고 사는 자들’이었다. 그 무렵 안디옥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다고 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줄리안(Julian the Apostate)은 기독교 초기의 고아원을 언급하면서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가난한 자들을 먹였을 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 먹였노라”고 고백하였다.⁶²⁾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그레고리 1세 치하의 교황 권이

59) Robert Bessell, Introduction to Social Work, (London: Batsford Ltd, 1970), 11.

60)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439.

61) Ibid., 439.

62) G. P. Fisher, History of the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14), 18.

발전하기까지의 300년간의 자선적 구제사업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수도원의 숙박소(xenodochium) 설립이다. 원래 이 숙박소의 목적은 멀리 전도여행하는 전도자, 성도들 그리고 여비가 없는 자들을 유숙시키기 위해 교회와 수도원에서 교통로에 세운 것인데, 점차 구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즉 고아, 과부, 노령자, 병약자 및 나그네를 위한 시설로 그 활용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⁶³⁾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개종 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을 즐기고 돌보는데 그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많은 인원과 물질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dex Justinianus)에 보면 벌써 여러 가지 종류의 거처가 나오는데 외부인의 숙소, 고아원, 병원, 양로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⁶⁴⁾ 그러므로 그 동안 교회들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이어오던 봉사의 범위가 국가적 혹은 다양한 기관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2. 중세교회의 사회봉사

중세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 590년부터 시작된다. 즉 6세기말부터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15세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 구제사업이 등장하였는데 첫째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도와주는 순수한 자선사업으로, 주로 하층민, 노예, 병자 등 무산 계급을 위한 성격이다. 둘째로는 남을 구제한 공덕으로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사상이었다. 즉 자선을 행함으로 얻어진다는 죄장소멸(罪障消滅) 사상이었다. 교회가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부유층과 타협을 한 것이었다. 중세에는 고대교회에서처럼 교회가 빈민을 돌보고 병원 등의 기관이 사랑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지는 못했다.⁶⁵⁾ 이 시대에는 개인이나 교회의 자선사업이 모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병원, 수도원, 숙박소, 그리고 결인에게 주는 동냥은 흔하였으나 수도원에서 고아들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영구적인 자활능력이 없는 불구자들에게는 별다른 원조를 주지 못했다. 당시의 자선 사업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협력적인 사업은 못되었다.

중세에는 점차로 평신도들의 봉사활동이 조직되게 되었는데 수도회의 형태로 나

63)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445-446.

64) Reinhard Turre, 93.

65) Ibid., 94.

타났다. 이것은 수도원과 기사단의 요소를 결합한 성격의 단체였다. 수도원에 있던 자선 기관들이나 도시와 농촌에 있던 자선 기관들이 평신도 형제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시민병원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헌금으로 자선 기관을 만들고 경건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시민운동이었다. 단지 이 기관들은 해당 시청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민과 시청과의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찰스 대제 이후 십자군 전쟁을 거쳐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 말까지의 기간에 기독교 자선사업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때 생겨난 공익 전당포는 당시에 기독교회에서 교구내의 주민들을 위한 사회사업으로 시행된 종교적 금융 시설이다. 사실 교회가 고리를 탐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단히 높은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던 차라 영세지역의 주민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의 노예가 되다시피했다.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의 이자가 원금과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얼마씩을 모아서 영세주민들의 파산을 구제하기 위해 공익 전당포를 설립하여 대부를 해 준 것이다⁶⁶⁾.

구빈원이라고 하는 현대의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하는 기관도 있었다. 최초에는 수도원에 부설된 숙박소였으나 집단적 수용보호시설이다. 구빈원은 단지 병자들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었다. 여러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다 돕기 위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성당들이 소재한 모든 도시들에 있었으며, 개인들이나 혹은 주교들이 함께 기증한 특수 구제기관들도 있었다.

사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순수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상호부조적, 교육적, 박애적 섬김의 모습은 빈민과 유랑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중세 말에 와서는 봉사사업이 더 이상 수도원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더 이상 성직자들의 수도회 혼자서 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시민들의 봉사로, 물론 기독교적으로 영향을 받은 형제단, 자매단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중세시대를 돌아보면 봉사활동이 분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물

66) 특히 이탈리아에 많이 설립되었는데 목회자들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 성도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것이 많았다. 이 공익전당포의 원칙은 첫째, 소액을 차용하는 자에게는 이자를 면제해 주고 둘째, 절박한 주민에게는 무담보로 대부하며 셋째, 무가치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대부하지 않는다. 박영호, 453. 참고.

론 수도원과 수도회, 도시별로 조직된 조합들의 협력을 통한 봉사사업을 통해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 개별 지역교회나 교회조직 전체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 사회사업을 규정하는 하나의 법칙을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다.⁶⁷⁾ 오히려 무분별한 구제가 직접적인 결인의 증가와 태만을 조장하였고 심지어 가난이라는 것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시하는 경향마저 생겼다. 그리고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등한시했다. 따라서 중세 시대의 사회봉사는 봉사행위의 주체자의 동기만 강조되었지 그 대상(client)에 대한 영향 혹은 결과를 등한시했다는 것을 알게된다.

3. 종교개혁시대의 사회봉사

종교개혁이후 루터는 구원을 얻는 도구화 되어버린 수도원운동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장한다. 그의 노동관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하며 게으름과 구걸질과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자선은 오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⁸⁾ 그는 집사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에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대신 물질을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결핍된 자들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찾으라고 했다. 루터는 사회문제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교회가 사회봉사기관을 설치하고 국가기관의 도움없이도 봉사의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교회와 국가의 절충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빈민 구제를 위해 모든 예배 시에 연보대를 돌려 헌금을 모아 빈민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해주고 결핍된 자들을 위해 쓰게 하였다. 또한 1523년 아리스닉 구제함 규정은 루터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모든 부동산, 기금에서의 수입과 헌금들을 하나의 함에 모아 가난한 이들의 구제에 쓰게 하고 열 명의 이사들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한 구제안이 1525년 스위스 쾰리히에서 종교 개혁자 쾰빙글리(Ulrich Zwingli)에 의해 실행되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들도 루터가 제안한 것

67) Reinhard Turre, 96.

68) 정진영 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서울: 서울여대출판부, 1983), 132.

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켰다. 빈민, 병자, 고아들을 위한 기금모금과 구호의 분배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맡았으나 구호 행정에서의 지도적 역할은 교회위원들이 담당하였다.⁶⁹⁾ 이것은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금욕주의를 거부하고 겸손과 절제의 덕을 극찬한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재산축적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는 봉사의 직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회의 섬김의 사역 특히 구제 사업을 전도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제네바에서 집사들의 활동에 의해 가난한 자들과 결핍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칼빈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강해에서 “이와같이 주님은 ... 우리가 기금이 허락하는 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명한다” 라고 말했다.⁷⁰⁾

실제로 칼빈파의 제네바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구빈원에는 교회 집사들이 파견되어 환자, 노인,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줌과 동시에 구걸을 금지시켜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했다. 1558년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억제하고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사치와 무절제한 생활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했다.⁷¹⁾ 칼빈에게 있어서 봉사의 역할은 교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역할이었고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의 일체의 봉사를 추구하였다.

4. 경건주의 속에 나타난 사회봉사

경건주의는 기독교사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했던 운동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경건주의는 기독교 선교와 사회복지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 운동이었다. 경건주의의 기원은 17세기의 독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1648년 막을 내린 유럽의 30년간의 종교전쟁은 엄청난 파괴와 결핍을 초래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피폐한 사회상 가운데 무미 건조한 논쟁만 일삼는 정통에 대해 그는 반기를 들고 정신적인 부흥을 부르짖으며 나타난 운동이 바로 필립 야곱 스펜너(Phillip Jacob Spener, 1635-1705)의 경건주의

69) Walter 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개론, 김한수 역 (서울: 범문사, 1985) 16-17.

70) 이양호, “칼빈의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독교사상 1986년 10월호, 37.

71) 이양호, “칼빈파의 제네바와 재세례파의 루터 공동체의 이상,” 기독교사상 1989년 5월호, 115.

운동⁷²⁾이다. 그는 모든 신도들은 보편적으로 사제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평신도들의 생활하는 신앙(산 믿음)은 사랑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개혁 운동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사회봉사의 새로운 형성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 스펜너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에 의해 할레(Halle)대학이 설립되고 할레대학교와 관련된 많은 자선 기관들은 사회봉사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다. 오늘날의 사회봉사의 조직, 시설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할레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적이고 교육적이며 선교적인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했다. 또한 프랑케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수공업자, 상인, 의원, 목사, 군인, 법률가들을 기독교적으로 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라의 복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관중심의 봉사활동의 선구자였다.

이들과 달리 진젠돌프는 봉사 사업을 기관중심으로 조직하지 않고 공동체적 기관으로 조직하였다. 그는 루터의 생각처럼 ‘봉사적으로 행동하는 교회’를 실현해 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 교회별로 여러 가지 국내, 국외 선교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다. 비교적 작은 교회일지라도 선교 봉사사업에 헌신하게 했다. 약 100년쯤 지난 후 블룸하르트 부자(父子)가 나타나 하나님의 현실을 체험해 보고자 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그 아들 블룸하르트는 자연과학이나 사회주의에도 긍정적인 것에 대하여는 열린 자세를 가지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며 현세와 내세를 포괄하는 유기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경건주의가 가진 사회봉사의 지속적인 태도는 내면적 각성이 결코 세상을 도피하

72) 이 경건주의가 많은 교파들과 종교적인 각성에서 계속 폭 넓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들은 네덜란드 경건주의, 청교도주의, 웨슬리 교파의 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포함한 갖가지 경건주의 운동을 포괄하는 말로서 ‘경건주의’란 말을 쓰기도 한다. 또 다른 역사가들은 스펜너와 프랑케와 벵겔과 진젠돌프 백작 등을 축으로 하는 개혁운동에만 제한하여 썼다. 영국과 미국 기독교에 경건주의의 유산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점차 많이 인정하고 있다. Sinclair B. Ferguson, David F. Wright, “pietism,” 아가페 신학사전(IVP New Dictionary of Theology),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49-50.

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건주의 영적 각성은 19세기에 전개되는 많은 사회봉사 활동에 힘과 저력이 되게 했다.⁷³⁾

경건주의 속에 나타난 사회봉사의 특징은 봉사의 능력이 외면적인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 대한 내면적인 반성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경건주의가 교회의 사회봉사의 이론적 기초와 이것을 가르치는 기관을 설립한 것은 그러한 교육의 기관들을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봉사의 전문인들을 궁극적으로 교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협력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협력을 통한 기독교 사회봉사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세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5. 현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사회봉사

19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사회봉사시설들과 사업들이 유럽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스코트랜드 글래스고우(Glassgow) 교구의 장로교 목사였던 찰머스(Thomas Chalmers)는 도시를 2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50개의 가족이 포함되게 하고 한 명의 집사를 임명하여 집사로 하여금 담당 구역내의 모든 가정들의 형편을 파악하게 하였다. 집사들은 각 가정으로 하여금 먼저 자조(self-help)를 실현하도록 돕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그래도 안되면 이웃이,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돕도록 순서를 정하였다. 이 운동은 런던의 “자선조직화운동(Charity Organization Society)”에 불을 붙였고 1869년에 창설된 자선조직협회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여 자립심을 길러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회를 섬긴 토마스 찰머스 목사의 이론을 따라서 구제행위를 했다. 이 조직은 리차드 그린, 에드워드 에니슨, 옥타비아힐, 사무엘 바네트, 찰스 스투어트 로치경 등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빈법 위원회, 자선단체,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개개인들에게 구호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의처를 설치하였으며, 런던 시를 몇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 단위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시민들이 구호분배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부유한 자원봉사자들의

73) Reinhard Turre, 101.

섬김의 활동은 많은 신뢰를 받았는데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빈민가족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돈, 옷, 식량 등으로 빈민가족을 도와주었지만 주로 역점을 둔 부분은 빈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인 영향이었다. 이 자선조직화 운동에 참여했던 “친절방문단원”(Friendly Visitors)들은 현대적 사회사업가의 효시가 된 것이다. 그 후 자선조직협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많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창설된 지 9년 후에 이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빈민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는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런던에서 자선조직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런던 이스트엔드(East End) 지역의 목회자였던 사무엘 바네트(Samuel Barnett)목사는 어떤 빈곤지역에서는 개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새로운 시도를 전개하였다. 빈곤지역 한가운데 건물을 사서 부유하고 지식 있는 시민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보기로서 살게 하며 선생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되게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토인비 홀로서 최초의 “인보관”(Settlement House)이었다.

사무엘 바네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 런던의 가장 가난한 교구의 하나인 화이트채플(Whitechapel)에 있는 성 유다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는데, 이 교구의 8,000명의 교구민들 중 대다수가 실직상태에 있거나 질병에 걸려 뻔뻔하게 들어선 혼잡한 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로 가서 그들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 대학생들과 토론을 하여 대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화이트채플에서 일하도록 권유하였다.

바네트 목사의 권유를 받은 많은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열성적으로 빈민들을 섬겼으며, 그 중에는 가난한 교구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많은 동료들 가운데 탁월했던 옥스퍼드 출신의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있었는데, 그가 30세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아 1833년에 사망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Toynbee Hall)이었다. 인보관의 기본 목적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빈민들을 섬김으로서 상호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 후 이와 같은 영국의 인보관 사업은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시카고의 힐 하우스(Hill House)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1820년대에 찰스 피니의 지도하에 새로운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이 발생했으며, 1840년대에 이르러 이 부흥운동은 그에 따른 복음주의적 사회봉사를 부활시켰다. 사무엘 엘리본은 185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만도 150개의 교회로부터 온 5천 명의 자원자들이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일했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복음주의 단체들은 동부의 도시들에 있는 선원들을 위한 수상 예배당을 후원해 주었으며, 식량과 의복을 나누어주고, 직업을 알선해 주며,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며, 빈민자들을 위한 의료혜택 및 다른 구호 활동들을 전개하는 각 종파간의 단체들을 후원해 주었다.⁷⁴⁾ 이러한 형태의 사회봉사들은 개인 중심의 개교회적인 봉사라기보다는 조직적이며 좀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봉사는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인하르트 투레는 20세기 초반 독일의 사회봉사 형태를 4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교회의 직책으로써 직업적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 둘째, 자발적인 단체나 팀, 동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봉사활동, 셋째, 여러 교회나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사업체가 수행하는 봉사활동, 넷째, 국가와 경제분야에 정치 사회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행되는 정치적 봉사활동 등이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부가 정부의 부처로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2차 대전 후 독일의 전후 복구사업과 구호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봉사국의 모태가 되었다.⁷⁵⁾

현대에 있어서 사회봉사는 이처럼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의 사회봉사가 이처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5 절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 나타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를 통해서나 종교를 통해서든 지 그들의 목표와 정치 이념을 복지국가 건설에 두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적 사상과 국가의 이념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복지국가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맥카로프(MaCarov)는 복지를 다섯 가지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⁷⁶⁾ 첫째는 상호 부조의 정신인데 이것

74) 기독교 대백과사전, V.8 p.675.

75) Reinhard Turre, 108-109.

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사회복지의 기초로 보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복지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둘째, 종교적 계명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이익의 추구의 문제로 종교와 정부가 분리됨으로 필연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 요인으로 이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이념적인 요인으로 이것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 의식, 인도주의, 평등의 실현 등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회복지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라는 개념 하에서 종교와 정부는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 즉 갈등 관계이든 협력관계이든 두 사람 이상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며 발달하도록 만드셨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근본적인 의미를 조명해 보면 국가의 이상은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되어 허물없이 지내는 교회복지의 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는 그 목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교회와 국가의 상호 관계

성서적 배경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아내를 삼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기쁜 대로 인간의 탐욕을 따라 행동했다는 데에 있다. 즉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물의 심판을 받게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

76) David MaCarov,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Holt Co.: Rinehart and Winston Ltd., 1978), 15-50, 김장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1998), 20. 재인용.

손 모두라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에서 국가 정치가 부패하여 사람의 딸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여 인본주의가 되어 탐욕이 앞섰을 때 하나님은 교회공동체와 국가를 한번에 심판하셨다. 결국 교회와 국가정치가 부패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공동체 위에 같이 임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 마 22:21)고 하셨다. 즉 시민은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세금을 바쳐야 하며, 또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질과 마음 전체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고 시민은 그 권세에 복종하여 국가를 위해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요 19:10)고 했을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요 19:11)고 하셨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와 국가는 순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와 국가에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곧 인류복지의 실천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성 안에서 교회와 국가는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인류의 복지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것이다.⁷⁷⁾ 한편 교회와 국가는 인류복지의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분리된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사랑의 복지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국가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제재와 권선징악, 사회정의 및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결사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참된 복지를 실현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며 믿고 따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반면에, 국가는 인간공동체 전체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실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권선징악도 교회의 사랑의 실천도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77) 김장대, 44.

있다.

2.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초대교회시대는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가 협력의 관계로서 존재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세기 동안 복지의 책임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은 교회였다. 교회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과 분리되지 않았다. 황제의 권력과 교회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협력했으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의 상호 연결은 중세기 후기의 지방자치 수준에서 특별히 두드러졌다.⁷⁸⁾ 도시가 정치적 자치 단체로 발전한 13세기에 조직된 시민들은 교회의 영역에 있던 복지분야로 자신의 법적 권력을 넓혀 갔다. 이 시기에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재정적 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단체였던 반면에, 그 책임은 상당히 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 형태의 도움들은 강제적이었고 법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교회의 과제는 차츰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세속 권력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종교개혁기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는 자신의 중심 개념을 가지고 중세기 교회의 빈민 구제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표현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세속 정부로의 복지실천의 이동은 교회를 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면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시민사회와 교회사회를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국가와 교회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단일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율리히 쾰빙글리는 복음을 위한 결단은 공익을 위한 결단으로 보았다. 그는 종국적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요, 그 권위의 행사는 성경을 따라 행하는 정당하게 조직된 정부를 통한다고 하였다.

존 칼빈은 행동적이며 기능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인간화하는 세력이었다. 죄로 인해 국가는 '현재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 수단'이었다. 그는 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뿐만 아니라 평화 복지의 촉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 국가가 정의와 경건의 의무를 시행한다면 세상의 개선이 이루어질

78)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131.

것이라고 했다.⁷⁹⁾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력한 신학적 긍정을 부여했고 개신교 도시들에서는 실제적인 경영의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3. 교회와 국가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

교회와 국가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형태적 현상으로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 발전해 왔다. 이들의 형태 체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욕구와 정서, 기타 심리적 혹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간생활의 실존적, 사실적 가치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의 형태들을 체계화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 체계적 가치이다. 전자를 심리적, 종교적 가치의 형태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회적 당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⁸⁰⁾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형태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변하여 왔는데 고대 사회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듯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제정일치의 형태였고, 중세 사회는 교황과 황제의 치열한 권력 다툼에 의한 제정 분리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는 새롭게 변천된 국가와 교회의 일치운동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그 특별한 예로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 남미의 해방신학 운동이 국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과 W.C.C.(세계교회협의회)의 교파를 초월한 세계교회주의로 참여를 통한 세계 평화 무드가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국가들이 특별한 종교국가의 경우는 제외하고 종교 활동에 대해 면세혜택을 줌으로써 그러한 종교활동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정치전략을 가지기도 한다. 나아가 세계 이념 분쟁의 종식은 공산주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잘못된 정치현상을 과감히 수정, 개혁해 나감으로써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도 그들의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응책으로 민주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모순인 부익부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있

79) Ibid., 132.

80) Ibid., 24.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외부적으로 국가 정책에 충분한 조언과 권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구조의 개선에 참여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회구조적 봉사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에 대한 구호적, 자선적 봉사와, 사회 개혁을 통한 구조적 봉사가 서로 대안적인 것으로 분리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 개인을 사랑하는 봉사가 사회정의 실현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사회변혁의 행위가 개인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칼 바르트는 인간이 내세운 어떠한 정부나 통치자에 의한 질서는 그 성격상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도 역시 국가의 존재를 인정은 하고 있다. 단지 국가가 시도하는 정치가 국가의 이상과 다르게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황 요한23세(John XXIII)가 교회 속의 사회, 사회 속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원칙을 제정해주고, 국가 정치는 그 원칙에 의해 실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⁸¹⁾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인류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그 본질상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 전인적 구원 실행의 두 축이라고 할 것이다.

81) Ibid., 21-22.

제 3 장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의 시대적 요청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에서 공업화,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 노동문제나 지역문제의 격화 등 각종 생활문제들이 현저하게 눈에 띄었다. 많은 도시문제의 표면화는 초대교회 내지 중세 이후 전통적이고 개인적, 상호부조, 수도원 사회사업 등과는 다른 커뮤니티를 축으로 한 기독교 사회복지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고 도시화, 관료화, 산업화가 특징인 현대사회는 욕구의 다양화, 복잡화 현상으로 사회복지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로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첫째,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둘째, 국방 및 경제성장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사회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IMF 극복과정에서의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증산층의 붕괴로 인한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은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 복지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는 "세계화"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빈국과 부국간의 빈부격차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간의 빈부격차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결국 빈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관이나 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B2)}

하지만 사회문제의 규모가 다양하고 복잡한 오늘날, 개교회가 재정지원과 봉사를 다하는 사회복지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사실 한국 개신교회의 절대 다수는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 동안 양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와는 달리 카톨릭 교회는 교회 사회사업과 카톨릭 사회사업과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카톨릭 교회가 모든 복지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 교회보다 사회일반으로부터 더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교회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⁸³⁾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성장에 대한 필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성장이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때에 내면적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관계적 성장을 포함하는 통전적 성장(wholistic growth)은 불가능해 진다. 여기서 관계적 성장이란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 이웃교회와의 관계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 교회의 내면적, 영적 성장을 측정하게 하는 바로미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⁸⁴⁾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협력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며, 교회의 본질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한계 속에 소외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적 사업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가 시대적 요청임을 알기 위해 먼저 협력의 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해 나타난 사회복지의 민영화에 대하여 논하면서,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하여 시대적 요청으로서 협력의 필요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82) 박경숙, "교회와 사회복지,"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0-52.

83) 이원규 교수가 제시한 "한국 종교인 수와 그 변화"라는 제목의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8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와 「1991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 「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85년에서 95년 사이의 개신교 증가율은 35%, 천주교 증가율은 58.2%로 나타났다. 이원규,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회 출판사, 1994), 232-249.

84) 김미숙 외,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157.

제 1 절 지역사회에 대한 고찰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세워지고 존재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 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의 지역사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라 얼 존스(Ezra Earl Jones)는 “교회 없는 지역사회는 영혼 없는 몸이요, 나침반 없는 탐험가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⁸⁵⁾라고 했다. 교회와 지역사회는 이렇게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알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과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의 정의

지역사회라는 용어처럼 많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많지 않다. 1955년 조지 힐러리(Geroge Hillery)라는 사회학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이 사회학 문헌들을 참고로 했을 때 94개정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⁸⁶⁾ 이러한 사실은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는 본질이 복잡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다. 로리 넬슨(Lowry Nelson)은 지리적 영역을 배경으로 정의하였는데, “공동체란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하여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제 활동을 부담 수행하는 인간 집단이다”라고 했다. 록웰 스미스(Hockwell Smith)에 의하면 “지역사회란 어떤 특정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같은 경제적, 사회적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살며, 이들은 같은 감정적인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지 힐러리(George Hillery)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지리적 영역(territorial area) 밑에서 공동의 유

85) Ezra Earl Jones, 교회개혁의 이론과 실제, 고민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7.

86) 강철희, 지역사회복지-거시적접근, 온라인:

<http://211.58.255.154/pdsboard/board.asp?tb=bokgi&code=bokgi4>

대(common ties)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하는 인간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성, 공통된 결속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⁸⁷⁾ 이러한 정의들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리적인 공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해가 보다 보편적일 수 있으나 지역사회를 이러한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이해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지리적인 공간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러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개입활동이 전개되어져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 개입의 대상으로서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공간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를 포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개입의 대상으로서 지역사회가 갖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는 영토적 구성, 지리적 구성과 다른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영토적 구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앤더슨(Anderson)과 카터(Carter)는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포괄적으로 보아 비영토적 지역사회(non-place community)라고 정리한다.⁸⁸⁾ 많은 학자들은 참으로 많은 종류의 비영토적 지역사회를 언급하는데 이 비영토적 지역사회 중에서 인종적 배경, 성에 대한 지향, 직업, 장애, 질병, 종교, 사회 계층 등과 같이 어떤 특징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지역사회(identification and interest community)는 사회복지의 개입 활동과 관련해서 볼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영토적인 의미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비영토적 지역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비영토적 지역사회에 대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분야에서는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하기도 한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어떤 신분적 특징 및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의 문제, 장애의 문제, 일정한 특징을 갖는 인구 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 등과 같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⁸⁹⁾ 즉 이러한 기능적 지역사회는 영토

87)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96.

88) 강철희, 4.

적 지역사회 내에서도 형성되어질 수 있고, 동시에 영토적 지역사회를 초월하여서도 형성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생산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되면 우리의 욕망충족 수단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서 일상생활의 지역적 활동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지역성을 기초로 한 공동사회라는 뜻의 지역사회(Community)는 점점 본래의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도 한다.⁸⁹⁾

결국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과거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측면에서 그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영토성, 지리성의 의미에 기초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개념을 이해해 왔으나, 현재에는 비영토적 지역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의미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역의 개념을 보다 넓혀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현대 정보화사회는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망이 마을 광장의 모임을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점 물리적 접촉이나 언어적 접촉이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한 지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이익추구형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의 연결은 상호부조와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다.⁹¹⁾ 더욱이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 사회에서 상부상조의 기능은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일차적인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정부, 민간사회복지 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⁹²⁾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이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의 협력의 대상으로서 지역사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단순히 교회와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현대 정보화 사회 속에서 비록 지역적으로 거리는 멀지만 다양한 정보의 매개체를

89) Ibid.

90) Ibid.

91)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이필환 외 15인 역, 사회복지실천이론의 토대, (서울 : 나눔의 집, 2000), 276.

92)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3.

통하여 언제든지 접촉 가능한 같은 교단, 그리고 정부도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지역사회 속의 교회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각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한다. 지역사회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지역사회는 삶의 장으로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지역사회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다. 즉 전통적으로 지리적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참여의 기능,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과의 연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사회 시스템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상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상정해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지 실제로 현대사회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 현대사회의 지역사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과거에 가졌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갈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에 요구되어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많은 지역사회는 역할의 상실, 자율성의 상실,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결과 지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야기하고, 비행을 창출하고, 실직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가정 붕괴의 문제를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즉, 현대인에 있어 지역사회는 자원과 기회 및 학습으로서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경우 기회와 자원의 분배를 제한하고, 구성원들의 문제를 악화되게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복

지실천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Missio Dei)이 있다. 교회는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지역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한 부분인 것이다. 교회의 실존의 근거는 지역사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다른 사회 기관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사회악의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갈란드(Garland)에 의하면 교회는 지역사회의 환경 가운데서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⁹³⁾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고립과 격리를 벗어나 상호지지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둘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결함과 연속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셋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신입자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화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넷째, 교회는 재정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신체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교회는 결혼, 장례, 출생, 성년 등,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념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섯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한편 비복지적인 제도와 관습에 도전하여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⁹⁴⁾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는 교회가 하나의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이제는 교회는 방

93) Garland, Diana S. Richmond, Church Agencies: Caring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Crisis.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Inc., 1994), 145-149.

94) 유의웅, 한국 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241-243.

주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문제들 속에 들어가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역사회의 소속원인 주민들이나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으로 변화시키는 전위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시대적 소명이며, 지역사회를 위해 부르신 지역 속의 교회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제 2 절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재정이 압박을 받게되자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복지국가의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복지의존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증대,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생산적 복지지출 등의 비판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신보수주의 물결이 선진복지국가의 정치권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감소되고 대신 민간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역할분담론을 주장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는 “세계화”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혁명과 생산기술의 혁명이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은 불안정한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신기술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에 소득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빈국과 부국간의 빈부격차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간의 빈부격차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완화되고 있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축소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빈민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공공부조제도도 더 이상 빈민들이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이 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는 ‘일하는 복지’(work-fare)를 강조하여 빈

민들은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은 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일을 하여도 저임금으로 여전히 빈곤한 노동자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새로운 빈민의 발견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빈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혼자서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시 타 민간기관을 비롯한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와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복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서구에서 전개된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르러서 증폭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자, 비영리기관, 종교기관 등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도 한국 보건복지부 백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일선 행정기관,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자원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⁹⁵⁾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복지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서구에서의 민간의 복지참여 배경인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영화에 대해서 살펴본 뒤 우리 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

로버트 바커(Robert Barker)는 “사회복지란 사람들이 사회의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자기들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건강적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이익, 서비스의 국가적 체계이며, 지역사회나 사회의 집합적 복리의 상태이다.”라고 했다.⁹⁶⁾ 일반적으로 ‘복지’(well-being)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정신, 인도주의, 또는 생존권과 관계되어 살기 좋은 사회, 풍요한 사회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욕구가가 충족된 상태라고 하였

95) 보건복지부, 2000년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2000), 40.

96) Robert L. Barker,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 NASW Press, 1995), 406.

다.⁹⁷⁾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학자들은 개인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윌렌스키(Wilensky)는 복지국가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최저한의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헉셔(Heckscher)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을 집합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아울러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라고 한다. 위의 정의를 보다 정교화하여 미슈라(Mishra)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제도화하는 국가라고 정의 내렸다. 위의 논지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국가란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화된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⁹⁸⁾ 이와 같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서구에서 19세기말에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 확산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하였는데 반해, 1975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오히려 지출비용 증가율이 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부른다.⁹⁹⁾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한 실업률도 낮아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호황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

97)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 한울, 1997), 1.

98) Heckscher, G., The Welfare State and Beyond: Success and Problems in Scandina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Mishra, Ramesh,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Policies of Retrenchment and Maintena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 Y.: Harvester Wheatsheaf, 1990); Wilensky, H. L.,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김미숙 외, 37, 재인용

99) Ibid., 37.

재정이 압박을 받게되자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복지국가의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복지의존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증대, 저축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생산적 복지지출 등의 비판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신보수주의 물결이 선진 복지국가의 정치권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감소되고 대신 민간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복지국가 위기와 경제상황의 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가 확대되면 산업생산 부문이 위축되고 노동공급은 감소되며, 저축과 투자도 감소하여 경제상황을 악화시킨다. 경제가 악화되면 복지에 사용해야 할 수입이 줄어들어 복지지출이 감소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¹⁰⁰⁾

2. 민영화의 출현

사회복지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서구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보수주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개념이다. Gilbert는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란 사회복지의 자원, 생산, 전달과정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Starr는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영화는 국가의 규제와 소비에서의 활동의 축소를 말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⁰¹⁾ 즉,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행정기구나, 국영기업과 독립 공공 권력체 같은 국가가 소유한 조직을 말한다. 민간부문 혹은 사적부문이란 기업체 뿐 아니라 비공식적 가족 내 활동, 자발적 결사체, 자조기구, 사적 비영리기구이다.¹⁰²⁾ 복지의 공급주체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길버트(Gilbert), 스페트(Specht)와 터렐(Terrell)은 복지의 공급주체를 친족(가족), 종교제도, 경제제도(기업, 노조), 상호부조제도, 정치제도(정

100) 김태성, 성경룡,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120.

101) Gilbert, Neil, and Gilbert, Barbara, The Enabling State: Modern Welfare Capitalism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Starr Paul,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4-48. 김미숙 외, 39, 재인용.

102) Ibid., 40-41.

부)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데 반해, 존슨(Johnson)은 비공식부문(가족, 이웃), 자원부문(자조집단, 민간단체), 상업부문(기업), 국가부문(정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재분류하면 복지공동체는 크게 국가부문인 공공부문과, 가족, 이웃, 친구를 포함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란 복지공급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및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복지공급주체가 복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데,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비중이 많은 반면, 북미의 경우는 민간영리부문의 비중이 크다.¹⁰³⁾

사회복지의 발달을 볼 때 사회보장체계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부문간에 경쟁적 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¹⁰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복지의 자원, 생산과 전달을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게 되자 이를 효율성 있는 민간의 역할로 전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영화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의식이다. 서구에서는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민간복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다.¹⁰⁵⁾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고,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3. 민영화의 분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복지의 민영화란 소유권, 자원, 규제, 관리, 공급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유권, 자원, 책임성의 이동 정도에 따라서 민영화의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Starr는 민영화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개인적, 가정적, 비공식적

103) 정경배,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 1998, 겨울호, 7-25.

104) 이혁구, "복지공급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76-91.

105) 정무성,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협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1998, 봄호, 4-13.

부문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활, 상호부조, 개인의 선호 등을 가치로 삼는다. 둘째는 자활적 비영리 혹은 독립부문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비공식 부문의 가치를 갖고서 전문적인 지도력과 운영의 장점을 살려서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규모 기업 부문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향후 기대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은 대규모 기업 부문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윤과 전문적인 운영 및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여 사회복지를 운영한다.¹⁰⁶⁾

벤딕(Bendick)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소유권과 서비스 전달 책임소재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형은 재정과 서비스 전달 역할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역할과중을 덜려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 사용자 요금부담,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 축소 등이 있다. 둘째 유형은 정부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바우처, 계약(contracting out), 보조금 지급(grant and subsidies)¹⁰⁷⁾,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들 수 있다.¹⁰⁸⁾ 한편, 글레너스터(Glennester)는 사회복지의 급여와 재원을 담당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표 1>에 나오는 것처럼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¹⁰⁹⁾

106) Starr, Paul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4-48.

107) 1)交換權(Voucher): 바우처는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도록 하는 수입이전이다. 수혜자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바우처의 예로 식권, 주택의 임대료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 의료보호도 일종의 바우처이다. ; 2)서비스 購買(Contracting Out):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법은 민간부문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민간기구간의 경쟁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민간기구는 관료주의나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한 고용, 실직, 보상, 동기화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융통성이 많다. ; 3)補助金(Grants and Subsidies): 이는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민간기업에 종업원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금 감면, 지불연기(moratorium), 신용부여,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등이 이에 속한다. 김미숙 외, 46. 참조.

108) Bendick, Marc Jr. "Privatizing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 Idea to Be Taken Seriously"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97~120. 김미숙 외, 42. 재인용.

<표 1> 민영화의 분류

		공공		민간	
재원	공공	공공급여 완전공공재원	공공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공공재원
	민간	공공급여 완전민간재원	공공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	민간급여 완전민간재원

사회복지의 급여가 공공이고 재원도 공공이면 공공급여-완전공공재원의 형태를 띠고, 급여가 공공이고 재원은 민간이면 공공급여-완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한편, 급여는 공공인데 재원이 공공과 민간의 합작이면 공공급여-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반대로, 사회복지의 급여가 민간이고 재원은 공공이면 민간급여-완전공공재원의 형태를 띠고, 급여가 민간이고 재원도 민간이면 민간급여-완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급여는 민간인데 재원이 민간과 공공 합작이면 민간급여-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에 있어서 순수한 공공이나 민간은 드물고, '운영은 민간, 재원은 정부'의 형태를 띤 것이 대부분이다 즉, 민영화에 있어서 정부의 운영활동은 축소하고, 재정이 나 정부활동 자체는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간이 복지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도 재정의 책임은 국가가 맡으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이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¹⁰⁾

4.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 역할의 필요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자본주의 체제에 사회주의적인 공공정책을 도입한 혼합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특질을 병행한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재정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의 기초를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재정위기가 생김과 동시에 복

109) Glennerster, H., Paying For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5. 김태성, 성경률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270. 재인용.

110)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1998), 46-81.

지국가의 위기가 외쳐지고,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하던 영국은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의거하여 자립·자조, 정부역할의 축소, 민간활력의 촉진이라는 신보수주의에 의한 재편을 추구하며, 시장원리에 철저한 주택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 등의 민영화를 꾀하여 소위 '작은 정부'에로의 전환을 진행시켰다. 스웨덴도 재정적자, 국제수지의 적자, 그리고 복지수준의 정체를 볼 수 있다. 고도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이것과 함께 공공재정의 세수를 증대하여 사회보장 관련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이것에 의해 더욱 생활의 안정과 소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일본도 오일 쇼크라는 외적 영향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종식시켜 이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선진국에서 들어오던 원조는 급속하게 감소되었고, 그 결과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60년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벗어나 70년대에 이르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전태일의 분신이나 성남의 소요사건은 하층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저항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억압적인 국가 권력은 이러한 욕구의 분출을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벌의 지지와 증산층의 묵인 아래 유신체제라는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집권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 제5공화국의 경우 복지사회를 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 6공화국 시절 일련의 복지 관련 법안 및 제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최저임금법(1986), 모자복지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1990) 등을 들 수 있다. 제5공화국 이후 정부는 복지사회를 모토로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민간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하면 그 운영권을 가지면서 국가로부터 운영비용을 보조받는 형태의 복지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과 시대적 요청은 정부로 하여금 사회 분야에 있어서 집행자 또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민간 비영리 기관에 이양하고 정책

수립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스스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¹¹¹⁾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민간단체들과 사회복지 시설들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는 복지 서비스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 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문민정부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균형적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균형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토록 했다.¹¹²⁾ 문민정부는 “복지에의 시장원리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 기업, 종교단체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복지다원론을 도입”하였다.¹¹³⁾ 정부는 사회복지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증시하고, 수혜자가 기여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으로 복지책임을 이전하는 등 서구의 보수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¹¹⁴⁾ 즉, 문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¹¹⁵⁾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빈민, 노인, 장애인,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

111) 유장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연구보고서 1997-1, 11.

112) 이 밖에 중앙정부의 복지기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113) 조흥식,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1998, 여름호, 7-19.

114) 오정수, “우리 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40-52.

115) 이선우, 46-81.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세분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증가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민간기관을 복지실현의 장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5.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민영화의 문제점

시대적 요청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민영화는 필수적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등을 극복하여 보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복지를 전달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사회복지 자원마련 및 전달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재원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비영리기관들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애의 특수주의로 욕구와 자원이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분열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은 떨어지고 복지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약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조달, 규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기도 하다.¹¹⁶⁾

비영리조직도 순수한 공공재(公共財) 또는 집합이익(集合利益)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품질과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간접소득(間接所得)을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비영리조직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느슨해지고 태만해지고 원래의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 예를 들면 조직의 유지 등을 더 중시하게 된다.¹¹⁷⁾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보면 민간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국가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이 미비하고

116) 김미숙 외, 47.

117) Brodtkin, Evelyn Z. and Dennis Young "Making Sense of Privatization: How Can We Learn from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21-156.

민간은 자율성, 전문성, 체계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오정수는 우리 나라의 민간사회복지가 해방과 625,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성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민간복지는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첫째, 조직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중복하여 공급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둘째, 전문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민간복지에 있어서 전문성의 미비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게 편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¹⁸⁾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봉사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개교회적인 성향이 강했고, 임기응변적이고, 비계획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종합하면, 비영리기관으로서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전달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간에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때 효과적인 사회복지가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 절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시대적 요청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비스간 유기적인 연계(협력)가 부족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반면에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단편화되고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의 경험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있어 각 조직의 복잡한 규정과 규칙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

118) op.cit.

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서비스간의 연계(협력)라는 용어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간의 연계(협력)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협력 관계는 3단계 발전과정을 거치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두 서비스간 협력은 특정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둘째 단계에서의 서비스간의 협력은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의 직원들간에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셋째 단계에서의 서비스간의 협력은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하나의 지역 팀을 만들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¹¹⁹⁾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간 연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실제 그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간 연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협력은 시대적 요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함께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영화의 출현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의 중요 기관으로서 교회는 개교회별로 지역사회봉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개교회별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박종삼은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를 좀더 기술적이고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회봉사를 교회가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교라는 차원에서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와 연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⁰⁾ 정부나 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민간기관들의 많은 협력을 이미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종교기관의 협력은 가장 절실하다.¹²¹⁾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현재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형태를 정리해 보

119) 이현주 외, 지역단위 사회복지 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6.

120) 박종삼, "21세기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방향," 제 3회 신촌성결교회 신촌포럼 자료집, (1998), 8.

121) 정건작, "사회복지 정책과 봉사활동의 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고, 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시대적 요청으로서 협력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형태

유장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¹²²⁾

첫째, 교회가 시작될 때 사회봉사적 동기로 출발되어 사회봉사를 교회의 일차적 중심사역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다일교회의 다일공동체나 활빈교회의 두레공동체, 화천의 시골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생겨난 맹인 교회나 청각장애인 교회 같은 장애인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교회가 성장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어느 정도 시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이 형성됨에 따라 교회에 부속된 시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봉사관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여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교회들로서 덕수교회, 도림교회, 영락교회, 아현교회, 사랑의 교회 등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교회의 여러 부서들 중에 구제부 또는 봉사부를 설치하고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보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교회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회봉사에 임하고 있다.

넷째, 영세적인 교회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집, 공부방, 놀이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전도적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한편 약간의 재정적 수익도 올리하고자하는 활동들도 있다.

다섯째, 교회 성도 중에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교회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개별적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기독교 사회복지의 한 구성원임에는 틀림없다.

여섯째, 교단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형태로서 장로교단의 경우연구

200.

12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1997).

조사와 정책수립, 자료제작, 교육실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옹호활동,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관련기관 운영 등의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다.

일곱째, 교회 연합적인 차원에서 큰 교단들이나 한 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동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독교 TV나 연세대학교 같은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평택시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병원을 설립한 사례들과 같은 형태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매우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본다.

여덟째, 경실련이나 기운실 등과 같이 기독교계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 발족한 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현안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의견과 시민의 입장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옹호 활동들을 하고 있다.

아홉째, NCC와 WCC와 같은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초교파적인 연합조직들이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과 국제적 기아 사태 등에 대하여 정의구현을 위한 옹호 활동의 형태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활동들이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규모와 자원에 비교할 때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봉사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지교회의 성장을 위한 봉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시대적 요청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교인성장의 정체 현상은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이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 내부의 개혁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모범적인 모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회봉사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도 재정, 공간, 프로그램, 인력 등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신도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성직자와 교회 수는 늘어나게 되어 수많은 소규모의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들은 자체 유지에 급급할 뿐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거대한 건물을 세운 교회들의 경우 건축비와 관리비의 압박을 많이 받게되어, 그 규모에 걸맞은 사회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다양한 복지요구와 더구나 IMF 이후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의 심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복지재원의 조달인데 사실 정부의 복지에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해도 5.28%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1/6-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리스(8,883달러) 17.24%, 포르투갈(8,315달러) 16.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허술해서 사회전체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세계 은행에서도 한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사회복지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 선진화를 위해 일선 행정기관,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 자원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¹²³⁾ 결국 국 정부의 자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123) 정무성,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자원 동원전략," 지역사회복지운동 8집,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0), 3.

그 동안 한국 교회는 그 규모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적인 시설투자와 선교 우선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원은 고갈되어 있는 반면 인적자원은 나름대로 풍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민간기관으로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회의 자원(시설 및 인적자원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실천되는 절약형, 노력봉사형, 그리고 관계중심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 제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 사회봉사 활동들은 상당 부분 협력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봉사 실천을 꺼려하고 겁내는 이유는 전통적 구제와 자선방식의 물량지출형, 시설투자·운영형의 사회복지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 사회봉사는 실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실천이 행해지기 위해서 믿음에 있어서 순결해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마 10:16).

이를 위해 먼저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나타난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한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19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라 함)에서 전국 7개 교단 1531개 교회를 조사한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를 중심으로 하고, 1991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부설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소(이하 문화연이라 함)에서 동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주최한 초교파적인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344명을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와 199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이하 장로회라 함)에서 동 교단 산하 5000여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회 사회봉사실태', 그리고 1997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복협이라 함)에서 대전광역시의 자원봉사 수요처 33개 기관과 기독교 목회자 50명, 그리고 평신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을 참고하여 교회 사회봉사 활동에 있어서 협력의 시대적 요청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

기독교에서 봉사는 기본 사명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개인, 가족, 민간단체, 국가가 기여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소외되는 대상을 향해서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회봉사 혹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구제와 사회봉사를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5.9%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14.1%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2> 교회의 사회봉사 사명에 대한 의식(보사연)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계
동의	81.8	92.6	83.3	83.8	77.4	81.6	-	85.9
동의안함	18.2	7.4	16.7	16.2	22.6	18.4	100.0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	(122)	(18)	(68)	(31)	(49)	(17)	(404)

이러한 결과는 교파를 초월해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연(동의: 89.2%)이나, 장로회(동의: 89.3%)의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예장통합측이 다른 교파보다 사회봉사 사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구세군은 목회자 전부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보사연의 자료에 의하면 구세군 목회자는 교회의 기본 사명이 사회봉사가 아니라 선교라고 보고있다고 했다. 그들은 선교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으로 나누는데, 사회봉사는 사회구원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구세군에서는 사회봉사를 교회의 기본 사명으로 보지는 않고 선교를 교회의 기본 사명으로 보면서, 선교라는 개념 속에 사회봉사가 일부 포함된다. 따라서 구세군은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세군 목회자 전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교단의 목회자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교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 사명으로 보고 있었으나, 구세군 목회자들은 구제나 사회봉사보다는 전도와 복음전파 등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율

우리나라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를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활발하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하였고, 57.2%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3 참조). 즉,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비율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율에 있어서 교단간에 비슷한 추세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표 3> 우리 나라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견해(보사연)

(단위: %, 명)

	세장 (합동)	세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계
미우 저조	13.1	4.1	22.2	10.3	6.5	10.0	29.4	10.1
저조한 편	44.5	46.3	72.2	41.2	48.3	52.0	47.1	47.1
그저그렇다	28.3	32.5	5.6	29.4	25.8	22.0	23.5	27.6
활발한 편	14.1	16.3	-	19.1	19.4	16.0	-	15.0
미우 활발	-	0.8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	(123)	(18)	(68)	(31)	(50)	(17)	(406)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소속한 교회의 사회복지참여 활발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0%의 목회자들이 소속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한국 교회보다는 조사에 응한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수에 해당하는 55.3%의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참여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1991년에 문화연의 조사에서 '활발한 편이다'가 30.8%로 나타난 것과 1997년 대전 지역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사복협의 조사에서도 39.6%가 적극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음을 비교하여 보면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의 활발성에 있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의 본질로서 사회봉사에 대한 목회자의 의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의 사회봉사 활발성이 떨어지고 있음은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교회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단간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구세군과 감리교가 다른 교단에 비해 소속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 참여가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장과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속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견해(보사연)

(단위: %, 명)

	세장 (합동)	세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계
미우 저조	18.2	16.4	22.2	10.3	9.7	24.0	-	15.8 (64)
저조한 편	39.3	44.2	38.9	29.4	48.4	40.0	29.4	39.5(160)
그저 그렇다	27.3	19.7	27.8	23.5	25.8	14.0	29.4	22.7 (92)
활발한 편	15.2	17.2	11.1	33.9	16.1	20.0	41.2	20.5 (83)
미우 활발	-	2.5	-	2.9	-	2.0	-	1.5 (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	(122)	(18)	(68)	(31)	(50)	(17)	(405)

다. 교회 사회봉사 실천 시 가장 어려운 점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에 있어서 활발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천할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교회 사회봉사를 실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으로 종합점수를 구한 결과 교회의 재정문제가 581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교회의 시설과 공간의 부족도 23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표 5). 이밖에 지식과 기술의 부족(101점), 신자들의 인식 부족(99점)도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다른 연구에서도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가장 부진한 이유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¹²⁴⁾. 일반적인 종교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목회자들은 사회복지를 하기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 내에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연의 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지할 것은 기술과 지식의 부족인데 문화연의 조사에서 기술과 지식의 부족이 22.4%로 나타나

124) 곽효선, 한국기독교 목회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88, 60.

고 있는데 보사연의 조사에서는 8.9%정도로 나타나고, 시설 및 공간의 부족은 12.2%에서 20.6%로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과거보다는 다양해졌으나 그것들을 교회에서 시행할 때 시설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사회복지활동 수행의 어려운 점 종합점수(보사연)

(단위: 명, %)

	1순위	2순위	종합점수 ¹	비분율
교회 지정문제	272	37	581	51.0
지식과 기술부족	23	55	101	8.9
시설 및 공간 부족	40	155	235	20.6
신자들 인식부족	19	61	99	8.7
지역주민 호응부족	3	24	30	2.6
행정절차 복잡	3	8	14	1.2
당회의 소극적	10	13	33	2.9
어려움 없음	3	4	10	0.9
기타	9	19	37	3.2
전계	382	376	1140	100.0

주: 1) 종합점수=(1순위 빈도×200%) + (2순위 빈도×100%)

교회 재정 면에서는 교회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소수의 대형 교회들 외에 일반적인 중소 교회들에게 있어서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예산 배정 시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시설과 공간 부족 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의 건물들을 사용하면 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교회에 있는 시설만으로 사회봉사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교회의 본당이나 부대시설들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을 잘 활용하여 주중에는 교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써 협력의 방법이 절실하다고 본다.

라.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박종삼은 교회 사회봉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 사회봉사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을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이나 사회복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행정적 도움을 받거나, 타 복지기관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선교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와 교회의 사회사업 체계가 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¹²⁵⁾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교회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가 등장하였다. 예산의 일부는 교회가 부담하며,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교회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다.¹²⁶⁾ 교회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의 타 기관이나 주민들과 관계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통계 속에 나타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문화연의 조사에 의하면 70.7%가 사회복지기관과 관계가 거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복협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나 기관과 강력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는 기독교인이 5.8%이고 비교적 강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3%로서 교회와 복지시설이나 기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8.1%이었다. 여기에 반하여 비교적 약한 협력관계라고 보는 사람이 41%이었고 아주 약한 관계라고 보는 사람이 20.8%로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61.9%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시각에 교회와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시설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일치하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약한 관계로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표 6>에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 구청, 경찰서,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분협력관

125)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4), 230.

126) 김동배, 기독교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온라인:

<http://211.58.255.154/pdsboard/board.asp?tb=bokgi&code=bokgi4>

계는 49.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별 관계가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되었다. 반면,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7.0%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과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흐름을 보면 교회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가고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공공기관과의 관계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계
관계없음	51.1	46.2	23.5	29.4	48.4	42.9	20.0	42.1
심한 갈등	-	-	-	-	-	-	-	-
약간 불편	3.4	-	-	-	3.2	-	-	1.0
부분협조	39.8	46.2	70.6	63.2	35.5	53.0	73.3	49.9
긴밀협조	5.7	7.6	5.9	7.4	12.9	4.1	6.7	7.0
계 (N)	100.0 (88)	100.0 (119)	100.0 (17)	100.0 (68)	100.0 (31)	100.0 (49)	100.0 (15)	100.0 (387)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침례교와 예장 합동측이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내의 구청, 경찰서, 정부 부처 등의 공공기관과는 부분적인 협조관계에 있거나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회들은 다른 교회와의 관계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긴밀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협조관계나 거의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직도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활동이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서와의 접촉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또한 교회 사회봉사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효과적

인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교회는 효과적인 사회봉사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다른 교회,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협력하는 사회봉사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임을 알 수 있다.

제 4 장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사례

교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는 21세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가진 이웃들을 지켜주는 전문적 사회사업기관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다 감당할 수도 없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개교회가 혼자서 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사랑의 이증계명 실천의 사명이 있다.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고 교회의 선교 기능은 물론 사회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신앙적 차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회봉사가 현대의 복지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시행함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고 한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협력의 대상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나 특수한 사회의 장(setting) 곧 교도소, 소년원, 병원,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에는 이미 교회 밖의 사회봉사 체계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사회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간복지 단체,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 등 이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예비하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자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⁷⁾ 따라서 교회는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한

127) 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이 교회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

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여러 기관과 함께 실시한다는 개념을 새롭게 터득해야 할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국가나 교회가 모두 복지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해야만 할 복지분야가 따로 있고, 혹은 교회가 해야만 할 복지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복지실현의 한 축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교회가 이러한 협력에 관심을 두고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통해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실천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사례

사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일회성의 실천으로 끝나거나,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교회의 사회봉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명이다.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회봉사 실천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러한 면에서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교회의 재정이 여유가 있고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와 지역사회가 얼마나 유대관계가 있으며 협력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독자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한다고 지역과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사회봉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가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례들은 도시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회봉사를 수행해 오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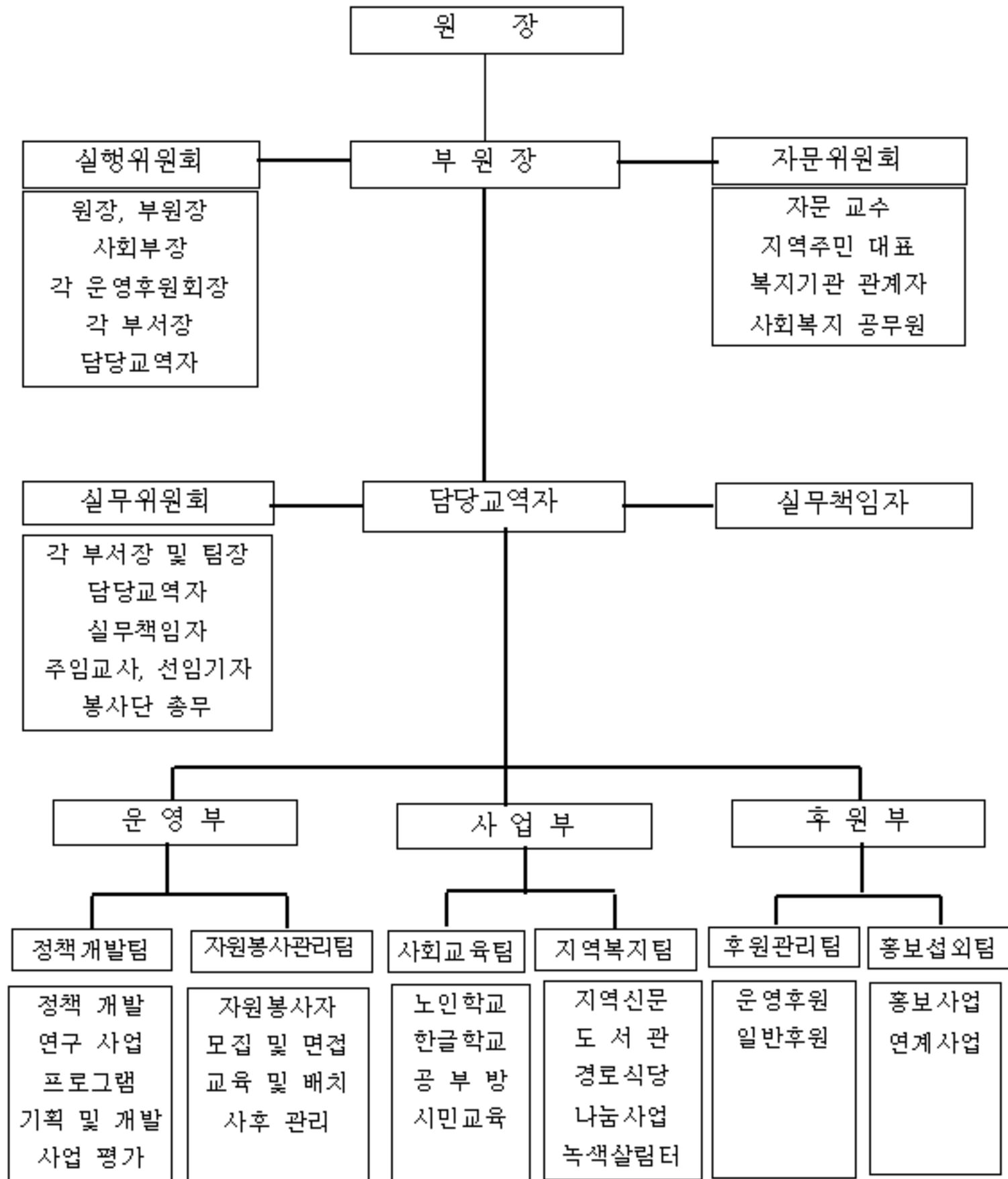
1. 도림교회¹²⁸⁾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도림교회는 1926년 일제하에 창립되었다. 일제하의 고난, 해방의 기쁨, 전쟁의 아픔, 4·19, 5·16, 10·26 등 사회적, 정치적 격동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겪으면서 도림동 지역사회가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비교적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3대 담임 목사이면서 사회적 변천을 가장 많이 겪었던 유병관 목사(1947년~1974년 재직)는 전쟁 후의 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에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접근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경 구락부를 설립하였다.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인근 구로 공단을 비롯하여 영등포 이곳저곳에 농촌에서 이주해 온 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상부상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1964년 산업 전도부를 시작하였다. 이들을 주축으로 1967년에는 산업학원을 열어 원동기 기술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자격증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영세 근로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개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1980년 12월 30일 총회의 시범사업교회 선발과정에 신청하여 1981년 1월 17일 시범교회로 선발되었다. 이에 도림교회는 지역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이로써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복음을 더욱 전파하여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 하에 시범교회로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차후 계속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도림교회는 도림 지역사회봉사센터를 조직하고 지역과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먼저 도림 지역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을 보면 교회와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그들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도림 지역사회 사회봉사 조직과 실시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28) 도림교회, 2001년 봉사센터 자료집

<도림 지역사회봉사센터 조직>



* 부속기관 : 어린이집, 신용협동조합, 소암장학회

가. 노인학교

3월 첫 주에서 6월 마지막 주, 9월 첫 주에서 12월 첫 주까지 개강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이고 12시 45분에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한다. 큰 행사로는 소풍, 견학, 체육대회 참가 등이 있다. 교사는 13-14명이며 학생은 125여명이다.

나. 시민교육

컴퓨터 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취미 교실과 성교육 교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인형극이 있다. 컴퓨터 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현재는 2개 반이 운영되고, 서예 교실은 화요일 오후에 주간 반, 월요일 저녁에 야간 반이 운영되며 송병덕 장로가 지도하고, 미술 교실은 월,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데, 지도는 KBS 무대미술 감독을 하는 노봉영 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다. 한글학교

개강은 3월 첫 주에서 7월 첫째 주, 9월 첫 주에서 12월 첫 주까지이며, 시간은 주간반이 매주 화, 목요일 10-12시 야간반은 같은 요일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다. 그리고 오후반은 1-3까지로 책 읽기반이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겨울방학에는 약 10번 정도 모여서 겨울특강을 실시한다. 주간반이 7반, 야간반 2반, 오후반 2반해서 총 11반이 운영되며 교사는 11명이다. 학생은 150명 정도다.

라. 도서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 월요일은 4시, 토요일은 3시까지다. 현재 13,000여권의 장서가 있으며 아동 도서가 많이 대출되는 편이고, 매 월마다 신간 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다.

마. 공부방

현재 6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2주를 제외하고 월-금요일 4-6시에 운영되고 있다. 학생 수는 현재 60여명으로 각 학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학

생들의 교육비는 30,000원으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다.

바. 경로식당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토요일 12시 40분에 지역 노인 6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을 하고 있다. 교회의 두 분의 집사가 식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은 연 27,480,000원인데 분기별로 보조되고 있다. 꾸준하게 물질 후원이나 현금 후원이 들어 오고 있으며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사. 나눔사업

나눔사업에는 도림 미용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청소년봉사학교, 사랑의 저금통, 결연운동 등이 있다.

(1) 도림 미용봉사단

매월 수요일 1-3시에 지역의 미용사 9명이 번갈아 가며 경로식당, 노인학교 학생들과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2) 수지침봉사단

3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수요일 1-3시에 교회의 컨테이너 막사에서 경로식당, 노인학교 학생들과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수지침, 뜸, 부항 봉사를 하고 있다.

(2) 청소년봉사학교

9월중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봉사센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복지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학교를 개설하는데 중등부와 연계하여 실시하려고 한다.

(3) 사랑의 저금통 결연 운동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금 바꿔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 제작한 저금통을 나눠주어 배부한 저금통에 대한 수거율을 높이려고

하고, 이 수입금은 결연 운동과 기타 어려운 기관과 가정에 나눠주게 된다고 한다.

결연 운동은 남·여 선교회, 청년회에서 어려운 지역주민이나 기관 등에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는 운동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 녹색살림터

바자회, 환경운동, 농산물직거래, 재활용품판매 등을 하는 환경살리기 운동이다. 21세기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다시 부활시켰다. 각 기관의 봉사부장이나 환경관련 담당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하나같이 사업이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환경보전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꾸미고자 한다.

자. 지역사회봉사 부속기관

도림교회는 이외에 지역을 위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소암장학회다.

(1) 신용 협동 조합

신용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협동조직으로서 일정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인격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 받아 유용하게 쓰는 금융협동과 조합원 전체의 교육 및 공동이익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 민주적” 민간협동 조합이며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과제로 하고 있다. 1981년 5월 17일 자산 308,390원을 갖고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협의 주요업무는

- 조합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관리
-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업무
-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업무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

- 농촌조합 조합원은 도시조합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시조합 조합원은 농촌조합 조합원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더불어 살기운동으로 유통협동사업인 직거래 사업
- 공과금 대리수납 업무 등이다.

(2) 어린이집

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보호할 수 없는 15개월~취학 전 영·유아를 위해 정원 79명(만 2세미만 1학급 5명, 만 2세 2학급 14명, 만 3·4·5세 3학급 60명)으로 구립(구청의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소암장학회

소암장학회는 도림교회 원로목사인 유병관 목사(1988년 소천)가 은퇴하면서 퇴직금 1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장학금 수혜 학생들 중에는 1981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씩 포함되었으나 1982년부터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로 국한되고 있다. 장학생은 이사회에서 장학심의내규에 의해 학업성적, 가정형편, 봉사 참여도를 참고하여 지원자 가운데서 선발하고 있다. 매기 장학생 가운데는 동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되는 교회 밖의 지역 대학생이 평균 3-4명씩 포함되고 있다.

장학기금은 교인들의 헌금과 장학회 자산의 이자로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암장학회가 계속 성장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건설하게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장학헌금을 하는 수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정성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도림교회의 사례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을 교회가 혼자 담당하고 있는 편이다. 이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예산에 있어서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예산을 교회가 아직도 많이 지원하지만 교회가 지역과 함께 사역하려고 도림 지역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을 구성함에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자문위원으로 지역의 주민과 복지기관 관

계자,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에 있어서 예산보다 지역의 지적자원이나 인적 자원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림교회는 기본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기초가 세워진 교회다. 셋째 도림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사회복지 전문 사역자를 전담 목회자로 두고 초기부터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덕수교회¹²⁹⁾

덕수교회는 1946년에 정동 1번지에 창립한 이래 38년간 도시 중심가에서 엘리트들을 대상¹³⁰⁾으로 사역하여 왔다. 1984년에 도시 발전의 물결에 밀려서 도심 지역의 공동화(Donuts) 현상이 일어나서 성북구 성북동 주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주민은 2만 명 정도 되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면서, 예배당 뒤쪽 성곽 밑 동네에는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특수한 곳이었다. 그리고 부자촌과 가난한 지역 사이 중간에 토박이들로 이루어진 중산층이 있었다.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 개념으로 이렇게 중간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한 1985년 겨울에 동네 아이들이 예배당에 돌팔매질을 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것은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 것을 거부한다는 신호탄이었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자문하며, 덕수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로, 교회는 본래 그 지역에서 출생하여 자라는 것이 정상인데 덕수교회가 성북동으로 들어온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마치 침입자와 같이 느껴졌고, 둘째로, 교회의 규모나 조경 상태, 교인들의 구성 등으로 보아서 부자 마을에 부자 교회가 들어온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셋째로, 이 지역의 보수적 성격과 타종교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었다(이 지역에는 불교 사찰이 10여 개나 있고 천주교 수도원과 수녀원이 8개나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강한 거부 반응과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교회의

129) 덕수교회, 2001사회봉사 사업 계획서

130) 덕수교회 교인들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70%가 넘는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40%이며, 자영 사업을 하는 교인이 30%이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엘리트 교회라는 별명이 붙을 만하다. 손인웅, 예배당 옆에 세운 사회복지관, 온라인 <http://www.ducksoo.net/>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00여 명의 아름다운 환경과 교회의 모든 시설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발한 교회의 사회봉사는 1991년 12월에 연건평 407명의 복지관을 교회 옆에 세우게 되었고 교회 사회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덕수교회는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실천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전 교우 대상 『사회봉사의식 교양 프로그램』 운동

첫째, 전 교우 대상으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교육을 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한 사람이 한 곳 이상 사랑의 현장을 갖고 후원이나 자원봉사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현장, 자원봉사 모집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첫째, 성북 노인 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민간복지재단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모색 둘째, 성북구청에 『방과후 교실』 제안서 제출 : 노인교실을 오후에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운영비 지원 받을 수 있음. 셋째, 자원봉사자 개발과 지원 : 명수학교에 자원봉사자 결연 지원. 넷째,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사업 개발 :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을 위한 결연 지원

첫째 법정 요건의 미흡으로 실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성북동 주민의 “틈새 계층”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활성화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둘째, 특히 목회간호사역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과 사순절 기간동안 무상 집수리를 해준다. (무상수리 지원예산 10만원 × 10가정 = 100만원) 셋째,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정기적인 학습지도를 받도록 해 준다.

(4) 실천방안

(가) 남녀선교회 및 교육 부서별 사랑의 결연

남녀선교회(10명) 및 교육부서(10명), 사회부(10명)에서 한 부서에서 1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와 결연하여, 매월 일정액을 후원한다. 교육부서의 경우 어린이나 청년들이 개인당 1,000원 정도의 소액을 매월 3째 주일에 봉헌한다.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도 회원들이 월 1회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일정액을 매월 전달한다. 사회부에서는 모금된 이 금액을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독거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부서에 영수증과 같은 보고서를 전달한다.

지역의 소외된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소액이지만 일정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밑반찬 전달이나 필요한 자원봉사 등을 해주기도 하며, 명절 때는 선물을 전달하므로 저소득층 지역주민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나) 집안 가꾸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교회 내의 기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여 특정 기간 봉사한다. 교회 내 자원봉사단 조직) 주로 사순절기간(예수님이 고난받으신 40일 동안)에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수리, 수도와 하수구, 도배와 페인트, 간단한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해 준다.

(다) 전 교우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사랑과 선교의 현장』 헌금봉투에 자신의 관심분야 또는 후원하고 싶은 현장에 표시하여, 매월 일정액을 헌금한다. 월 1회 헌금한 이 금액은 지역사회와 복지기관에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사랑의

현장(기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 상	현 장
노 인	포천노인정/ 성북노인정/ 무의탁노인방문, 용돈후원/ 재가노인점심배달/ 경로식당/ 노인학교
어린이	영세민자녀후원/ 영세민장애자녀후원/ 극빈 가정 자녀후원(어린이집)/ 소년소녀가장결연/ 벽촌낙도어린이초청/ 벽촌 신문도서 보내기
청소년	극빈 가정 자녀장학금지급/ 농촌교회청소년장학금지급/ 청소년문화센터 지원
시 설 및 단 체	바울 장애인선교회/ 신망애육원/ 베데스다원/ 작은자 복지선교회/ 한국선명회/ 한국아동복지회/ 폴트 아동복지회/ 한남시립여자기술원/ 교경협의회, 교구협의회/ 교도소선교(선교교역자, 성경후원)/ 중주원로원/ 중회자선사업단체/ 순교자유가족기념회
기 타	환경미화원후원/ 물우 청소년 돕기(바자회)/ 외국인노동자초청행사

(라) 소년소녀가장 결연 사업

지역의 결손가정(편부, 편모)이나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개인후원자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결연하여 준다. 또는 학습지도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도록 한다.

(마) 독거 노인 도시락 전달

노인학교에 나올 수 없는 지역 독거 노인이나 요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교회내 자원봉사자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방문한다. 도시락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고 일주일 동안의 생활얘기를 나누는 말벗(상담자)이 되어준다. 경로식당이 운영될 때는 경로식당 봉사자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전문도시락 업체의 도시락을 1년 내내 전달한다. 특히 명절 때나 아플 때는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한다. 사망할 경우,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은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한다.

(바) 사랑의 헌혈

헌혈할 수 있는 교우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온 헌혈차량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헌혈한다. 연 2회(봄과 가을) 교회에서 실시하며, 사랑실천운동본부와 대한 적십자사에 신청하여 헌혈하는 날을 정한다.

(사) 어린이 교실

인근 지역사회의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동안 다양한 과목의 수준 높은 어린이교실을 운영함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뜻깊은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만들기반, 미술반, 영어반, 글짓기반, 바이올린반, 유아미술반, 음변반 등을 개설하여 교회 내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강사로 초빙한다. 미취학아동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으로 나누어 이번 학기에는 총 16개 반을 운영한다. 강사는 경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며, 한 달 수료시 수료증과 개근상, 소정의 상품 수여.

(아) 성북 초등학교 결식아동 후원

성북 초등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결식 아동 총 40명 가운데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8년 9월부터 매월 결식 아동 10명을 후원 매월 결식아동 숫자는 증감이 있으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지원을 함으로 예산을 비축했다가 개학하면 지급.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도록 함. 예산은 월 300,000원 (한 어린이당 월 급식비 30,000원×10명)

(자) 알뜰시장 바자회

지역사회 내의 학업이 우수한 학생이나 빈곤으로 인해 학업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덕수교회 교인 및 성북구 관내 지역주민으로 교회 내 40개 기관(각 구역, 남녀선교회, 교육부서, 부속기관 등)과 외부 업체가 참여한다. 마련된 장학금은 전액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차) 제15회 경로잔치

성북구 교구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초 교파적으로 연합하고 지역의 경찰서와 구청, 복지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개교회 노인학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카) 작은사랑 저금통 모으기 운동

전 교우(교육부서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작은자복지선교회에서 제작한 저금통을 사순절과 대강절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모든 교우에게 배부한다. 저금통은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에 봉헌한다. 전 교우들이 사순절(예수님이 고난받으신 40일동안) 기간과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저금을 한다. 이렇게 모아진 저금통은 작은자복지회와 어려운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타) 외국인근로자 초청예배

이·미용 의료 선교활동, 결연교회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 이·미용 의료 선교부에서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의정부 선교교회와 일산 모든지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위로한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성탄선물을 전달하므로 외국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을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또한 환경미화원 위로회를 개최하여 성북동 환경미화원과 성북2동 사무소 직원들을 초청하여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한 미화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로하는 행사.

나. 환경부

환경오염이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므로 지역사회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그 원인을 연구, 규명하여 대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교우와 지역주민들을 동참시켜 환경운동 및 경건절제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녹색살림터 개장과 운영

물건 하나라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지역주민들과 교우들이 재활용품 수집 및 물물교환 장소로 녹색살림터를 활용한다. 환경부 회원들이 당번을 정하여 자원봉사하며, 수익금은 환경프로그램 운영비와 어려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교회옥상 녹화사업이 이루어지면 환경상품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주민 회원을 관리한다(E-mail). 환경운동의 성경적 근거와 실천방안에 대한 강좌, 비디오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가시적) 실천방법으로 녹색가게를 운영한다.

(2) 지역환경문제의 파악 및 해결책 모색

지역의 녹지공간(공원, 개발로 파괴되는 녹지)조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

과 과대포장 상품류를 모니터하여 업소에 건의하며 편의점이 배출하는 쓰레기 문제 (인스턴트 식품) 등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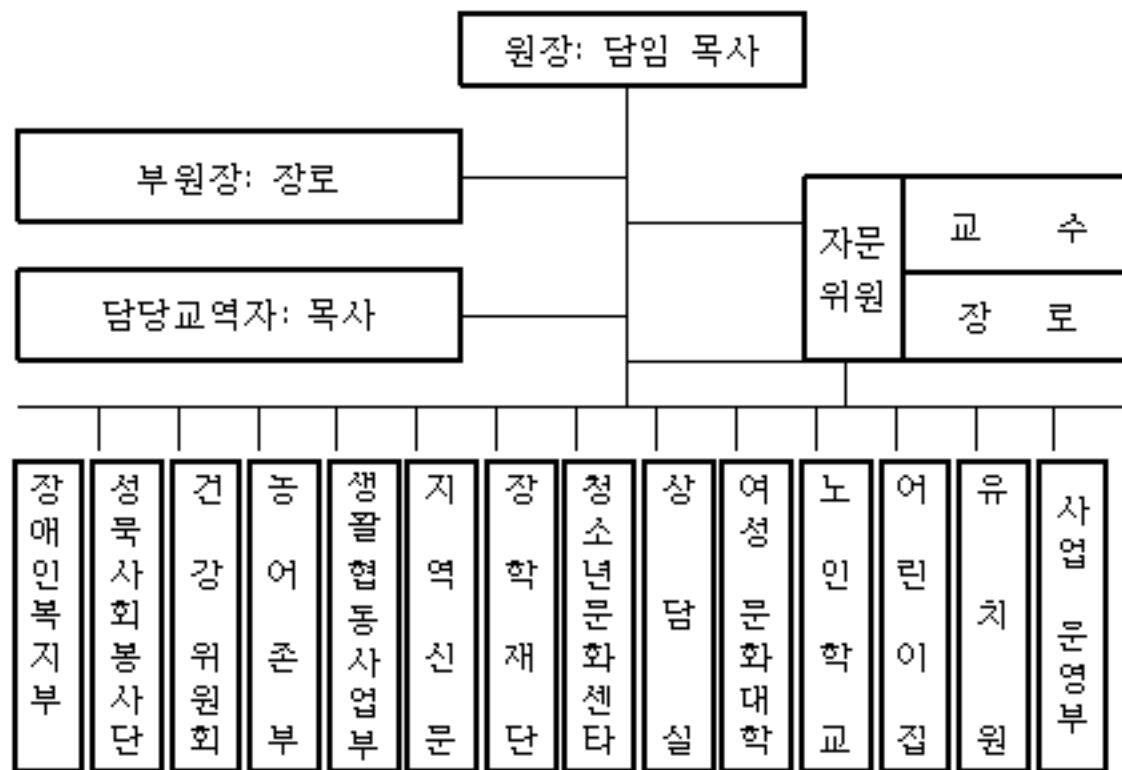
(3) 녹색교회 만들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오솔길과 카페, 녹색가게를 조성, 옥상을 활용하여 정원으로 가꾸고, 녹색가게와 카페(휴식) 공간, 서울시가 지원하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녹화사업 시범교회”가 되도록 한다.

다. 지역공동체 생활교육원

덕수교회 지역공동체 생활교육원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도를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의 남녀, 노소, 빈부, 도농 간의 화합과 일치를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지역주민(이웃)에게 공동체 생활교육과 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직



(2) 주요사업 내용

(가) 사업 운영부

- 1) 사회봉사 사업계획서 발간

- 2) 작은자 저금통 운영 : 사순절과 대강절
- 3) 주간보고 및 월간 사업평가
- 4) 알뜰시장 바자회 개최 : 준비위원회 조직과 운영
- 5) 사회봉사관 개관행사
- 6) 장기사업 계획 : 사회복지법인, 사회봉사 기금, 탁노방, 사랑의 집 등
- 7) 실습생 교육지도 : 교육계획안에 따른 행정적, 교육적, 정서적 지도
 - ※ 실습부서 : 어린이교실, 청소년문화센터, 성북사회봉사단, 노인학교
- 8) 기획 및 홍보 : 사회봉사관 프로그램 안내지, 인터넷 자료 제공, 사회봉사관련 방문하신 분에게 안내와 자료 제공, 지역신문, CA-TV

(나) 자원봉사관리부

- 1) 자원봉사자 모집 : 연말에 전 교우 대상 신청서 배부, 배치 사역, 전교우 대상 자원봉사 의식 교양 프로그램 실시.
- 2) 자원봉사자 수련회 : 교육 및 정책세미나
- 3) 자원동원 개발 프로그램 / 관리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4) 자원봉사자 위로회 : 격려와 지지를 위한 부서별 모임과 전체 모임

(다) 덕수 어린이집

덕수 어린이집은 성북구 성북동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17개월부터 만 6세까지)에게 보육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3개 반에 4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육 받고 있으며 교회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덕수 유치원

본원은 관인 유치원으로 교육법 제 146조 유치원 교육목적에 준하되 본원의 교육이념을 살리고 그리스도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되어 현재 3개 학급 11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지역의 대학교의 유아교육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돕고 있다.

(마)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의 사업목표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간

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동아리활동 지원하여 인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선교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사회심리극이 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으며, 자아상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때 긍정적인 자아상과 건전한 사회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회심리극을 준비한다. 사회심리극 팀을 선발하여 인근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공연한다. 이를 위해 성북구청 청소년담당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 사회심리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모한다. 성북구 관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사회심리극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구청(행사주관)과 민간단체(덕수교회; 프로그램 운영), 학교(특별활동 행사)가 협력하여 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 모니터활동인데 모니터 동아리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 취재, 기사, 편집하여 만든 신문으로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나 실습생을 두고 인근에 위치하는 중·고등학교의 신문반이나 일반학생 중 관심이 있는 학생을 자원봉사자로 선발한다(약 30명). 년 1회의 욕구조사,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분기별로 발간하게 되는 청소년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셋째, 댄싱 동아리가 있다. 여러 대상의 분위기에 맞는 댄스(dance)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격주 토요일은 교회 복지관에서 레크레이션 댄스(Rec-dance), 고전무용, 워십 댄스(Worship-dance)연습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련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다.

(바) 성북 사회봉사단¹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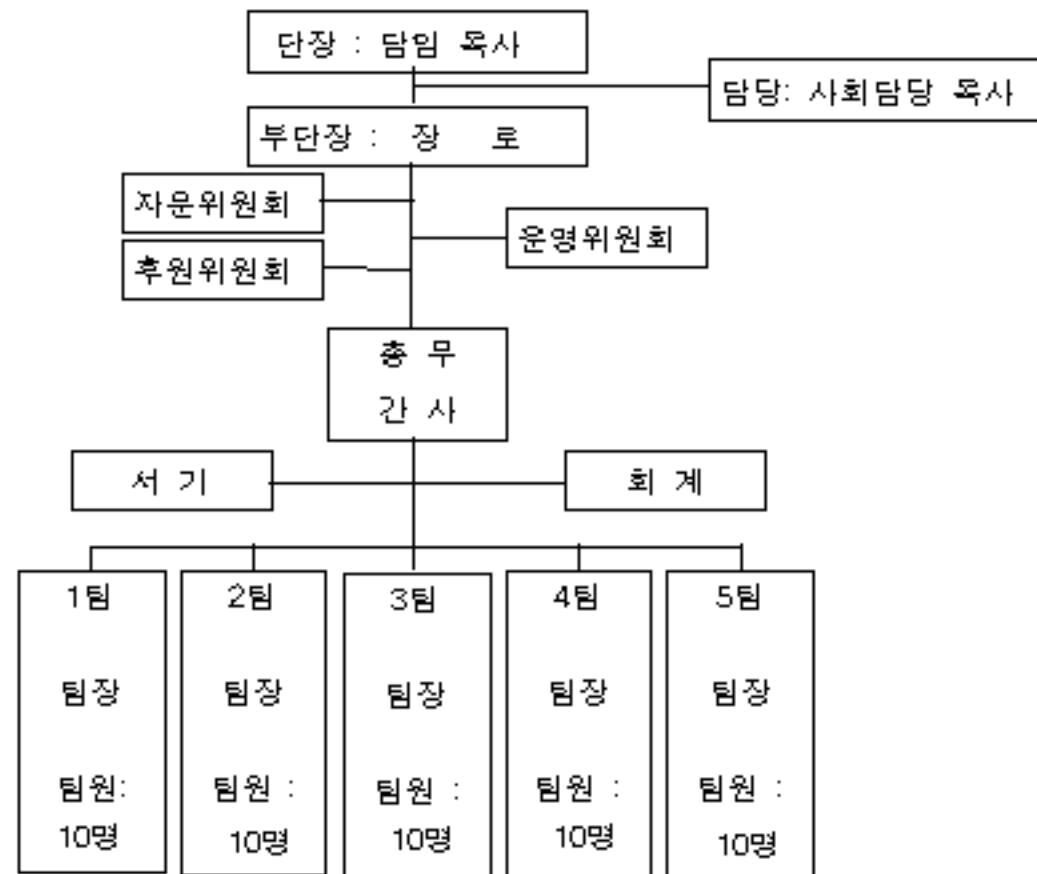
131)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덕수교회 2001사회봉사 사업계획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발표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중·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적극 장려되었으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체계적 준비, 인식부족, 봉사교육 및 실습, 체험 현장의 결여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봉사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소수의 봉사 장소도 원만한 활동 제공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봉사 요구가 부담스럽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 확인서의 부정 발급으로 인한 비교육적 현상까지 이르게 된 단계에 와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청소년 봉사와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접착점(Bridge)이 필요했던 교회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아래의 목적을 위해 봉사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첫째, 봉사활동 참가 학생들이 자원봉사교육과 경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며 자원봉사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둘째, 학생들이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랑을 느끼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청소년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도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덕수교회가 활동의 중심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 및 사회시설과 연계하여 성북동과 기타 지역의 봉사 현장을 개발한다. 성북동 및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활동에 참여시킨다(중학생 15시간). 고등학생 1, 2학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고, 덕수교회 및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과 실제 활동을 균형 있게 한다(50:50). 성북 사회봉사단을 학교 및 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등록하여 참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인정한다.

이를 위한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자문위원회 : 박종삼교수, 고양곤장로 등 전공학과 교수
- * 운영위원회 : 각 학교, 동, 구청, 경찰청 담당실무자로 구성
- * 후원위원회 : 덕수교회 사회봉사관련 인사 및 어머니
- * 팀 장 선 정 : 교회 내 자원봉사자 (중고등부 교사, 청년)
 관련대학교 자원봉사자 (전공학과)



(사) 여성문화대학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그 주역인 여성으로 하여금 변화무쌍한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의 근원으로써 사명을 깨닫고, 값진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선교사역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부성경공부를 주 1회 (수요일) 실시하고, 부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경제불황 속에서 주부들의 사회경제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족건강을 위한 사업(수지침 등)을 수시로 열어 도움을 주고 있다.

(아) 노인학교

노인학교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사회 노인과 생계보호대상 노인을 개발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희망과 영생의 삶을 확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로식당 운영 : 주 1회 화요일 (중식제공/레크레이션)
- 2) 재가복지사업 : 거택보호대상자 파악, 결연사업
- 3) 노인학교 : 주 1회 목요일 (치료 레크레이션 / 원예치료 / 건강강좌 / 소

품 / 의료검진, 위생관리(이·미용) / 생일잔치 / 반별모임 (합창, 건강체조, 성경, 한글반)

4) 노인건강 상담 : 노인학교, 중식 수혜대상노인, 거택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5) 자원봉사 조직 : 경로식당 운영인력 (안내/식당봉사), 거택보호대상 방문인력, 노인가정 결연자 확보, 노인학교 자원봉사 자치회 결성

6) 후원회 조직 : 식비 후원 (15만원/1회 식비, 30주), 강의 후원

7) 노인신앙상담사업 : 노인학교 학생에 대한 신앙상담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한다.

8) 경로당 순회 방문 프로그램 : 매주 1회 성북동 노인정과 한신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로당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들의 욕구와 기대에 만족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노인들은 경로당의 존재가치는 그들의 여가 활동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합당하고 생활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해결과 건전 여가활동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기초하여,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여 노인의 고립방지와 폐쇄적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경로당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노인활동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교회와 시설을 연계하여 경로당 지원체계를 확보하며, 지역사회에서 노인관리 및 행정을 위한 1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현대사회에 동조하며 밝고 긍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로 새롭게 형성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노인존경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공동관리 개념을 고양하는데 경로당을 연구대상으로 정하는 목적을 두려고 한다.

(자) 농어촌부 및 생활 협동사업부

1) 농어촌부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 어린이를 초청하여 교육적, 신앙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으로 도시와 농어촌 교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신앙공동체라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청 사업으로는 농어촌 교역자를 초청하여 도시견학 및 목회세미나 실시하고 벽촌, 낙도 어린이를 초청하여 도시 견학과 수련회를 개최한다. 강북노회 농촌 지도자 및 개척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강북노회와 협의를 통해 노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하고 교회가 협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랑의 선물 보내기(책, 학용품, 의류) 등이다.

2)생활협동사업부

죽어 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 농촌의 유기농(무농약 내지 저농약)농수산물을 회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토를 살리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환경을 보전하는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장 생협 물품판매를 위한 강북매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차)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는 기존의 이·미용 의료선교회 활동과 의무실, 그리고 목회간호 활동을 일원화하여 1999년도에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무료 의료진료를 통하여 이 교회의 전 교우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통한 전인 목회 사역과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실천한다. 특히 국내에 유학 와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북구 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한다.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실시하며 의사와 약사, 간호사의 유기적 협조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한다. 또한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건소,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등과 함께 협력하여 봉사를 실천한다.

특히 목회 간호부를 운영하여 장기질환을 가진 사람(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심방하며 교육하고 관리한다. 예방 가능한 질병(치매, 중풍, 골다공증, 흡연, 약물중독 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강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매개체로 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교회 안과 밖의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여 필요한 사람과 연결시켜 주고 교회가 영적인 면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

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원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가) 장학재단

중·고등학생들에게 년 4회, 대학생들에게 년 2회를 지급하고, 장학생 관리 및 추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회, 동장, 학교장, 농·어촌 교회, 사회봉사단 장학생 위원회를 개최한다. 장학생 기금 확보를 위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타) 상담실

교인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신앙상담, 가정상담, 청소년 상담, 건강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건축상담 그리고 보험과 관계된 사고해결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 의뢰기관 결연하고, 송실대 사회사업학과(박종삼 교수)를 통해서 상담에 관계된 각종 교육자료, 문헌, 그리고 상담 세미나 정보수집을 의뢰하고, 기독교문화연구소(홍인종 목사)를 통하여 상담 사례의 심각도에 따라 전문상담에 의뢰하여 좀더 전문적인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파) 지역신문

지역신문 (명칭 : 성북골소식)은 지역사회내의 각종 소식과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연대간, 중간 매개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며,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데 선교적 도구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 언론기관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모집하여 지역사회 내 지역 기자단을 조직하고 교육원 중점사업 계속 게재하고 지역기관(동회, 구청, 파출소, 사업복지시설) 및 주민에게 배포한다.

(하) 장애인복지부

장애인복지를 위해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교회와 지역사회 형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한다. 주보, 게시물, 인터넷 홈페이지, 유관 부서의 협조, 특수교육기관인 명수학교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교육사업으로 교회와 지역의 장애교우를 파악하여 열린 교실 운영하고, 결연과 후원사업을 위해 기관이나 개인 후원자 모집, 발굴,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덕수교회의 사회봉사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덕수교회는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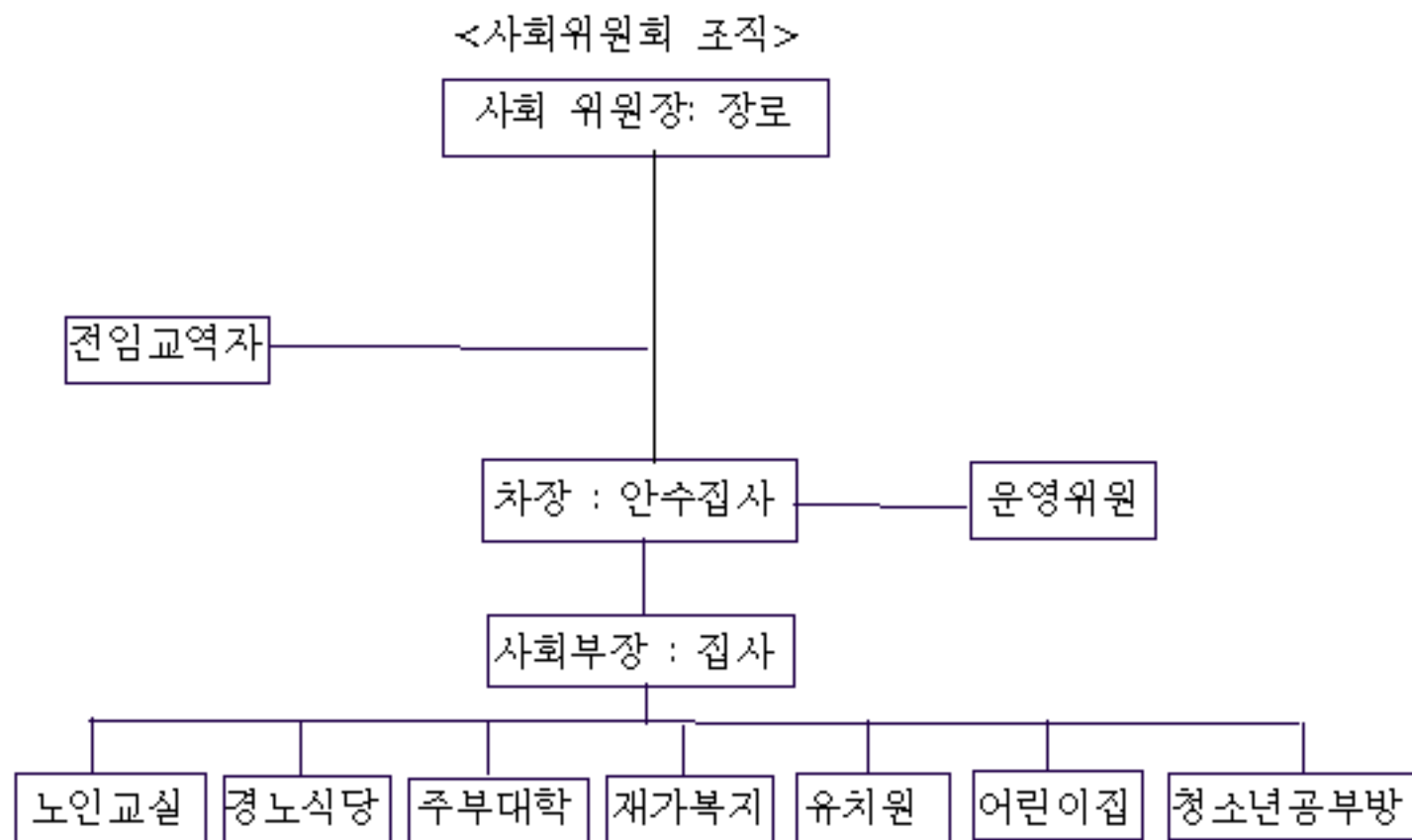
교회 사회봉사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처음부터 지역사회봉사를 지역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둘째, 물론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교회가 부담하지만 덕수교회는 지역의 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셋째, 지역의 교육기관, 관공서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지역의 문화센터,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교회를 지역 문화의 중심,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었다. 넷째, 사회봉사를 위한 조직에 있어서 지역의 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것은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 교인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계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덕수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보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 현장으로도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3. 도원동교회¹³²⁾

도원동교회는 1946년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이북(함경도, 평안도)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실향민 교회다. 해방 이후 관제국과 임대계약을 맺어 적산 가옥을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6.25이후 실향민 함께 모여 성장하여 지역의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부터 도원동 지역은 가난한 실향민과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달동네로 도원동교회는 이러한 지역을 위해 60년대 초기부터 청소년 교육사업으로 고등공민학교, 성경 구락부, 유치원 등과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자녀들만 있는 가난한 모자 가정을 돕기 위한 현재 월드비전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모자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봉사의 기초를 다져왔다. 도원동은 용산청과물시장(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에서 낱품 일을 하며 사는 월세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이들이 월세로 살다가 돈을 모으면 전세로 이사가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지역이었다. 작은 가옥들이 모여 있어 인구밀도가 높았다. 그러나 교인은 수시로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 용산청과물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주하며 주민의 대 이동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낙후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도원동

132) 사회위원회, 사회봉사프로그램자료, (서울: 도원동교회, 2001)

지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의 문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꾸준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주일 학교를 포함하여 10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도원동교회는 1992년 도원동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사회봉사관을 건립하고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조사와 교육사회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지역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다.



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도원동교회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교육사회관을 지으면서 이 건물이 일 주일에 하루 이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교회를 위해 일 주일 동안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건물은 교회가 지었지만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봉사 전임 교역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사회봉사를 추구하고 있다. 도원동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도원 노인교실

1983년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봄, 가을 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도원동 주변 지역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예배와 성경공부, 내세의 소망과 여가 선용, 견학 및 소풍, 교양 강좌, 특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구청에 등록하여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하여 좀더 폭넓은 노인교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 도원 경노식당

1983년 도원동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시작하면서 노인교실 학생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하며 더불어 지역의 노인들에게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실시하던 중 1991년 교육사회관을 완공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봉사를 위해 지역사회 매주 목요일의 노인무료급식을 주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 1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경노식당을 운영함에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교회의 봉사를 통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교회가 허락하여 2000년 2월부터 경노식당을 매일(토·일요일은 제외)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원동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용산제일교회(기장교단)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바에 도원동교회는 구청과 의논하여 수요일은 용산제일교회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도원동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매일 약 200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원 경노식당의 특징은 첫째,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의 협력, 둘째, 지역의 타 교단 교회(용산제일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의 도원동교회 교인이 아닌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봉사자들을 보면 각 요일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약 1/3은 지역의 주민들이다. 특히 천주교인, 비기독교인 등이 함께 봉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판매하는 물건들-밑반찬, 쌀, 부식 주방에 필요한 기구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물건이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3) 재가복지

(가) 밑반찬 배달

지역의 무의탁 독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주 1회 지역의 무의탁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도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활발하다. 약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약 30여명의 독거 노인을 맡아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들 가운데 약 50%는 지역의 주민들이다. 또한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독거 노인들에 대한 자료와 필요하면 함께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곳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도원동교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구청에서 도원동교회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도원동교회가 배달하고 있는 노인들도 많고 그 부분까지 맡아 하게되면 차량과 기타 인력이 부족하여 시간을 두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의료 봉사 및 말벗 봉사

지역의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는 것 외에 대화 상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동이 힘들어 거의 집에만 있어야 하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먼저 밑반찬 배달을 하는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의사 및 간호사 혹은 퇴직한 의료기관 봉사자들을 자원으로 하여 주일에 한번씩 찾아가 그들과 이야기해 주고, 필요한 의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도 지역에 알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지역의 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도원주부대학

1994년에 시작된 주부대학은 초기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의 이동과 지역의 문화가 변하면서 주부들에게 실지로 필요한 기술 즉 가정요리, 빵과자 만들기, 홈패션, 헤어핀, 헤어밴드, 산후 조리 간병인 교육, 미용, 의류수선, 컴퓨터 등과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 각

과목은 일 주일에 한번 2시간씩 한 학기에 3개월이다. 이 과목들을 주부들의 필요에 따라 매년 수시로 바꾸어 맞추고 있다. 주부대학의 강사는 초기에는 외부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듣는 교육이었으나 이제는 외부의 전문 기술 강사를 초빙하여 배우고 있으며, 컴퓨터 교실은 지역의 학원을 운영하는 타 교회 집사와 협력하여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컴퓨터와 강사는 타 교회 집사가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부들에게 실비로 컴퓨터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다. 주부대학은 수강생들에게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위해서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면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이 주부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 초반으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40%이고 다른 종교(불교, 천주교)나 무종교인 사람은 60%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과의 담을 많이 허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 야학교실

2000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도원동 지역 파출소를 이웃 동의 파출소와 합치게 되어 도원동파출소가 없어지면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용산경찰서가 도원동 지역이 청소년들이 많고 어려운 곳임을 알고 도원동교회에 제안을 했다. 교회가 청소년 야학교실을 운영하면 도원동 파출소 건물을 청소년 야학 교실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교회는 받아들이고 용산경찰서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여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 검정고시를 칠 수 있게 하는 야학교실을 준비하였다. 교사와 자원봉사는 교회가 맡고, 시설은 경찰서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교회 청년부가 맡도록 하였는데 청년부는 현재 용산제일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두 교회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지역의 경찰서와 두 교회의 협력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나. 부속기관

도원동교회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3개의 상설 부속기관을 두고 있다. 사회봉사

위원회에 포함은 되지만 각각이 구립 및 관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도원 어린이집

1992년 교육사회관을 지을 때부터 교회는 그 안에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었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완공하자마자 구청에서 교회를 찾아와 그 동안 구청에서 도원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교회가 이러한 건물을 지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교회가 위탁 운영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지었고 어린이집의 모든 내부 시설과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구립 도원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 50여명 정원의 3학급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 도원 청소년 공부방

1993년에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좁은 집에서 공부할 공간도 없고 늘 바깥에서 노는 것을 보고 이들을 위한 공부방 시설의 필요를 깨닫고 교육사회관의 건물의 한 층을 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교육사회관 건물을 짓기 이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본 경험이 있고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역시 구청에서 찾아와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교회가 위탁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교회는 허락하고 위탁운영 체결하여 120석의 공부방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에 정부의 시책 가운데 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을 장려하고 민간에게도 장소가 허락되면 지원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역에 재개발로 지역의 주민이 대거 이주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어 잠정 휴관하고 추후에 지역에 맞는 새로운 아파트 청소년 문화에 대비하여 지역의 문화와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준비중에 있다.

(3) 도원유치원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75년에 정식으로 인가된 관인 유치원으로 현재 5학급 150명의 어린이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원유치원은 일반 유치원과는 다르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비를 철저히 저렴하게 하면서도 교육은 내실 있게 한다. 소위 말하는 잡부금을 일체 금지하고, 자모회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일단 원비를 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교회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예산의 부족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비가 싸면서도 교육을 잘 하여 지역에 현재까지도 도원유치원은 학생들이 늘 넘쳐서 대기자가 항상 있는 형편이다.

다. 교회 시설의 개방

도원동교회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교회의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교회의 식당을 정부의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제공하고, 교육사회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모임을 갖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특히 재개발을 실시하던 중 많은 모임을 교회가 허용했으며, 지역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교회의 시설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도원동교회는 구청에서 이재민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의 예비군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교육사회관 한 층은 예식장으로 준비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예식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뒤늦게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가정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원동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협력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가 사회봉사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지역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교육사회관을 짓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협력을 위해 위탁운영제도를 잘 활용한 좋은 예다. 셋째, 지역의 필요를 위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넷째, 교회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봉사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할 수 있

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봉사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4. 일산 동천교회 동천기독교 문화원¹³³⁾

1993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창립된 동천 교회는 '총체적 목회원리'에 입각하여 가르침, 전파, 돌봄의 목회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 65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창립한 그 이듬해인 1994년부터 실시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동천기독교문화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정착하고 이 기독교문화원은 교회 성장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

교회는 지역에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가 가진 인적, 공간적,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간접 선교의 기회를 갖고, 문화 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기발전과 자아성취, 평생교육의 뜻을 펴도록 도우며,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 선용을 하게 하고, 수강생의 자기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천 기독교문화원을 교회 부설 기관으로 세우고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이사회는 교회가 선임한 임기 2년의 운영이사와, 문화원의 강사가 자동직이 되는 실행 이사로 임명하였다. 실행이사는 강사를 그만 두게 되면 자동으로 이사직을 그만 두게 된다. 운영 이사는 교회 안의 자원을 발굴하여 참여하게 하였고 실제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실행이사는 문화원 강사들인데 일반 주민이 누구든지 강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 동천 문화원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협력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1994년 10월에 개설된 동 문화원은 3개월을 1기로 하여 3개월씩 5과목의 무료 강좌를 시작으로 반응이 좋아 점차 확장되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무료 강좌를 실시하다보니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강좌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결석이 잦아지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3기부터 성인은 한 기마다 2만원, 어린이는 1만원을 받고 교재준비, 강사 연구, 시설준비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특히 방학을 이용하여 제 2기부터는 어린이에게도, 4기부터는 중고생에게도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고양시 교육청에 일반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99년부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지역사회 선교와 문화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133) 황해국, "총체적 목회원리에 따른 지역사회봉사," 월간목회, 1999년 8월호, 278-286.

동천기독교문화원은 최대한 교회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교회의 자원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강사로 헌신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저렴하게 함으로 사교육비가 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즘에 문화원의 운영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들과의 마찰인데 일반문화센터의 특징을 살려 학과목이 아니라 일반학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 * 어린이강좌 : 영어회화(유치부, 초등생), 독서지도, 한문서예, 그림 그리기, 컴퓨터교실, 종이 접기, 한문 배우기, 영어로 노래 배우기, 바둑교실, 플룻 연주, 역사기행.
- * 중·고반 강좌 : 일본어·중국어회화, 기타 배우기, 플룻 연주.
- * 성인반 강좌 :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불어회화,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글 서예, 한문서예, 한국화, 서각, 꽃꽂이 교실, 강단꽃꽂이, 메이크업, 피부미용, 플룻, 제과·제빵, 손님 초대상 요리, 페백·이바지음식, 양재, 홈패션, 퀼트, 이용, 노래 배우기, 수화, 한글교실, 발 건강관리, 김치·장 담그기, 사진촬영(홈 비디오), 수지침과 민간요법, 한약의 기초조제법.
- * 공개강좌 : 여행 세미나, 가정생활 세미나, 부인과 질병·건강세미나, 치열·턱교정, 자녀교육 세미나, 문학강좌 등.

일산 동천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사회봉사가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된 경우이다. 이 교회의 사회봉사의 특징은 일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교회가 준비하여 실시한 데 있다. 특히 문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현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1차원의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신도시 아파트 지역의 필요는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 봉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교회의 지역사회봉사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경우라고 할 것이다.

5. 한남제일교회¹³⁴⁾

서울시 용산구 한남 2동에 위치한 한남제일교회(오창우 목사 시무)는 출석교인 4백여 명의 교회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무의탁 노인을 위해 년 2차례 마련하는 효도관광과 노인 무료 급식을 통해 지역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태원에 위치한 한남제일교회는 시골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훈훈한 인정이 남아 있는 교회임을 자부한다. 한남제일교회가 위치한 곳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한다는 ‘이태원’으로 동네 어린아이들이 슬집의 메뉴를 적어 놓고 서비스 놀이를 할 정도로 슬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 분야에서 생업을 해결하고 있다. 한남제일교회는 지역 경제의 건전한 문화 정착이라는 취지에서 슬집 동네라는 이미지를 버리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 슬집을 한국적 음식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가. 엘림미션센터

지역이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한남제일교회는 총회와 협력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엘림미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엘림미션센터는 한남제일교회 후원으로 외국인들이 왕래가 많은 이태원에 지난 1998년 6월에 개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성장을 돕고 있으며, 이들에게 유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회 전도부가 제안한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선교」를 결심하고, 5월부터 교박 한달 동안 준비에 매달렸다. 그 결과 교회 교육관 입구에 위치한 따뜻한 카페 분위기의 모임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넉넉지 않은 교회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배와 장판, 냉방 장치는 물론 디지털 피아노까지 모든 집기를 새로 구입해 들여놓은 이유는 다름 아니다. 그들이 더부살이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재 마크

134) 한남제일교회, 교회요람, (서울:한남제일교회, 2002)

발렌시아 목사(UCCP 소속)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센터는 매 주일 20명에서 25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멀리 남양주 오남리 공장지대와 인천, 부평, 구파발 등지의 공장에서 모여든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예배와 식사, 한글학교, 모두다 그들만을 위한 장소에서 그들의 언어로 진행된다.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인 필리핀 근로자들을 선교하기 앞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여 주고 함께 울어 주는 것이다. 발렌시아 선교사는 『그들에게는 복음 증거보다 보살핌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엘림미션센터는 서울 서노회에서 노회선교센터로 허락됨에 따라 새롭게 출발했다. 센터는 현재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와 각 교회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미션센터에는 매주 30여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서울 서노회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주 주일예배와 한글교실 이·미용봉사, 한방의료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주간에는 고용 산재 임금체불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자 상담과 의료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노인 무료급식

한남제일교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인들을 위한 효도 관광을 16년째 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노인들을 위한 급식은 지역에 알려져 관내에 있는 용산교구협의회 회원 교회들과 요일을 바꿔 돌아가며 실시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남제일교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측, 감리교회 등 교파를 초월에서 참여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을 희망하는 교회들에게 오창우목사는 첫째로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둘째로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밥, 삼계탕 등과 같은 보양음식을 추천한다.

다. 주민자치센터와 협력¹³⁵⁾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는 현재 한남동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각 지역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기관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과거 동사무소의 행정적인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는 여유시설을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 사업이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으로 이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 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23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산은 정부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충당하며 프로그램은 그 실정에 맞게 정하고 인력은 대부분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게 한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 단위의 규모 있는 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 단위의 주민센터는 아파트 지역같이 인구 밀집지역 외에는 그리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부족이다. 이것은 교회가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목회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일원이 되어 주민들을 만나고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헌신하는 의식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에 목회자의 참여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한편 교회는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는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결국 한남제일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중심으로서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135) 오창우, "주민자치센터를 '복음전파센터'로," 기독교공보, 시론, 2001년 7월 28일자.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남제일교회의 지역사회봉사의 특징은 첫째,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봉사라는 것이다. 한남제일교회는 지역의 특성상 이태원이라는 지역에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그리스도안에서 쉼터를 제공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업을 교회 혼자 하기 보다는 노회와 협력하였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인 주민자치센터를 교회가 협력하여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잠실교회 - 송파 청소년 수련관¹³⁶⁾

잠실교회는 현재 담임목사인 원광기 목사에 의해 1976년 1월 잠실에서 그 문을 처음 연 이래 지금까지 선교활동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과 장학사업 및 구호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96년 4월에는 교회차원에서의 구제와 봉사를 뛰어 넘어 송파 구청으로부터 가락동 478번지에 위치한 가락 제일어린이집을 수탁하여 교사 및 직원 18명이 156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잠실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청소년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송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02년 2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중심의 복지관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하는 모델이며, 이 청소년 복지관의 특징을 살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체육관(농구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한국문학관, 강의실, 음악실, 컴퓨터실, 소극장, 독서실, 자치 활동실, 주차장, 상담실 등을 갖춘 건물로 농구대, 체력단련기구, 문학영상시스템, 컴퓨터교육장, 피아노, 음향장비, 사무용장비, 버스, 승합차 등을 구비하여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해 피아노, 바이올린, 단소, 통기타, 미술, 독서, 댄스, 연극·영화상영, 영어, 일어, 수학, 문학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과학정보능력 함양을 위해

136)잠실교회, 송파청소년수련관, 온라인 : <http://www.youth1318.or.kr/잠실교회요람>

물로켓, 미니라디오, 로봇 만들기, 창의학교, 케이넥스, 브레인빌더, 컴퓨터 교육, 과학 탐구교실 등과 봉사·개척정신 배양을 위해 상담활동, 봉사활동, 리더쉽 향상, 캠프활동을 하며 건강한 신체 단련을 위해 헬스, 검도, 축구, 농구, 체육, 배드민턴, 탁구 등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았다.

가. 학교연계 프로그램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송파구 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복지모델인 학교사회사업을 통해 학교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응 능력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상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의 영위를 돕고, 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처벌 위주가 아닌 치료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개입함으로써 청소년이 학교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부모와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주변환경의 건강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 집단상담 프로그램(중·고등 학생)

(가) 학급 임원들을 위한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MBTI(혹은 MMTIC: 자기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나'를 알고, 개개인으로 하여금 '리더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게 하며, 의사소통훈련과 학급 임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학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으로 혹은 캠프 형태로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진행된다.

(나) 징계학생 사회봉사 프로그램

징계처분이라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단기 개입의 상담을 통하여 학교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 학교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적응 및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대인관계 기술 증진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조속한 개입을 통해 학교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 약물·성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의 연령층에 맞게 실질적인 약물과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약물·성 인식을 형성하여 약물 남용 및 성 정체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 집단상담프로그램 (초등학교)

(가) 학급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학급내 급우들간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증진·협동심 강화 활동을 통하여 학급내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우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나) 어린이 봉사단 프로그램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발성을 기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효율적인 공부방법 배우기

그릇된 학습 습관을 유발시키는 정서적·인지적·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촉진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라)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

긍정적인 자아상 정립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또래집단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자기표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마) 진로탐색 프로그램

MMTIC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체험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 성 교육 프로그램

사춘기의 준비단계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신체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폭력에 대한 대처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사) MMTIC를 통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MMTIC 검사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자기이해를 돕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사 소통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의 성격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한다.

(2) 학교 특별활동(CA) 협력 프로그램

학과시간 중의 일부인 CA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와 시설을 학교측에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은 전일제의 경우 1회 3시간 총 8회를 진행하며, 격주제의 경우 90분씩 월 2회를 진행한다. 대상은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참여 가능한 인원은 20-50명 사이로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진행 장소는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체육관 및 기타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것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출장지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뉘어지며, 출장 지도는 상담팀 CA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상 야외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학교와 협의 후 CA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 * 체육 프로그램으로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이며
- * 교육 프로그램으로 풍선아트, 만화그리기, 체스, 수화, 대화기술습득, 영화감상, 종이접기, 꽃, 생화소품, 인형 등을 제작, 악기반(플룻, 바이올린), 컴퓨터반, 사물놀이,
- *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진로탐색 교실,¹³⁷⁾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찾아 학습의 동기를 증진시키는 학습능력 향상 활동, 적절한 자기표현의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자기표현 훈련, 점점 중요시 되어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체험 활동인 환경 아카데미, 또래상담의 중요

137) 이 프로그램은 2002년 4월부터 문화관광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성과 또래 상담 자로서의 자질 함양 활동인 또래상담 등이다.

나. 장애청소년 사업(1318 A.S.P.)

“1318”은 “13세-18세의 발달장애청소년”을 의미하며 “A.S.P.”는 “After School Program”으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1318 A.S.P.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 및 생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의 항시 보호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장애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체계로의 개입을 시도하며 또한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 통합을 돕고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주 5회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잠실교회의 사회봉사의 특징은 첫째, 많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실천보다는 송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설을 통하여 어느 한 대상을 집중하여 대상 중심의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중심의 복지관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잠실교회는 이 시설을 송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을 통한 협력의 모델이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력하는 모델이며, 셋째, 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은 하지만 봉사자들은 전문 사역자와 지역의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학교들과 철저한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가 운영은 하지만 정부가 감사하는 기관이 되어 자칫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소홀해 질 수 있고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사회사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대두 될 수 있다.

제 2 절 미국 교회의 사례

개인적인 신앙심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경우는 신앙심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교회의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미국교회의 특징은 그저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local church)’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지역사회교회’(local community church)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인터넷과 미국 교회의 사회봉사 담당자들과의 연락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수집된 것들로 한국의 현실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례들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았다. 먼저 개교회에서의 사회복지활동, 교단에서의 사회복지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개교회 차원의 사회복지활동

미국의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교회 차원의 사회복지활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고용하고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월넛 스트리트 교회(Walnut Street Baptist Church)¹³⁸⁾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시에 있는 월넛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주일 낮 참석인원이 약 700여명 정도 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배당 옆에 약간 큰 가정집 정도의 부속건물에 “교회사회사역”(Christian Social Ministry)라는 간판을 걸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센터의 책임자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138) Walnut Street Baptist Church 홈페이지, 온라인: www.walnutstreet.org

전문사회복지사로서 사회목회를 전담하여 이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교회에서 부담하는 자원은 시설을 제공하고 책임자의 월급 정도이다. 그러나 이 교회 예배당 뒤에 안내 테이블에는 녹색봉투가 놓여 있어서 이 봉투로 헌금하는 돈은 모두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된다. 또 일 년에 한 두 번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합하여 모금 행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들을 위해 활용한다. 이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자원봉사자로 이 센터에서 시간제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헌납하기도 한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료품 제공, 직업알선, 중고 의료품 및 가정용품 제공, 빈곤가정을 위한 재정적 도움, 적절한 서비스와의 연계서비스, 심리상담, 청소년 지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몽고메리 제일침례교회(Montgomery First Baptist Church)¹³⁹⁾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제일침례교회는 1988년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선교사역부장(Director of missions ministries)으로 지역사역목사(minister of community ministry)를 두고 8년 동안 2백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훈련해서 그들과 함께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빈곤가정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돌보는 데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전개하여 왔다.

몽고메리 시는 구 남부에서도 유서가 깊은 도시였고 이 교회는 그 도시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흑인들의 시민운동에도 깊이 관여한 교회이다. 처음엔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상류사회에 속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인종과 계층을 달리한 사람들, 빈곤자,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은 지역사역목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목사의 활동을 통해서 제일침례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교회”(the church that cares)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제일침례교회는 도심지역에서 옮겨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도시문제의 해결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사회목사는 교회의 섬기고자

139) Rachel Gill, "On Wings of Ministry", *Missions USA*, 66, No. 4 (July-August 1995), 32-41., Jane Ferguson, *Montgomery First Baptist Church: Community Ministry*, AL, 2002), 온라인 : www.montgomeryfbc.org/ministry.ofm?doc/D=48

하는 갈망(willingness to serve)과 지역사회의 필요(community's needs)를 연결시키는 촉매자(catalyst)로서 일한다. 목회의 관점을 상실하지 않는 차원에서 교회의 자원과 도시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Jane Ferguson은 이 교회의 지역사역목사(Minister to Community Ministries)로 교회가 지역을 '돌보는 센터'(Caring Center)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 주일에 약 350여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35명의 봉사자들이 이 센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첫째,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Conversational English School, Citizenship Classes)과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ESL(English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Adult Learning Center를 운영하며, 고등학교 학위를 따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G.E.D. Preparation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감옥 등 두 개의 교정시설에 대한 교도소 사역과 건강한 부모교육을 위한 The Mom's Program, The Fatherhood Initiative Program이 있다. 십대 출산자들의 자아의식을 돕는 프로그램, 교회와 이웃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아 자매 결연을 맺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사역(Angel Tree)과 알콜 중독자 토론모임(Alcoholics Anonymous), 셋째, 지역과의 연합 사업으로 28개 지역의 교회가 함께 하는 STEP(Strategies for Elevating People)에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가정 치료 전문 상담가를 책임자로 하는 Counseling Care, Inc.라는 상담소와 교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어린이 여름캠프와 개인지도 프로그램, 아동들의 자아의식 성장을 위한 기획(Think Big Club), 영세민 학생들을 돕는 네 가지의 대학생 장학사업들을 비롯하여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문서선교, 외국인 십대들을 위한 캠프와 지원그룹, 또 직업알선 프로그램 등 그밖에 많은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다.

다. 던우드 침례교회(Dunwoody Baptist Church)¹⁴⁰⁾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상가 지역과 중·상류층 주거지역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실(ESL)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상은 주로 남미나 동남아, 증동 등지에서 막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가르치며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갓난아이의 엄마들도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평균 100여명의 수강생이 있으며 현재 11개의 오전반과 7개의 저녁 반이 있으며, 1년의 예산은 6,500달러를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수강 학생들의 25달러의 등록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산으로 교재를 구하고 간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100% 자원 봉사이고 이 교회의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으로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재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다른 개혁신교단 사람들, 비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한다. 가르칠 수는 없어도 행정보조, 아이 보기, 개인적인 만남 등 외국인을 위해 봉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Susanne은 이 ESL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사례들을 보면 미국 교회들은 사회봉사의 실천에 있어서 전문화를 추구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사회복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좀더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교회들은 목회(ministry)에 Social 혹은 Community Ministry를 교육과 행정과 같이 전체 목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두고 교육을 위한 전담 목사를 두듯이 사회봉사 목사를 선호하고 있다. 사실 담임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교육에 이바지를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므로 교회 사회복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개교회가 혼자만 하는 사회봉사를 떠나

140) Director of ESL at Dunwoody Baptist Church, Susanne Dabney로부터 ESL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Mail로 받은 것을 정리하였음.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추구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2. 미국 남침례교 국내선교부의 지역사회사업¹⁴¹⁾

미국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산하에는 해외선교부와 북미 선교부가 있는데, 국내선교부 산하에는 교회와 지역사회사역부(Church and Community Ministries)가 있어 교단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문맹 사역 : 성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충분히 문자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교회와 지방회의 문맹퇴치사역을 지원하고 직원을 훈련시킨다.

- * 장애인 사역 : 미국에 3천 6백만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 청각, 신체, 정신, 등 각 종류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교회에 제공한다.

- * 건강보호 사역 : 90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지방회, 주총회에서 건강 보호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 * 생명을 위한 대안 : 임신보호센터(Pregnancy Care Center)를 통하여 위기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돕고 낙태 결정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활동한다.

- * 교회 주중 사역 : 주중에 교회의 시설을 개방하여 유아들을 위한 낮 보호시설, 방과후 활동, 클럽활동, 레크레이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돕는다.

- * 범죄 교정 사역 : 감옥과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원자 개발, 상담, 고용, 주택, 위기관리, 긴급구호, 개인지도, 문자교육 등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이 일을 위한 직원들을 훈련한다.

- * 쟁 사역 : 도심지의 빈곤, 실업, 마약, 범죄가 만연한 지역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무주택자 사역 : 점점 늘어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숙소제공, 예방사역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들을 지역교회에 제공하고 돕는다.

141) 남침례교 총회 북미선교부(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온라인: <http://www.namb.net> (1999, 10, 26.)

- * 기아와 빈곤 사역 : 주 총회와 지방회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아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급식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며 빈곤 탈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돕는다.
- * 국내 기아 기금 : 위의 사역을 위해 기금이 설립되어서 각 지역의 기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급식 사업을 설립하며 기아인구를 줄이는 개발사역에 투자한다.
- * 이민과 탈출자 사역 : 외국인의 정착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전개한다.
- * 이주자 사역 : 위의 사역과 별도로 이주자들과 계절적 농장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착취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필요에 대응하는 사역이다.
- * 주거 사역 : 중독자들의 장기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무주택자의 기본적인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거 사역이다.
- * 약물남용을 위한 사역 : 알콜, 코카인, 마리화나, 그 밖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역교회와 지방회를 돕는다.

남침례교 교단중심의 사회사업을 보면 사회정의를 위한 구조적 사회복지활동의 관심을 두고 있는 성공회, 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등의 진보 교단과 달리 보수교단인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등과 같이 대인적 사회복지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이다. 사실 보수적인 교단들은 회중 중심의 사업을 전개한다면 진보적인 교단들은 지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엘리트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편이다.¹⁴²⁾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먼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침례교단의 사회사업은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사업에서 있어서 좀더 실질적이며 개교회가 교단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ies)¹⁴³⁾

미국에서는 도시 지역의 교회들이 초 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특정한

142) 김미숙 외, 150 -152.

143) Bos, A. David, A Practical Guide to Community Minist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152-154.

욕구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관들을 교회묶음(church clustering) 또는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ies)이라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초 교파적(ecumenical)이고 상호 신앙적(interfaith)인 기운이 형성되면서 대도시, 소도시, 시골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위락지역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67년에 소폴크 카운티 사역(Ministries of Suffolk County)이 설립된 후 비슷한 성격의 기관들이 여러 곳에 생겨났고 1981년에는 켄터키주 루이빌시에 협의회가 조성되어 사역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협의회들이 여러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88년에는 이러한 지역사회 사역들이 서로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들 프로젝트들은 어떤 중심적인 기구나 세력이 주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생겨나 정체감을 확인한 후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이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24개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성공회와 천주교도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풍요로운 노인의 삶'(Senior Enriched Living)이라는 단체의 점심과 학습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3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학기 8주 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기별로 소속된 교회들 중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을 빌려주어 모임을 갖게 도와준다.¹⁴⁴⁾

루이빌의 교회들은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을 13개로 분할하여 각 지역마다 하나의 지역사회사역을 세워 각자의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13개의 기관이 하나의 연합회를 조직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합회를 통한 사회봉사의 사업으로는 긴급부조, 음식공급 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방과후 클럽, 편부모 집단, AA 모임, 그리고 모든 연령집단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사업가가 고용되어 개인과 가족, 집단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정, 감독하며, 지역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켄터키주 세인트 매튜 시(St. Matthews City)는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서 제퍼

144) 김동배,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사례-미국의 경우," 174-175.

슨 카운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도시 중에 하나다. 세인트매튜 지역사역(St. Matthews Area Ministries: St. MOM)은 제퍼슨 카운티 지역사회사역 협의회(Jefferson County Association of Community Ministries)에 소속된 13개 회원기관 중에 하나로서 이 지역의 12개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이 교회들의 교파 구성을 살펴보면 침례교(Baptist), 장로교(Presbyterian), 연합감리교(United Methodist), 가톨릭이 각각 두 교회씩, 사도들의 교회(Disciples),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그리고 루터교와 성공회가 각각 한 교회씩 참여하여 모두 8개 교파에 소속된 교회들이 연합하였다.

이 기관은 회원 교회들 외에 Metro United Way, MacLean Foundation, City of St. Matthews, Kentucky Colonels 등 13개의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운영된다. 95년 회계 년도의 세입은 모두 486,000달러 정도였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실천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가족 서비스, 가정 집단상담과 청소년 바로 세우기, 부모교육, 특별 가정 세미나, 자동차 정비 요령, 어린이 보호, 그리고 긴급원조, 헌혈, 무숙 가정 방지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사역 기관은 교회들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교인 회중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리고 높은 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질 높은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자원을 비축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로 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지역사회 스스로 결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들이 이 기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자신이 돈을 내고 자신이 일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전문사회복지활동의 중요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이상적인 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사역운동을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 근거한 그리고 지역을 위한 교회들의 초 교파적인 연합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런 형태의 교회연합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심각한 교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과 관계없이 진보,

보수교단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지역사회 사역운동에는 몇 가지의 어려운 점도 있다. 첫째는 일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교회 연합적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버림으로써 교회들 또는 교인들이 스스로 또는 개별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에 적극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적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사역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관과 교회들과의 연계선상에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교회의 단합된 모습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상호지지와 자원분배, 그리고 중점적인 전략의 개발을 위하여 주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과 함께 영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3 절 종합과 결론

사실 교회가 사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회봉사는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라고 할 것이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봉사를 한다는 것은 교인들의 시간과 물질이 협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들의 사회봉사는 내적인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심은 이러한 교회 자체의 내적 협력으로서의 교회 사회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외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의 특징은 첫째, 외적인 협력, 다시 말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든지, 일반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교회들의 추세였다. 그러나 그 동안 교회들이 사회봉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이 이를 공동으로 담당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그들을 교회의 사회봉사 전임 사역자로 일하게 하는 것은 사회봉사의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교회가 일반 복지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외적인 협력을 추구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지역의 사회봉사를 위한 지역주민, 전문인이나 교육자, 공무원들을 협력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의 협력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봉사를 위한 전문가들의 지식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의 전문인들의 협력은 교회 지역사회봉사를 한 층 더 활성화한다. 넷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사회봉사 수혜 대상으로만 존재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지역사회봉사의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하지만 서로 나누겠다고 하는 의식은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교회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협력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간 연합에 익숙하지 못하다. 같은 교단 내 교회끼리도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 타 교단과 함께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함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을 개교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대형 교회들에게는 교회 전체 예산에서 적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중소형 교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간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좀더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더욱 넓히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 동안 교회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천해야 함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왔으면서도 실천의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교회의 사회봉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도 상당 부분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한

국은 한국대로 개교회 중심적이고, 미국의 교회는 다 인종 사회 속에서 인종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협력의 난제들이 있다. 교단과 교단간의 차이가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직은 몇몇 교회들에게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사회봉사 사례들을 연구해 보면서 협력의 모습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지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전 4:12).

이제 교회마다 협력하는 지역사회봉사를 활성화해 나갈 때 교회 사회봉사는 더욱 효과적이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 5 장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의 둔화에 따른 교회들의 자기 반성은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봉사 실천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개교회별로 남들이 하나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방법으로 하다보니 기초 없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물론 규모가 큰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나름대로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산과 자원 그리고 사회봉사의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 많은 한계를 경험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교회는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봉사예를 뜨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는 공적복지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002년에 들어서 복지부는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빈곤층 사정에 밝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 등의 민간 사회복지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할 방침이라고 하였다.¹⁴⁵⁾ 이러한 협력의 시대적 요청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실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협력의 대상들을 정리해 보면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바탕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한 교회 지역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45)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02년 3월 29일

제 1 절 지역사회봉사의 협력 대상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는 이미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봉사의 대상들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나 지역의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협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다양한 복지기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4장에서 살펴본 현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협력을 통한 교회 지역사회봉사의 사례들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의 대상을 6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교단과의 협력

사실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크든 작든 교회별로 교단을 통해서 협력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교회는 노회에 상회비를 내고 있고 각 노회는 총회에 노회별로 상회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총회는 개교회별로 특별 사업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교단이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은 크게는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지역교회에서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경우, 지역 내에 교단 혹은 노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지역교회가 혼자 하기에는 크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본장로교 통합측 교단 내에 직영 복지시설은 경기도 여자기술원, 어린이집 3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로원, 애란원(미혼모보호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한 곳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다. 물론 교단 총회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단은 실질적으로 시설이 있는 지역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¹⁴⁶⁾ 이것은 교회가 교단과 적은 힘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회와의 협력도 가능하다. 한남제일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

14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편,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99-1210.

과 같은 경우 물론 지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지교회가 하는 것이 곧 노회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봉사 실천의 의미에서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개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 예산과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회는 예산과 전문적인 능력을 지원하고 교회의 인적, 시설자원이 협력되어 지역의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미국 교회의 사회봉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단 중심의 사역에 있는데, 교단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회가 개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크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사역과 문맹 사역, 교회 주종 사역, 무주택자 (Homeless) 사역, 약물 남용을 위한 사역 등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칫 교단(노회)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교회가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단(노회)과 교회가 분명한 사회봉사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이러한 사회봉사도 좋은 협력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는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정부와의 협력

정부가 복지실천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혼자서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 혹은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정부의 복지실천의 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서 서로 간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는 것을 위탁운영제도라고 말한다. 이러한 위탁운영을 통한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가장 보편화된 것은 어린이집, 탁아소가 있으며, 한 때 청소년 공부방도 이러한 위탁운영을 통해 운영되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노인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보장,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위하여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확충 유도하며, 가정·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 분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종교계 위탁 실비노인시설 확충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치매 증종 등의 질환노인이 증가하나 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중산 서민층 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태라 종교시설 가운데 가용한 유희시설의 기능 전환을 지원하고 소규모 실비요양시설 또는 주간 단기 보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Community Senior Club)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합당한 역할 및 소득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저소득 노인 위주의 기존 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 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지 사업대안으로 일반 노인의 복지 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의 절실함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 보건 복지 사업에 관한 정부의 자세한 지침과 계획은 2002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를 활용하면 된다.¹⁴⁷⁾

이러한 위탁운영을 통한 협력의 유형은 교회가 활용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시설을 운영할 재원이 부족한 것이 중소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탁운영 제도는 교회와 정부의 협력에 아주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위탁운영을 통한 협력에 있어서 정부나 기관이 세운 시설을 교회가 최소한의 시설 담보금을 유치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잠실교회가 서울시의 청소년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원동교회나 덕수교회처럼 사회봉사관으로 활용할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이 개교회가 복지법인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47)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편, 23 -42.

3. 공공기관과의 협력

교회가 사회복지의 전달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민간기구로서 그 역할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민단체간 노숙자 지원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노숙자 지원 민·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지방자치체는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각 노숙자 쉼터를 지원하며 전국 실직 노숙자 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는 민간복지자원을 동원하여 노숙자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중심의 노숙자 지원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역사 주변, 지하보도, 공원, 재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증하여 1999년말 6,500여명에 이른 노숙자를 거리상담을 통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여 숙식,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자활사업, 취업알선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종교·사회단체·사회복지관의 교육관 및 부속건물 등에 155개소의 무료숙소를 설치하여 잠자리, 무료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노숙자 쉼터 155개소를 중심으로 1식당 1,012원을 지원하여 1인 1일 2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직자·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노숙자 쉼터 등에서 노숙자에 대한 귀향 권유, 일자리 알선, 사회복지시설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¹⁴⁸⁾

지역내의 동사무소는 과거와 같은 서류를 보관하거나 서류를 발행해 주는 기관으로서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점차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기구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동사무소는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사회봉사의 협력자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청도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은 서로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 기관들과의 협력이다. 이들 교육 기관에는 지역사회봉사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을 잘 아는 교육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또한 대학이 있다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교수들을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14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2000, 보건복지부 편, 49-51.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특히 청소년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관들과 협력은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지역의 청소년문제를 위해서 지역의 경찰서나 파출소들과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 파출소를 가까운 지역의 파출소들을 가능하면 통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의 부족과 파출소 건물이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4.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협력의 대상으로 아직 한국 교회에서 그리 보편화되지 못한 유형으로 지역교회들과의 협력이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행하려면 개교회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교회간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교회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개교회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야겠다. 사실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 역할 갈등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의 역할 수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자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합하여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분담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활발한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세나 재정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의 수준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사회사업활동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간혹 사회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 해도 사회사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관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비전문적 사회봉사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

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 왔으며 그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¹⁴⁹⁾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때 전문적인 결인이 양산되기도 하며, 의타적 근성의 부적응적 사회성이 조장되기도 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현실적 문제와 상관없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교회를 위한 복지 내지는 프로그램을 위한 복지활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지역 내에서 교회들의 사회봉사 효율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들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교회들의 현실적 여건에서는 교회마다 사회복지전문가를 고용하여 복지활동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하거나, 지도 또는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여러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고용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들의 협력은 첫째로, 지역단위의 같은 교단의 교회협력, 둘째로, 초교파적 교회협력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중소 도시, 농어촌교회들은 스스로 자립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세에 있어서나 재정 면에서 매우 역부족인 상태이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여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효과적이다. 한남제일교회의 지역교회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노인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시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특정한 욕구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교회묶음(church clustering) 또는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ies)이라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종교간 협력(interfaith)의 기운이 형성되면서 대도시, 소도시, 시골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위락지역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프로

149) 박종삼은 교회가 비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여기에서 계획되고 실시되는 복지활동이나 자원봉사자는 비전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교회 사회사업가에게는 비전문 복지 요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복지활동이 비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라 해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박종삼, "교회 사회사업의 정체성 정립의 접근방향," 한국 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학문사, 1998), 378.

젝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5. 민간기관과의 협력

교회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아니다. 교회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절대적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⁵⁰⁾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지역의 사회복지 민간기관과 시설들이다. 지역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아동·장애인·미혼모·정신질환자·환자·부랑인·사회 부적응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수용시설들과 상담기관, 그리고 원조기관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은 각자 설립된 목적과 이념들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효과적인 사회봉사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활동을 할 때 당연히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과 한편으로는 중복되거나 집중되고,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도 한다.¹⁵¹⁾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통합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회와 지역사회 민간 및 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내의 민간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둘이 유사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 있는 보완적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와 사회복지관은 모두 문제에 처한 개인과 지역사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격적, 관계적, 환경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그 동기와 정신, 그리고 그 지역성과 시설, 자원 동원이라는 면에서는 큰 강점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 전문성에 있어서는 큰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방법론의 전문성과 합법성(합목

150) 박종삼은 “교회라는 기관은 전문적 사회사업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적 서비스가 권선적·선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를 기반으로 사회사업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반드시 전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Ibid., 375-378.

151) Ibid., 377.

적성), 그리고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 사회복지 상징성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 할 수 있게 하는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자원 동원에 있어서 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정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복지관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고, 복지관은 복지 프로그램 확산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라는 명제아래 교회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그 규모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선교 우선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원은 고갈되어 있는 반면, 인적자원은 매우 풍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실천되는 절약형, 노력봉사형, 그리고 관계중심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봉사 실천을 꺼려하고 겁내는 이유는 전통적 구제와 자선방식의 물량지출형, 시설투자·운영형의 사회복지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장춘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는 방법들을 보면 재정적 후원과 물건, 음식, 옷 등을 지원하는 방법들이 가장 많았고 시설을 활용하거나 교인들의 직접적인 자원봉사로 협력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문적 사회복지활동을 비롯한 기타의 방법들은 아주 적었다. 즉 교회가 보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봉사를 하기보다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봉사를 위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비전문적 봉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¹⁵²⁾ 이와 같은 지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존의 구제 위주의 사회봉사에서 벗어나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 시설들이나 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들이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공동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사연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회는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의 53.2%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46.8%로 나타나고 있는데¹⁵³⁾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성도들을 자원봉사 자원으로 지역의 민간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살펴이 교회들 가운데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152) 유장춘, 지역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회와의 연계방안, (대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1997), 40

153) 김미숙외, 109.

조직을 구성할 때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요청하고, 복지관의 전문 강사들을 교회가 필요시 강사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의 좋은 유형이 될 수 있다.

6.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현대의 도시화된 교회들의 특징은 지역교회(local church)라는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 사업과 위성도시가 건설되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성도가 출석하는 지역교회의 성격을 벗어나게 되었다. 둘째,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경우, 또한 교회의 지역이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게 되어 타 지역으로 교회를 이주하기도 하면서 교인들은 이제 어느 지역의 성도들만으로 구성되는 지역교회의 개념을 벗어나게 되었다. 많은 도시 지역의 교회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 이상은 타 지역에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출석 교회였던 도원동교회도 과거에는 약 90% 이상이 지역의 교인이었으나 이제는 약 60% 이상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교회는 지역교회라는 개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의미의 Community Church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는 지역에 있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 교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타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진정 지역 속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봉사는 절실하다. 그럴 때 지역의 주민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지역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할 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지역에도 알려 함께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원동교회는 지역사회 노인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먼저 위

탁을 통한 협력이고, 또한 이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순번을 정해 봉사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종교의 벽이 없다. 봉사하는 주민들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종교의 벽을 넘는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던우디 침례교회(Dunwoody Baptist Church)도 외국인을 영어 교육 프로그램(ESL)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의 대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의 교회들이 아직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형의 상당부분이 위탁운영을 통한 협력이나 교단이나 지역사회의 부분적인 협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지역의 타 교단을 넘어선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의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 사회와 참으로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폭넓은 협력의 유형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과 교회,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 지역사회봉사는 더욱 효과적이며 활성화 될 수 있다.

제 2 절 협력을 통한 교회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소개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협력의 대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들과 협력을 통해서 각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봉사에 있어서 이런 6가지 협력의 대상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교단(노회)과의 협력 프로그램

교단과의 협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교회가 교단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이 이를 후원하는 형태다.

가. 교단 중심의 유형

첫째, 기존의 각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교단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교회가 이를 돕는 형태라고 할 것이다. 개신교 각 교단의 총회 사회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측 교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관해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출간한 교회 사회봉사 총람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둘째, 재해 구호 사역이다. 이번에 홍수로 한국에서는 5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가구들이 침수를 당했다. 이러한 재해를 재해 지역의 교회들이 도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해 지역을 돕는 구호 사역을 교단이 중심으로 먼저 재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도 구호 사역을 시행할 수 있다. 사실 개교회들이 이러한 재해를 당한 지역을 돕고 싶어도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가야 할지, 도울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연결을 통해서 각 지교회들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사역과 물품 지원사역, 의료 사역 등을 전개할 수 있다. 현재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러한 재해 구호 사역을 위해 교단 사회부 내에 재해 구호 대책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있기보다는 수재현금을 총회적으로 모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회라는 연합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성결교,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 등의 교단들이 연합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재화 구호, 일반 구호, 휠체어 지원, 일반 물자 지원 등의 구호 사업과 사회개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나. 교회 중심의 유형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의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그들을 위한 예배, 상담, 혹은 인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교회의 자원이 부족하다. 예산이나, 전문가, 혹은 총회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교단 혹은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둘째, 출소자들을 위한 교정복지 프로그램.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재소자들을 위한 봉사에는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출소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소 후에 자리를 잡는 동안의 쉼터의 부재다. 이들이 출소 후에는 자신들이 재소자 시절에 자신들에게 와서 도움을 베풀던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교회의 성도들이 꺼려하기도 한다. 본인의 교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교정 선교에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교회가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단과 협력하여 출소자들을 위한 중간 쉼터를 마련하고 그들이 정착하는데 중간 연결 고리가 되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인의 교회에서 감호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갱생원이라는 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몇 일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함을 알았다. 단 몇 일이라도 편안함과 신앙적인 돌봄이 있다면 그들은 좀더 사회를 바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교단차원 혹은 노회 차원에서 시설을 마련하고 개교회들이 협력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독교 민영 교도소 협력 프로그램.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산하 개신교 교회들이 아가페라는 재단(이사장: 김삼환 목사)을 구성해서 기독교 민영 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을 법무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곧 제 1호 기독교 민영 교도소가 설립될 예정이다.¹⁵⁴⁾ 기독교 민영 교도소는 출소를 2년 앞둔 재소자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출소 후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회복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 출소자를 위한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교회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과 상담, 수용자와 피해자 화해, 사회적 관계성회복, 분노 조절 치유 등과 관련된 출소 후 교정 프로그램인 교회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시스템, 아가페 가족 공동체 구성,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 체육활동, 음악, 미술 및 연극 발표회 작품 발표회, 전시회 등의 문화프로그램,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 사회봉사와 사회견학의 사회연결 프로그램, 교도작업

154) 김성진, "아름다운 세상," 한국기독교공보 2002년 9월 14일자, 7.

및 학과교육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500여명의 재소자들을 수감하고 24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 기독교 민영교도소에는 약 1000여명의 기독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교회, 혹은 어느 한 재단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교단과 교단, 교단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결국 더 많은 교회 사회봉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2. 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탁운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6공, 5공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정부는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지실천을 위해서 위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교회가 수용하면서 교회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사회봉사한다는 흔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탁아시설 위탁운영 프로그램. 현재 각 지교회들이 운영하는 영,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과 선교원, 유치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탁운영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에 공부할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에 위탁운영을 도입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현재 이 청소년 공부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둘째, 노인 복지 프로그램.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운영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 노인 무료급식과 주간 양로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회가 시도해 볼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간 양로 시설은 평일에 교회의 시설 가운데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주간에만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 탁아소와 같은 것이다. 이를 교회가 위탁 받아서 노인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관한 자료는 각 지역의 구청 사회복지과나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웹 사이트는 <http://www.mohw.go.kr>이다. 이 사이트에서 복지 분야의 사이트를 찾아서 가정복지,

노인 보건복지과, 장애인복지 사이트를 검색하면 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최근 자료들을 검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복지관 위탁운영 프로그램. 교회가 지역사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회복지관 건물에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가난한 동네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이를 운영할 주체를 공개 모집한다. 교회가 만일 이러한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과의 협력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위탁운영을 위한 교회가 최저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이를 인수하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으므로 정부의 지시가 많이 요구되기는 하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사회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부는 대체로 종교계에서 위탁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의 교회들이 경쟁이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역의 주민들이나, 교회들과의 협력에도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시청이나, 지역의 구청,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자주 찾아보고 구청의 사회복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공공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교회 지역사회봉사에 있어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들은 사회봉사 실천에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 긴밀한 협력은 교회 지역사회봉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주민 자치센터와 협력 프로그램.¹⁵⁵⁾ 현재 한국은 읍, 면, 동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던 일들이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시, 군, 구청으로 이관해서 수행하고 기존의 읍, 면,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 여가 등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155) 서울특별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세와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2000) 2-3.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를 운영하는데 주민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여가활동, 지역복지활동, 주민 편익기능, 사회교육, 자치활동 등이다. 특히 이를 운영하는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데 특히 지역의 교회가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4장의 사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남제일교회의 담임 목사가 현재 이 주민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교회가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지역 파출소와의 협력 프로그램. 서울의 경우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폐쇄되는 파출소 건물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낙후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활용하면 지역의 치안에도 일익을 할 수 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의 파출소 혹은 경찰서와 협력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야학 교실, 청소년 마약, 술, 담배 퇴치 교육, 청소년 비행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 교실, 가출, 비행 청소년 쉼터를 교회 안에 제공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콘서트,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 대회 등을 경찰서 혹은 지역의 파출소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교육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교회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이들 지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후원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학생들 가운데 소년 소녀 가장이나, 집안에 방과 후 돌보아 줄 어른이 없는 학생들을 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교회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학교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지역의 중, 고등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학교의 특별활동을 교회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다. 교회의 예배당을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그들이

어느 특정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교육기관의 사회봉사 전문 교수나, 관심 있는 교사들을 교회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심은 교회가 지역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4. 지역교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지역의 교회들은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와의 협력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특수지역 교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지역에는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다. 특히 장애인들과 나환자, 결핵환자, 간질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은 특수 목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있는 곳에 사는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들이 협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협력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먼저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들이 하는 노인학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교회간에 중복이 된다는 것이다. 실시하는 날짜, 시간, 내용 등이 거의 대동 소의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노인학교를 교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연합으로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노인학교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에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 다하면 다른 교회들도 하고 싶으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다하면 장기적으로는 지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교회로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함께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바로 볼 것이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말벗 되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교회들이 협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료봉사 프로그램. 도원동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와 매년 사랑의 헌혈이라고 하여 함께 헌혈을 하고 있다. 장소는 아무 교회에서든지 가능하고 두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헌혈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가능하다. 한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각 교회들은 의료 봉사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모아서 함께 지역을 위해 의료 봉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민간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하면서 사실 그 동안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은 사회봉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쟁 상대와 같이 여겨져 왔다. 그래서 서로 정보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과 이제는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 할 것이다.

첫째, 민간복지기관과 자원봉사 협력 프로그램. 유장춘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원봉사 직무는 역시 방문과 위문 활동으로서 47.7%가 원했고 43.2%의 기독교인이 일손 돕기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지도, 상담, 행정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34.1%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캠페인(21.6%), 자선·구호활동(21.8%), 환경 및 시설보존 활동(20.9%) 등의 항목에서도 20%이상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⁶⁾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자선 및 구호활동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 중심의 자원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이와 같은 선호 현황으로 볼 때 교회가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전문적인 훈련, 지도와 감독 체제가 잘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요구하는 봉사를 교회에서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간기관

156) 유장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 74.

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복지기관들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녹음 해주기, 재가장애인, 재가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역할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비록 조금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협력해서 봉사할 수 있다.

둘째, 모자원 봉사 프로그램,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어려운 가정을 수용하는 모자원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모자원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습 지도를 해주는 프로그램과 상담, 그들을 위한 예배, 게임, 견학, 모자원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6. 지역 주민과의 협력 프로그램

사회봉사를 시행하는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교회가 지역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때 지역의 주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도원동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본인은 체험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쉽게 호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민과 교회가 서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협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노인 무료급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교인들과 함께 주방에서 일하는 봉사자로 평일 점심 시간을 하루 내서 협력할 수 있다. 쉬운 방법은 교인들의 가까운 이웃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주변에 사는 성도들의 잘 아는 이웃이 함께 봉사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회봉사에 협력하게 되고 본인도 좋아한다. 물론 종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친 종교적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면 어렵다. 지역사회봉사에 있어서 열려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로서 후원하는 것이다. 지역의 시장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내일이면 시들어 버리거나 유효 기간이 임박한 것들을 후드뱅크(Food Bank)와 같이 후원하는 것이다. 물론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안 된다. 본 도원동교회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노인무료급식을 교회가 극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매일 약 200여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알뜰 시장 바자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하는 바자회다. 교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함께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불우 이웃과 소년 소녀 가장, 불우노인, 지역의 학교에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노인 이·미용 봉사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지역 내에 있는 이·미용사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먼저 교회 내에 있는 이·미용사 성도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이·미용사들을 한 사람씩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다 모일 수는 없다. 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면 언젠가지 그들도 참여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원 혹은 취미교실 협력 프로그램. 교회가 많이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취미교실, 주부대학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실 지역의 학원들과 혹은 복지관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보일 수 있다. 서로 경쟁의 위치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시행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필요한 강사들을 지역의 민간 학원이나 복지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물론 서로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 학원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학원의 강사가 교회에서 강의는 하지만 그 학원과는 다른 것을 강의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강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협력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지역과 교회가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의 모든 대상들에게 교회가 협력을 구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의식이 뿌리를 내리도록 교회가 먼저 헌신을 해야 한다. 결국 교회는 이제 오직 교회 성장이라는 의식을 벗어나고, 시간을 가지고 지역 속에 뿌리내리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때 사회봉사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제 3 절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문제들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은 현대 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시대적 요청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실천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한국 교회들의 개교회 중심적인 성장 위주의 사회봉사 실천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 실천을 위해서 먼저 개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대부분의 교회는 궁극적 목표를 전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 물론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사회봉사를 하지 않고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봉사를 활용한다면 특히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기독교 법인이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는 탈종교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부의 감사와 규제 등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본인의 도원동교회에서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경험하였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교회의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관들은 교회를 기관이 필요로 하는 봉사자원의 출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결국 교회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 기관들은 교회는 과연 기관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쓴다면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동역의 관계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지속적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그리고 지역의 민간기관으로부터 교회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주는 자로서의 고자세도 문제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저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교회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시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같은 지역 안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공공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때 동시에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자기 교회와 협력하게 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의 다른 교회와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 교회들이 기관에 저자세가 될 수 있다.

둘째, 교회 사회봉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보사연의 기독교의 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교회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90% 이상의 교회가 복지전문가가 없고 목회자나 선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¹⁵⁷⁾ 즉,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전문가를 선호하고 신학대학 안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학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문가를 선호하기보다는 목회자 혹은 성도들 가운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문제든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그 동안 교회에서 지역사회봉사를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중요한 준비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지역사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실험적으로 해보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식이었다. 계획적이지 못했고, 자료 수집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지역 교회간에 이중적인 낭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충분한 지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지역사회봉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지 못한 채 교회가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넷째, 교회 조직의 문제다. 기존의 교회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봉사에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구성된 조직이다. 봉사를 위한 봉사위원회, 봉사부 같은 조직이 있지만 이러한 조직은 교회내의 봉사와 일회적이거나, 단순한 구제사업 차원의 사업이었다. 또한 그 동안은 교회의 교역자가 몇 명의 구성원으로 이러한 사회복지까지

157) 김미숙 외, 160.

담당해 왔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임시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사회봉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회 조직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열린 교회에 대한 염려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교회를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교회의 예배당마저도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열기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가 개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회가 더러워지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극히 일부분만 열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교회의 담임목사 혼자서 생각만으로서는 힘든 일이다. 평일에 교회의 문을 잠그는 교회들도 많다.

여섯째, 지역사회 안에 기관들간에 사회봉사에 대한 잘못된 경쟁심이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기관이 혹은 우리 교회가 더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같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한다. 따라서 교회들 간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관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에 대한 정보를 무슨 일급 비밀인 것처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들 간에도 서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도원동교회의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사회 노인학교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천주교회가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어서 서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사회봉사간의 단절이다. 최근에 대전시의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 6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36%에 불과했다. 또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지역교회에 얼마나 홍보되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긍정적인 대답은 18.2%에 불과 했고 조금 저조하다는 응답이 27%, 매우 저조하다는 응답이 51.5%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80%에 달했다.¹⁵⁸⁾ 교회는 지역의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조차도 거의 절반이 교회로부터도 후원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158) op. cit., 46-47.

와 복지시설이 얼마나 단절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나친 외부 의존의 문제다. 위탁운영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정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교회 자체의 재정으로 하는 사회봉사는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교회가 사회봉사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협력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재원을 더 많은 사회봉사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자칫 교회 사회봉사 예산을 줄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교회 예산 절약에 그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아홉째, 일회성 협력 프로그램의 문제다. 지역사회 기관들은 자신들의 복지프로그램을 교회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경우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경로잔치나 시설방문 등, 일회성 행사를 통해 떠들썩하면서도 생색을 내려고 하여 전시성에 치우치다 보면 교회와 지역사회 기관 사이에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성서적인 구제와 봉사 정신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교회와 협력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의 도원동교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국 자신이 당선되는데 목표를 두고 말로만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할 때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할 때 교회 사회봉사는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개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다음절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4 절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교회 사회봉사 실천 방안

보사연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봉사가 교회의 기본 사명임에는 목회자의 85.9%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봉사 참여는 목회자의 55.3%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별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에 있어서 눈에 필만한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유무, 사회복지 수행상의 어려운 점, 전체 예산 중의 적당한 사회복지비의 비율 등이 10년 전과 비슷한 상태이다.¹⁵⁹⁾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각은 많이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된 역할은 사회봉사의 실천이다. 물론, 교회가 사회복지를 수행하면서 자원조달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부터 자원을 지원 받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에서 행하는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재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나타난 협력의 유형과 문제점들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구제와 사회봉사를 교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사명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속된 교회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소속교회에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¹⁶⁰⁾ 이들에 대한 인

159) 김미숙 외, 18, 159.

160)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겨울호, 1998, 64.

식변화를 위해 그들이 대학교에 재학중일 때 받는 신학교육 커리큘럼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들에게 사회복지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사고시에 이러한 과목을 첨가시킬 수 있다면 목회자들의 의식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단은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의의, 실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 중심이라는 문제였다. 이것이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교회 성장을 위해 개교회가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다면 교회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과시용처럼 사회봉사를 경쟁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편이기보다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교회 사회봉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우선 목회자가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함을 교인들에게도 알려서 개별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역내의 주민과 타 교회나 공공, 민간기관과 연합하여 활동을 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교회 사회봉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계통의 학교 또는 신학교에 설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 가장 주된 요인이 교회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출해도 고용이 되지 않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회가 아직도 사회봉사에 대한 예산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교회의 부교역자나 담임 목사들의 사회복지 대학이나 기관에서의 재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로교 통합측 교단 사회부에서는 교단 내의 사회복지사를 전담하는 교역자나 성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과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회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상담 등의 전문적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다. 교회사회복지사는 안수를 받고 사회목사(social minister)로 임명되기도 하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회의 목회적 지도자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그들의 직무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목사(pastor), 상담가(counselor), 청소년 목사(minister of youth), 사회사업 목사(minister of social work), 노인목사(minister of senior adults), 지역사회목사(community minister), 사회목회담당자(director of social ministry), 지역사역목사(minister of community ministry)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위치가 아직은 확실히 설정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함께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며 목회 팀의 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¹⁶¹⁾

사회복지 전공자를 통해서 교회내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문화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게 하며 개별적 개입으로부터 집단활동, 지역사회 조직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인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신학교들과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들은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할 필요

161) 유장춘, 미국 교회의 교회 사회사업 양상과 그 한국적 적용, 5.

가 있다. 모든 교회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교회의 역량에 맞게,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회의 사회봉사는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조사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든 일반 사회복지 기관에서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해야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사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에는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일부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베이식 조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 능력이 있는 교회는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이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교회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지역 교회간의 협력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광고하여 교회의 예배당이나 강당, 지역사회복지기관 같은 곳에 초청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는데 자칫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하여 주민들이 꺼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교회와 지역의 복지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학교, 시민단체, 교회, 구청, 경찰서 또는 파출소, 동장, 통, 반장 등을 교회 외에 다른 장소에 초청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은 한 교회가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사회 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조사는 필수적인데 그 동안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조사에 많이 주저해왔다. 예산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지만 이와 같이 지역사회 조사를 협력을 통해서 실시한다면 교회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 사회봉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의 구성이다. 효과적인 사회봉사의 실천을 위해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를 위해 교회 제직회 내에 장로와 담당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원회 혹은 사회봉사위원회를 두고 지역과 교회의 증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직을 구성할 때 자문위원 혹은 협력 파트너로 지역의 전문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을 함께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당회의 개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로교는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당회에서 결정하는 데 이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목회의 운영에 평신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히 사회봉사에 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열린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의 첫 걸음은 열린 교회를 추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자체건물과 부속건물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시설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99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부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교회들은 평균 1.39개 정도의 부대시설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전용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63.7퍼센트였으며, 교육 및 사회봉사 겸용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8.4퍼센트, 교회 묘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20.2퍼센트나 되었다. 전용 사회봉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6.6퍼센트에 불과하며, 수양관(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7.9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회의 부대시설의 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²⁾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의 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턱을 낮추어야 한다. 지역 사회가 필요하면 교회 시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도원동교회는 교회의 마당을 지역의 길로 제공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교회의 마당이 지역의 두 곳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되었는데

162) 이만식,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총회 산하 전국교회의 실태에 관한 결과분석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내부자료 (1999).

교회가 마당을 닫으면 두 지역의 주민들은 먼길을 돌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교회는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경우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교회 관리에 많은 애로 사항은 있지만 과감히 마당을 지역의 길로 열어 놓았다. 또한 교회의 마당을 지역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를 특별한 종교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의 한 공간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지역의 주민들과 협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교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특히 본 예배당을 포함한 교회의 봉사관과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과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주 몇 시간의 예배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 가능한 교회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센터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최소한 교회 반경 약 1km 정도 지역에서 해당 주민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교회내의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회 내의 활동에만 활용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사회봉사는 협력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진정 주민들의 짐을 나누어 갖는 참 교회가 될 것이다.

여섯째, 민간 복지기관들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회가 봉사자의 정신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가치에 따라 생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의 삶의 장이라고 한다면 지역 내에 있는 민간 복지기관들은 교회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정보와 실천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지역의 복지기관을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의 상대로 여기지 못하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민간복지기관이 다른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복지기관을 인수하여 자신의 교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좋지만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과 인적, 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한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교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 훈련, 실습 등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자칫 서로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조건도 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으로서 지역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봉사를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와 지역의 복지기관이 서비스 구매 개념을 도입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각자의 필요를 위해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령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자원을 복지관에 제공한다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구입하여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된 것이다.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 복지관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정부나 공공재단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했는데 기관에서 실현하기에는 시설과 인적 자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교회에 위탁하고 교회가 복지관의 지도를 받아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교회와 지역의 복지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일곱째,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의 구성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개교회 중심성에 대한 부분적 시정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협력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 위주의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은 앞서 충분히 논의된 바였다. 따라서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개교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의 모든 문제를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협력망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 역할 갈등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의 역할수행도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교회간의 협력관계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다양한 교단 교회들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교세나 재정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어 개별적으

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분야별로, 혹은 지역별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분담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활발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교회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서로간의 자원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게 해야 한다. 본인의 도원동교회에서는 구청에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밀반찬 배달 봉사 요청이 들어 왔지만 이 교회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라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는데, 이러한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회협의체가 구성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역사회 교회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함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다양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형성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와 지역이 하나라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속적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일회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프로그램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회와 지역의 차별을 두지 않는 봉사의 실천이 필요하다. 협력을 통해서 교회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절약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교회내의 장학금 지급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확장하고, 교회의 창립기념일이나 감사절 절기를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며, 더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홉째, 교회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1999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교단의 조사¹⁶³⁾에 교회사회복지 활동 현황에 나

타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 교도소 등을 방문하는 방문지원 사업(39.2퍼센트), 아동복지(22.2퍼센트), 노인복지(20.3퍼센트), 지역사회복지(4.6퍼센트), 청소년복지(2.6퍼센트), 여성복지(2.1퍼센트), 장애인복지(2.1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와 있다. 교회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사회봉사 활동의 대상집단을 보면(이중 선택) 노인(63.1퍼센트), 장애인(42.4퍼센트), 청소년(36.1퍼센트), 영유아(16.3퍼센트), 아동(8.9퍼센트), 여성(4.1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인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 못지 않게 교회내의 고령화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등 비교적 소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교회의 기본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는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기를 원한다. 많이 해야 잘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많이 해서 알리기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교회간에 예산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도 물량위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 집중함으로 교인들도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봉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한 교인이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한 교인이 한 가지의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각각의 교회마다 지속적으로 잘 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씩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과 협력하고 협의하여 교회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을 통한 교회 지역사회봉사 활성화방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활성화 방안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이익을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칫 이러한 방법에 얽매어 교

회의 본질로서 사회봉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문제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초점은 교회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데 있다. 교회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는 이미 출판되어 있는 책¹⁶⁴⁾을 참고하고, 4장에서 제시한 교회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교회의 사회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때 교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164) 이에 대한 자료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부 편,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차기천, 봉사프로그램가이드, (서울: 좋은생각, 1994) 을 참고하기 바람.

제 6 장

결론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눅10:37). 그 동안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사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은 잘 알고 있지만 가서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볼 때 한국 교회 성장에 있어서와 같이 개교회 중심적인 사회봉사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효과적인 교회들의 지역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그 동안 한국 교회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해 왔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되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지역의 교회로서 지역을 모르고 지역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외딴섬과 같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들이 지역사회봉사를 얼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지속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에 한계를 느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적 근거를 성서적, 교회론적, 신학적, 교회사적,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하여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함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약의 장로제도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이웃 사랑 실천에 있어서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신약시대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교회 핍박의 시대였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력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교회내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 돕는 교회 내적인 협력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전인격적인 표현이다. 나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협력의 근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사도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협력하는 지체라고 하였듯이 교회가 지역과 협력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모습은 교회사 속에서 볼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좀더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어 가면서 증세 시대의 수도권 운동과 종교개혁 시대의 국가 및 시와 협력하는 모습, 경건주의를 통해서 나타난 인보관 운동을 중심으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는 더욱 전문화되었으며, 나아가 현대 복지국가제도 아래서 이러한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는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 복지 국가들의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비스간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단편화되었고, 결국 국가나 지역 사회도 복지국가의 실천을 추구함에 있어서 재정이나 자원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의 규모가 다양하고 복잡한 오늘날 개교회가 재정의 지원과 봉사를 다하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구제성 사회봉사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회 성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굳어진 개교회들도 사회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나 개교회 중심으로 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정부 홀로만이 복지를 온전히 성취하기란 쉽지 않음을 발견하고 복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의, 특히 종교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호 보충적인 요구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협력이라는 방법을 가져오게 하였다.

셋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실태를 조사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협력을 통한 사회 봉사의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사회봉사를 선교를 위한 교회 성장의 한 도구로서 이해한 부분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교회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자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봉사자원의 한계와 공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웃 사랑이라는 봉사의 기본 사명을 가진 교회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현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는 교회 사회봉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현재 소수이기는 하나 교회들이 지역과 협력을 위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지역을 위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협력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바라기는 이러한 협력을 통한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는 바이다.

다섯째, 협력을 통한 교회 사회봉사는 대상별로 구별하여 협력의 유형을 6가지로

볼 수 있다. 위탁운영을 통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민간기관과의 협력, 지역의 교회와의 협력, 교단과의 협력,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의 대상들과 함께 사회봉사를 실천함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내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 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생각과 열린 교회를 추구함으로써 지역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사회봉사 실천의 장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봉사의 대상자도 되지만 또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가 또한 지역사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지역사회봉사가 교회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 사회봉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된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교회들이 점점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쟁의 습관들이 사회봉사 실천에 나타나기도 했다. 교회들이 과시용이나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너도나도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도 했다. 교회들이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은 교회 지역사회봉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봉사의 실천은 주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늘 고백해야 할 것이다(고전 4:2).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사회봉사를 조급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금방 열매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의 방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역과 협력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을 위한 사회봉사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사례 속에 보았던 교회들과 도원동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본격적인 협력의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이루고 있을 때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형성은 일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회봉사를 열린 인식, 열린 교회의 자세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사명인 사회봉사 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력의 대상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봉사 실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협력이라는 방법이 교회들이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봉사의 실천에 있어서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 시설도 미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의식이 많이 부족함을 부인할 수 없었다. 교회의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혼률을 볼 때 가정사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데 교회 사회봉사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회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절대 부족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라기는 구체적으로 봉사 대상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에 관한 연구도 이루지기를 원한다.

특히 점차 다양해지는 사회봉사의 요구 속에서 교회가 사회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회봉사 전문 목회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교회들이었으나 이민 사회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민 사회 가운데서 여러 소수 민족들 간에 협력하는 사회봉사의 실천에 관한 연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연구이지만 이 연구가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강철희, 지역사회복지-거시적접근, 온라인:

<http://211.58.255.154/pdsboard/board.asp?tb=bokgi&code=bokgi4>

곽효선, "한국기독교 목회자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88.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편,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기독교문사, 기독교 대백과사전, V. 8, 서울: 기독교문사,

김군진, 기독교 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배 외,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김동배, 기독교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온라인:

<http://211.58.255.154/pdsboard/board.asp?tb=bokgi&code=bokgi4>

김명용, "교회와 하나님 나라." 장신논단 제 7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156-178.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김미숙 외, 교회 사회복지활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_____,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성진, "아름다운 세상" 한국기독교공보 2002년 9월 14일자.

김세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고난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267-285.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 한울, 1997.

김영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근거." 기독교연합신문 1999년 6월 6일자.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1998, 겨울호, 64

- 김장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1998.
- 김철영, “창조질서 본존에 관한 윤리신학적 분석,” 장신논단 제 6집, 1990
- 김태성, 성경룡,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대전: 대전광역시,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편,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덕수교회, 2001사회봉사 사업 계획서, 서울: 덕수교회, 2001.
- 도림교회, 2001년 봉사센터 자료집, 서울: 도림교회, 2001.
- 맹용길, 미래신학 미래목회 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9.
- _____, 미래신학 미래목회 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0.
- 박동현,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_____,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박종삼, “21세기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방향,” 제 3회 신촌성결교회 신촌 포럼자료집, 서울: 신촌성결교회, 1998.
- _____,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4, 217-231.
- _____,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이 교회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송실대학교기독교사회연구소 편 서울: 한울, 1992, 174-193.
- _____, “교회 사회사업의 정체성 정립의 접근방향,” 한국 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학문사, 1998.
- 보건복지부, 2000년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2000.
- _____,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편, 23 -42.
- _____, 보건복지백서2000, 보건복지부 편, 49-51.
-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02년 3월 29일 자.
- 사회위원회, 사회봉사프로그램자료, 서울: 도원동교회, 2001.
- 서울특별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세와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2000.

- 성규탁 외,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 손인용, 예배당 옆에 세운 사회복지관, 온라인: <http://www.ducksoo.net/>
- 신문철, “교의신학적 관점,” 기독교 영성운동, 서울: 영성, 1997.
- 오정수, “우리 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40-52
- 오창우, “주민자치센터를 ‘복음전파센터’로,” 기독교공보, 2001년 7월 28일자.
-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 _____, 한국 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유장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와의 연계방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연구보고서 1997-1.
- _____, 지역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회와의 연계방안, 대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1997.
- 이만식,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총회 산하 전국교회의 실태에 관한 결과분석 보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내부자료 1999.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7-34
-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1998, 46-81.
- 이양호, “칼빈의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독교사상, 1986년 10월호, 32-45.
- _____, “칼빈파의 제네바와 재세레파의 루터 공동체의 이상,” 기독교사상, 1989년 5월호, 112-124
- 이원규,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 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232-249.
- 이혁구, “복지공급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76-91.
- 이현주 외, 지역단위 사회복지 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잠실교회. 송파청소년수련관, 온라인: <http://www.youth1318.or.kr/잠실교회요람>
- 정건작. "사회복지 정책과 봉사활동의 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194-206.
- 정경배.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 1998, 겨울호, 7-25.
- 정무성.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자원 동원전략." 지역사회복지운동 8집,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0.
- _____. "한국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협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1998, 봄호, 4-13.
- 정진영 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서울: 서울여대출판부, 1993.
- 조홍식.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1998, 여름호, 7-19.
- 차기천. 봉사프로그램가이드, 서울: 좋은생각, 1994.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86.
- 한남제일교회. 교회요람, 서울: 한남제일교회, 2002.
- 황해국. "총체적 목회원리에 따른 지역사회봉사." 월간목회, 1999년 8월호, 278-286.
- 2 번역서적
- Barclay, William. 성서주석시리즈 마태복음 (하), 황장욱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9.
- Bonhoeffer, Dietrich. 옥중서신,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_____. 인죄론,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Ferguson, Sinclair B. and Wright, David F. 아가페 신학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1.
- Friedlander, Walter A. 사회복지개론, 김한수 역, 서울: 범문사, 1985.

- Jones, Ezra Earl. 교회개혁의 이론과 실제, 고민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Lindgren, Alvin J.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Miller, Donald G.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Moltmann, Jürge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외 4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_____. 창조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사회복지실천이론의 토대, 이필한 외 15인 역, 서울: 나눔의 집, 2000.
- Turre, Reinhard. "교회사의 전통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이삼열 역, 서울: 한울, 1992.

3. 외국서적

- Barker, Robert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 NASW Press, 1995.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V/3, Edinburgh: T.S.T. Clark, 1962.
- Bessell, Robert. Introduction to Social Work, London: Batsford Ltd, 1970.
- Bos, A. David. A Practical Guide to Community Minist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Cushing, Richard C. The Servant Church, Boston Daughters of St. Paul, 1966.
- Dabney, Susanne. "ESL Program Of Dunwoody Baptist Church," Mail, 2002, 5.
- Ferguson, Jane. Montgomery First Baptist Church: Community Ministry, 2002.
Online : www.montgomeryfbc.org/ministry.ofm?doc/D=48
- Fisher, G. P. History of the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14.
- Garland, Diana S. Richmond. Church Agencies: Caring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Crisis,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Inc., 1994.
- Gill, Rachel. "On Wings of Ministry", Missions USA, 66, No. 4 July-August 1995.
- Glennerster, H., Paying For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5.
- Gottwald, N. The Tribes of Israel of Yahweh,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 Huffman, H. The Quest for the Kingdom of G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 Kung, H. Theology for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Doubleday, 1988.
- Mendenhall, George. The Tenth Gene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3.
-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Online: <http://www.namb.net>
- Starr, Paul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Torrance, T. F. "The Goodness and Dignity of Man in the Christian Tradition," Modern Theology, 1988.
- Walnut Street Baptist Church, homepage, online: www.walnutstreet.org

Vita of
Soo Hun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Dongbinggo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December 1, 1960
 Birthplace : Seoul,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Hye Sun Min
 with two Children, Ei Ræ and Ei Hyun
 Home Address : 11637 Bellflower Blvd, #216 Downey CA, 90241
 Phones : 562) 622-6929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 April 29, 1993

Education:

B. A.: Soong Sil University, Seoul, Korea, 1986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1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3

Personal Experience:

12/2002 to present Senior Pastor of Dongbinggo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4/1993 to 12/2000 Assistant Pastor of Dowondo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1989 to 3/1993 Evangelist of Dowondo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